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2009년 8월 Vol.184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USA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휴전기념일 아닌 평화의 날이 돼야죠”

오바마 대통령 7월 27일 '휴전 기념일' 선언 김예진 동문, 한국전 참전 용사법 통과에 수훈



김예진 동문(왼쪽)이 6.25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민주당의 찰스 랭겔 하원의원과 함께 '한국전 참전 용사법' 법안 통과 자축연에서 이를 기념하는 표지판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한국전쟁은 지난 1950년 6월 25일 발발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3년 1개월간 계속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20세기 가장 비참한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참전 16개국의 UN군 인적 손실은 무려 60여만 명에 이르는 비극적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이 중 미군 인적 손실도 실종자를 포함해서 4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 잊을 수 없는 전쟁이 미국 사회에서 점차 잊혀진 전쟁으로 인식돼가고 있다. 이에 1.5세 우리 김예진(영문 2001) 동문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 인정 법안(Korean War Veterans Recognition Act)' 통과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큰 귀감이 되고 있다. “한국 전쟁 정전협정이 판문점에서 체결된지 56년이 지난

오늘 미국은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한다. 1953년 7월 27일 종식된 치열한 3년간의 한국 전쟁 중 60만 명 이상의 미군과 연합군이 목숨을 잃었다. 많은 참전 용사들이 또한 부상당하고 포로가 되거나 실종되었다. 연합군 깃발 아래 참전 용사들은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워 이들은 끊임 없는 존경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매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생각한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관이 이들을 영구히 기리고자 워싱턴에 세워졌다. 노간주나무 텃밭과 화강암 사이를 행진하며, 해병대·해군·공군·해양경비대가 모두에게 수많은 미국인들이 극복한 위대한 도전을 묵묵히 상기시킨다.

미국과 한국간의 돈독한 파트너십은 또한 우리 미군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입증한다. 오늘 우리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용맹과, 그들이 가족과 함께 평화를 위해 치른 엄청난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한다. 따라서 이제 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 헌법 및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2009년 7월 27일을 '한국 전쟁 참전용사 휴전 기념일'로 선포한다. 나는 모든 미국인이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적절한 의식과 활동을 통해 이날을 기념하기를 바란다. 또한 연방정부 기관과 이해단체, 조직, 개인이 한국에서 희생당한 미국인들을 기리며 2009년 7월 27일 성조기를 조기로 게양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 2009년, 미국 독립 234번째 해, 7월 24번째 날, 여기에 내 손을 얹노라 버락 오바마.” 지난 7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해마다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휴전 기념일'로 지정한다는 선언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같은 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 법안(Korean War Veterans Recognition Act)'이 미 연방 상하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법안이 이같이 통과되기까지는 김예진 동문(영문 2001)의 노력이 실로 지대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들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6세 때 부모 손에 이끌려 미국에 온 김 동문이 태어나기도 몇 십년 전인 한국전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미 평화연구소의 특별 연구원으로 일할 때였다.

그리고 이같은 법안이 이같이 통과되기까지는 김예진 동문(영문 2001)의 노력이 실로 지대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들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6세 때 부모 손에 이끌려 미국에 온 김 동문이 태어나기도 몇 십년 전인 한국전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미 평화연구소의 특별 연구원으로 일할 때였다. 따라서 이제 나, 버락 오바마

모교 위한 모금 캠페인 Vision 2025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이사장 이장무·이하 발전기금)은 세계 초일류 대학 도약을 목표로 하는 'VISION 2025' 모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금 캠페인 'VISION 2025'는 이장무 총장 취임 후 세계 10위권의 초일류 대학 발전 비전 실현을 위해 2010년까지 발전기금 3천억원 모금을 목표로 추진해 온 모금 프로젝트다. 2025년 세계 10위권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예산 약 2조 9천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확보가 관건인데, 현재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연간 약 2조원이 모자란 상태다. 서울대의 연간 예산은 미국 하버드대의 3분의 1, 일본 동경대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세계 명문대학과 경쟁하기에 격차가 현격한 실정이다. <2면에 계속>

PRSRIT
NON-PROFIT
US POSTAGE PAID
PALATINE, IL
PERMIT NO P1 1068

모교생-예일대 여름 프로그램 성료

7~8월 중 재학생 20명 연수마치고 귀국

모교 대외 협력본부(OIA)가 주관하고 미주 동창회 모교발전기금위원회(위원장 오인석)가 후원하는 모교-예일대 협력 심머 프로그램 참가 재학생들이 6주간 연수를 마치고 최근 귀국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학연수인 ELI과정 12명

(손준우·문아람·권지연·강정호·김수영·이지하·정용훈·오정영·서주연·이승선·정유진·신준규), 계절학기 수업인 Session B에 8명(정한교·고유진·손태무·정철하·조경미·박지아·권성경·이준석)이었다. <2면에 계속>

특집
8.15

- “원폭은 희생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 ----- 3면
- “Recollections of August 1945 and Thereafter” ----- 4면
- U.S. Military Gov. & ... Separate Gov. In Korea 1945~48 ----- 5면

<1면에서 계속> 한국전 휴전기념일

“한국 역사자료를 정리하다가 한국전쟁이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어요. 이 전쟁은 아직도 미완의 전쟁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현재도 휴전 상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이면서 미국인 제가 이와 더불어 한국과 미국의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어요.”

“지난 해 처음 언 촛불행사에서 한국 전쟁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는 동포 젊은이들의 이야기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법안 통과로 올해는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고 김 동문은 감격해 하고 있다.

“한국 전쟁에 침묵이 아닌 마침표를 찍는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라는 김 동문은 미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과 조기 계약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안(Korean War Veterans Recognition Act)’ 은 지난 2001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 뉴욕 주 연방 상원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 별로 주목받지 못해 사장되다시피 했으나 지난 해 찰스 켈링 민주당 하원의원에 의해 재발의되면서 이처럼 통과됐다.

미국의 국기 게양은 새해 첫날(1월1일), 메모리얼 데이, 독립기념일을 비롯한 16일과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 기념일, 50개 각 주의 생일날 등 18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7월27일 조기계약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19일로 늘어나게 됐다.

이후 한국전쟁 관련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하던 중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 2001년 당시 뉴욕 주 연방상원의원 시절 발의했던 이 법안을 찾아냈다. 이에 김 동문은 법안의 주도적 지지단체 역할을 했던 ‘727(Remember 727.org)’ 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리고는 미정계에서 잊혀져 가는 한국전쟁을 이슈화하기 위해 뛰었다. 실제적으로 이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하원의원인 찰스 켈링 의원이 한국전 휴전기념일 7월 27일 성조기를 조기로 게양토록 하자는 내용의 감사 법안을 한국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 상정한 바 있다. 켈링 의원 역시 한국전 참전 용사 출신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회기 중 통과되지 못했다. 상하의원 중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에 김 동문은 연방 하원의원 435명중 이 법안 제안에 참여했던 6명을 제외한 의원 429명의 지지서명을 받기 위해 일일이 그들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참여 호소 편지도 보냈다. 켈링의원 역시 김 동문의 노력에 힘을 얻어 제 111기 회기가 시작된 올해 재상정해 이처럼 지난 7월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이에 김 동문은 26일 오후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앞에서 대규모 ‘정전협정 56주년 촛불집회’ 행사를 열기도 했다.

국에서 중고교를 졸업하고 외국인 한국으로 유학을 간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기도 하다.

김 동문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외교관이 되기 위해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의 휴전협정이 언젠가는 평화협정으로 바뀌어 휴전기념일이 아닌 평화의 날로 기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매년 한국전쟁 휴전기념일인 7월27일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는 성조기가 조기로 게양되게 된다.

김동문은 “Never doubt that a small group of thoughtful, committed citizens can change the world. Indeed, it is the only thing that ever has.” 라는 글귀를 인용해 이번 공적에 대한 소감을 대신하고 있다.

<1면에서 계속> Vision 2025

또한 국립대인 서울대의 정부 지원금은 연간 예산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초일류 글로벌 대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투자는 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모금을 통한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

이에 서울대는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를 향한 힘찬 도약’, ‘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 ‘미래를 위한 변화와 준비’ 라는 목표 아래 세계석학 초빙, 핵심인재 육성, 사회정책 기능강화, 학문 인프라 강화 등 필요한 사업들을 엄선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각계각층의 많은 인사들의 심시일반으로 목표한 3천억원의 80%에 가까운 모금을 달성한 발전기금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를 동문 집중 참여 기간으로 선포하고 동문들의 모금 참여를 강력히 호소해나갈 방침이다.

발전기금 남익현 상임이사(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최초로 지난 3년 동안 집중 모금 캠페인을 진행해 오면서 서울대만의 차별화된 모금 경쟁력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제는 목표했던 모금액을 채우고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이 남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남 이사는 이어 “이렇게 동문들의 정성으로 모인 기금은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재학생 후배를 세계적인 인재로 길러내고, 서울대를 2025년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대학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관계기사 6면에>



이번 호의 차례

3. 왼쪽은 희생 즐기기 위한 유일한 선택
4. Recollections of August 1945 and Thereafter
5. U.S. Military Gov. & ... Separate Gov. In Korea 1945~48
6. 모교 장기 발전 계획
7. 화제의 동문: 아시아나 항공 운영두 사장
8. 김승업 박사의 불로 장수학
9. 동문의 자랑스런 후배: 샘 윤

비전 2025 단계별 발전목표

| 세계50위권 | 세계30위권 | 세계10위권 |
|--------------------|--------------------|--------------------|
| 1단계 (2007~2010) | 2단계 (2010~2015) | 3단계 (2015~2025) |

- 1단계=국제화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경쟁력을 세계 최상급으로 격상
- 2단계=융합연구의 집중지원으로 세계 정상급 연구수준 확보
- 3단계=50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경쟁력을 확보하여 초일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

<1면에서 계속> 모교생, 예일대 여름연수마쳐

표I는 오전 어학강좌, 오후 특별강좌 및 행사에 참가한다. Session B는 예일대생 및 여

러 나라 학생들과 함께 학부수업을 수강한다. 과목은 미술사·경제·웹디자인·Writing Seminar·국제관계·Neuroscience·심리학 등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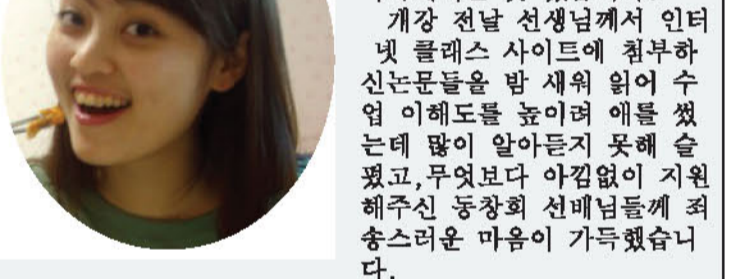
수업 외에 Talent show, Barbeque party, Broadway 뮤지컬·트립·야구경기·마담투르소 관람 등에도 참가한다.

모교는 여기서 얻은 학점을 모두 인정해주고 있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권성경양 (지리교육과 2학년)의 글을 간추린 것이다.

“이번 예일대 여름계절학기에 교환학생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가 첫 수업이었는데, 한국에서 들어본 미국인과 다른 억양과 빠른 속도의 강의, 학생들의 실재 없는 질문과 논쟁 & hellip;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 했습니다.

개강 전날 선생님께서 인터넷 클래스 사이트에 첨부하신 논문들을 밤 새워 읽어 수업 이해도를 높이려 애를 썼는데 많이 알아듣지 못해 쓸췌고, 무엇보다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동창회 선배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한 과목은 Television Situation Comedy로 시트콤에 대한 감상과 문화의 변화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강의는 다행히 이해하기 힘들지 않았으나 시트콤 특성상 개가 많은데 함께 보는 미국인들과 같은 타이밍에 웃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아이들이 왜 웃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박자 늦게 저 혼자 박장대소하기도 하고 & hellip;^^; 중간고사 점수에, 불가리아 출신 IR교수님께서 “영어는 장벽이 아닌 너의 삶의 motivation이다. 단어도 사전이 아닌 문맥 속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미국 아이들도 너와 같은 입장이다” 하셨고요. 너무나 값진 기회를 주신 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세계에서 온 뛰어난 아이들을 보며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늘 살면서 이번 여름방학의 경험을 기억하며 힘도 얻고, 무엇을 하든지 독하게, 지금보다 좀더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미주동창회의 선배님들처럼 저도 성공하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후배들에게 저도 이러한 기회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남은 여름도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10. AIDS 부문의 노벨상 때늦은 감
11. 과학 기술: 녹색기술의 총아 LED
12. 모국의 동문 동정
13. 동창회비 납부 진행
14. 미국 캠퍼스의 동문들:미네소타 대학 편
- 15-17. 지부회의 소식
18. 시상 미술전: 유형길 화백
- 19-29. 동문업소록
30. 미주 동창회 조직과 지부회의

서울대 미주 동창회 회보

발행인: 송순영(문)
주 필: 이윤모(농)
논설 위원
고병철(CH) 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경(CH) 남채홍(NY)
라철삼(LA) 백 순(DC) 오감남(BC)
오기창(CH) 목길원(CH) 이석규(NY)
이청광(LA) 임승래(SF) 한창섭(NY)
편집위원: 고병철(법) 이승자(사)
조대현(공) 윤효정(사)
편집장: 이기준

8.15 특집

히로시마 원폭 투하 B-29 '에놀라 게이'의 조종사들

“원폭은 희생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

‘에놀라 게이’ 12명의 팀원 중 생존자 단 2명 ‘모리스 켈슨’ 씨 당시 투하 상황 최근 밝혀



모리스 켈슨(왼쪽)이 지난 2004년 10월 ‘에놀라 게이’ 기장이었던 폴 티베츠(Paul Tibbets) 예비역 준장(당시 대령)과 만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모리스 켈슨이 22세 때 당시 모습이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폭은 도시 전체를 죽음의 세계로 바꿔놓았다. 무려 25만여 명이 사망하고 가옥은 10여만 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인류 최초로 투하된 원폭은 이처럼 가공할 피해를 주었지만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그만큼 일찍 해방되는 효과를 냈다. 당시 원폭을 투하한 B-29 에놀라 게이(Enola Gay) 조종사 중 생존자 모리스 켈슨(87)이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

“1945년 8월 6일 새벽 2시 서태평양 티니안 섬 기지에서 발진한 B-29 ‘에놀라 게이(Enola Gay)’가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 9600m 지점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요. 이 원폭은 지상 580m 부근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인구 30여만 명의 도시를 잿더미로 만든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투하된 원폭은 직경 71cm, 길이 3.05m에 무게 4t으로 우리는 ‘리틀 보이(Little Boy)’라는 애칭으로 불렀어요.”

이 원폭으로 34만2천여 명의 인구 중 14만여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방사능에 피폭당했다. 가옥은 6만여 채가 폐허로

변해버렸다. “티베츠 대령과 우리 대원들은 이른바 ‘히로시마 미션’을 위해 티니안 섬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막상 히로시마에서 투하하는 폭탄이 ‘우라늄 원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대원은 티베츠 대령과 나 둘 뿐이었어요. 나는 물리학을 전공해서 눈치채고 있었지요. 나머지 대원들은 그저 파괴력이 엄청난 수퍼 폭탄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시다. 원폭이 폭발하자 오렌지빛 섬광과 거대한 버섯구름과 엄청난 불덩이가 치솟으며 도시의 60%가 파괴됐고 중심지로부터 반경 1마일 내 생명체는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조종사가 ‘오, 하느님,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나니까?’라고 한 것도 핵무기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지요.”

‘에놀라 게이’는 B-29에 탑승했던 12명의 기장 폴 티베츠(Paul Tibbets) 대령의 어머니 이름에서 딴 이름이다. 이날 히로시마는 다소 구름 낀 날씨로 시민들이 출근을 서두르던 때였다. 이 원폭에도 일본이 항복하지 않자 트루먼 대통령은 “첫 번째 원자폭탄은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흘 뒤인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 ‘페트 맨(Fat Man)’을 떨어뜨렸다. 이 원폭으로 24만여 명의 인구

중 7만여 명이 사망했다. 두 도시의 희생자 중에는 강제 징용으로 끌려온 우리 동포도 3만여 명이나 희생됐다. 이같은 원폭의 가공할 위력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써 1945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은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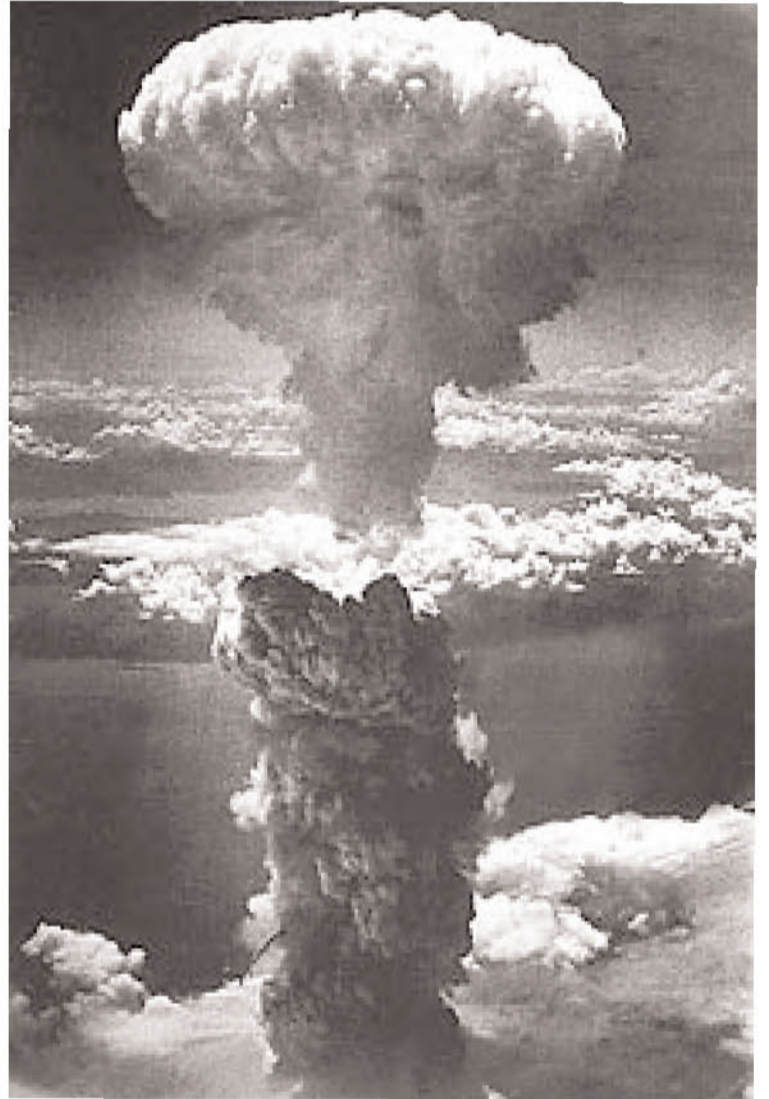
현재까지 원폭 피해로 숨진 사망자 수는 25만여 명에 달하고 생존자도 방사능화상, 기형출산, 암 등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 군국주의의 희생자들이다. “나는 원래 물리학을 전공하다가 2차대전이 터지자 19세 때 입대했어요. 그러다 6명과 함께 하버드와 MIT에서 전기 공학과 레이더 엔지니어링을 훈련받았지요. 원폭 투하에도 전기 장치와 레이더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히로시마 미션’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날 세곳의 목표가 정해져 기상 정찰기가 파견됐어요. 그 중 첫번째는 히로시마, 또 한 곳이 고쿠라, 그리고 세번째가 나가사키였어요. 그런데 기상 정찰기에 의해 고쿠라는 구름이 너무 짙게 깔려 적당치 않다는 리포트가 왔지요.” 그의 말대로라면 고쿠라가 빠진 것은 고쿠라 시민들에게는 역사에 길이 남을 천운이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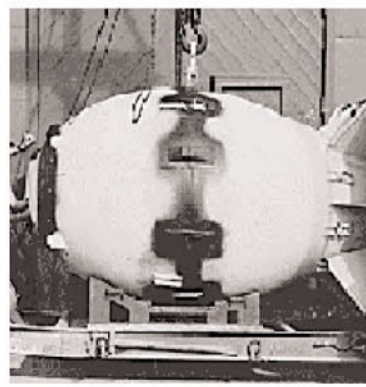
“보통의 B-29는 6천~7천 피트 상공을 비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 3만 피트 상공을 비행했어요. 나는 이 때 낙하산도 준비하지 않았지요. 3만피트 상공이라면 낙하산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폭격수인 Ferebee가 투하스위치를 눌렀고 약 43초 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기체가 튀어오르듯이 크게 흔들렸어요. 기장은 이 때서야 비로소 투하한 폭탄이 원폭임을 방송으로 알려주었어요.” 그는 “그 정도로 원폭에 의한 피해가 클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연합군이 일본 본토 상륙작전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원폭 투하는 오히려 일본인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한다.

연합군이 일본 본토에 진입하면 훨씬 더 큰 희생이 따랐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진 왼쪽이 ‘Little Boy’ 오른쪽이 ‘Fat Man’ 이다



《사진 상》 B-29 ‘에놀라 게이’가 히로시마 상공에서 우라늄 원폭 ‘Little Boy’를 투하한 뒤 폭발하는 모습이다. 《사진 중》 원폭의 폭발로 거대한 버섯구름이 치솟고 있다. 이 버섯구름은 지구 상공 2km 이상 피어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하》 원폭이 폭발한 뒤 히로시마의 모습이다.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로 변해 있다.



8.15 해방 특집

Recollection of August 1945 and Thereafter

Han-Kyo Kim
(김한교, 문47입)
University of Cincinnati 명예교수



Events permanently etched in the mind of a college freshman at SNU

Passage of a long time blurs and erases some of my memories of 1945 but certain events are permanently etched in mind and I can still recall them with amazing clarity even now. August 15, 1945, was a hot and sunny day in Seoul. I was a freshman at the college of economics (Keijo Keizai Senmon Gakko) in Seoul -- today's College of Commerce, SNU. I was at home when I heard the Japanese emperor announce on the radio his nation's surrender to the Allies.

It was a complete surprise to all of us in my family because we had expected Japan to declare war on the Soviet Union that had invaded North Korea and Manchuria several days earlier. I remember shouting, "Japan has surrendered!" to my mother and a couple of her friends in the courtyard of our house; these housewives instantly broke into a dance chanting aloud "mansei." As we celebrated our nation's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my family had other more immediate causes for rejoice: one of my elder brothers was to be married the next day--the first wedding in my family--while another brother could now safely tear up the induction notice that had ordered him to report to a Japanese army recruiting station within five days.

The outdoor wedding ceremony at the Confucian academy (성균관) went as planned...almost. Before it began, the groom took a brush pen and scratched out from the printed program pasted on an easel in the foreground an item which used to be obligatory for any public assembly, "Bow to the (Japanese) imperial palace." What a difference has one day made! Moreover, the entire ceremony was conducted in Korean which momentarily made me apprehensive because the use of Korean in a public assembly had been a taboo for so long. The traditional Korean wedding costumes for the groom and the bride seemed to underscore our freedom from the Japanese bondage.

About the days that followed, I have disjointed memories that include standing in a crowd gathered in the playground of Huimun Middle School (회문중학교) near the center of the city where excited young men with some sort of arm bands escorted a middle-aged man of dignified demeanor who addressed the crowd. I am not entirely certain who the speaker was but my best guess today is that Yo Wunhyong (여운형), the well-known leader of anti-Japanese movement, was the orator. I do not recall what he said but I do

of the station building trying to catch a glimpse of our "liberators" who, however, never showed up. We had no knowledge then of the last-minute US-Soviet agreement to set up separate occupation zones in Korea divided by the 38th parallel line.

When I went to my college a few days after my brother's wedding, the campus looked almost deserted. Japanese faculty and students (about one half of the student body) had disappeared overnight. I saw one solitary Japanese teacher who used to be in charge of student affairs. He was now a mere shadow of the authoritarian figure he once was. He was obsequious to us and offered some cold drinks. I felt

sources of information. We talked about the future of our school and the country in general terms. We were excited but nobody knew what was going on in the city and the country.

In subsequent days, some students from my college formed

and I had never studied the history of Korea as an academic subject. I felt even more unprepared in the class in economic theories. Only a few months earlier, I had been studying about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and the marginal utility

Complete shutdown of news media and words of mouth were the only sources of information

themselves into vigilante squads to prevent vandalism and keep order in the area adjacent to our campus. Dressed in school uniforms and armed with nothing but youthful enthusiasm, they even attempted to take over local police stations which resulted in a few casualties when the policemen fired their weapons.

Our college finally reopened, some weeks later. I sat in

theory with occasional mention of Nazi economists' writings. Now "Das Kapital" was the core subject and we had to scurry for Japanese translations of Marxist classics. These books had been banned by the Japanese and reading them for the first time was a heady experience and in some ways refreshing. (My exposure to the Marxist literature came in handy later when I debated -- and tried to rebut -- the "scientific" theory of Communism which a close friend of mine from the same middle school passionately defended; he later went over to the North during the Korean War.) Our instructor, a graduate of a Japanese imperial university, was inexperienced but he lectured with passion. (He later turned up in North Korea as an economics professor.)

In January 1946, I decided to change my major to political science and transferred, after a written examination, to the Preparatory College of the University of Seoul (경성대학예과). Completion of the two year Preparatory College had been and still was in early 1946 a requirement for entering the university. But the educational

system was in a flux and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was clearly in favor of moving toward the American style 6-6-4

system. When our class finished the Preparatory College in four-year colleg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ame into existence that year.

<Please turn to Page 7>

No more bow to Imperial Palace Free public speech in Korean



remember that he was eloquent. I for one was most excited to hear a public speech in Korean, and not in Japanese.

Another memorable event, or non-event, was my trip to the Seoul railway station to welcome the Allied troops. I believe I knew then that the Soviet forces were the only Allied forces that could have reached Seoul only a few days after "8-15."

There was a huge crowd milling around in the plaza in front

of the station building trying to catch a glimpse of our "liberators" who, however, never showed up. We had no knowledge then of the last-minute US-Soviet agreement to set up separate occupation zones in Korea divided by the 38th parallel line.

When I went to my college a few days after my brother's wedding, the campus looked almost deserted. Japanese faculty and students (about one half of the student body) had disappeared overnight. I saw one solitary Japanese teacher who used to be in charge of student affairs. He was now a mere shadow of the authoritarian figure he once was. He was obsequious to us and offered some cold drinks. I felt

Students formed vigilante squads to prevent vandalism and keep order in our college campus area

classes in economic theories, the Korean language and history, and foreign languages (English and German); the teachers were all Korean and appeared new in teaching profession. My last lesson in the Korean language had been more than ten years ago when I was in the second grade.

system. When our class finished the Preparatory College in four-year colleg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ame into existence that year.



Bonnie Bongwan Cho
(조봉완, 별 53집)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Governments In Korea, 1945~1948

The Setting

At noon on August 15, 1945, Koreans poured out into the streets waving long-hidden Korean flags and crying "Manse, manse, Taehan Min'guk Manse" (Long live Korea). Japan had surrendered to the Allies, and Korea was free and independent. In less than a month, however, the jubilant cries had changed into shouts of anger, frustration, and despair. Korea would not become free and independent immediately. Instead, two Allied power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ould occupy the country in two separate zones, south and north, with the 38th parallel as the dividing line.

Since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was a result of an Allied victory in World War II and not of Korean anti-Japanese resistance, Koreans had little say in the outcome of liberation. Japanese surrender had come when it was least expected and too suddenly for the Koreans to solidify their leadership against the Japanese and to show the world that they fought for their own freedom. This was especially true of Korean troops secretly training in parts of China, Manchuria, and Siberia.

Although there were numerous independence organizations and leaders, there was no one representative to legitimize Korea's struggle with the Japanese. The price of this "easily" gained freedom was high. In the power vacuum created by the Japanese departure, a fierce scramble for power ensued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In addition, Koreans had to endure occupation by new foreign powers. That was to last three years; Soviet troops pulled out of North Korea at the end of 1948, followed by U.S. forces at the end of June 1949. In the southern zone alone, the United States had established a military government.

As World War II neared its end, it became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emerge as a country of unprecedented power and influence in the world. In Asia, as

a member of the Allied powers and as the primary combatant in the Pacific arena, the United States was clearly the leader. Therefore, the settlement for post-World War II Asia naturally took a pro-American orientation. The United States long had been concerned about the postwar arrangement in Asia. According to E. Grant Meade, American interests in Korea had their origins in the Stimson Doctrine of 1932, which aimed to restore China's loss since 1895 and had placed an ex post facto lever into American treaty obligations under the first Korean-American treaty of 1882. If China could regain the territory and position illegally

U.S. Post-Korean war policy lacked vision & coordination

seized by Japan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so could other nations.

Even before Pearl Harbor, the United States committed to a free Korea. This principle was enunciated in the Cairo Declaration, with the now famous phrase that proclaimed,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independent." The wartime agreement in the Egyptian capital put the United States in a position of pre-eminence with respect to Korea. It also represented a departure from its previous quiescent policy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ut little planning took place between the Cairo meetings to the landing of American forces at Inchon twenty months later.

Korea was deemed to be neither of strategic importance nor a priority, and few concrete details were in place until after the troops had actually arrived in Korea. The U.S. policy in postwar Korea demonstrated a lack of vision, planning,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branches of the U.S. home government and with the U.S. personnel in Korea, as well as a paucity of consideration for the people of the land. Overall, the policy was comprised of reactive, incremental stopgap measures.

The Origin of Trusteeship

Engrossed with the occupation and reconstruction of Japan, the U.S. government realized that its

forces alone could not cover the entire East Asian region. It thus conceived an international overseeing device, a trusteeship, for Korea. The intention of its creator, President Franklin Delano Roosevelt, was for trusteeship to free up U.S. forces that would then concentrate on Japan. Trusteeship appeared to be a perfect solution to several problems. It would allow time needed for Koreans to prepare themselves for independence, for Americans to converge U.S. involvement and the maintenance of U.S. interest in Korea, and for U.S. authorities in Korea to create a mechanism that could sustain international cooperation.

Flawless as it might have seemed to the American president, it did not heed the Korean people's heightened anticipation and passion for their complete and immediate independence. The American president did not think the short delay in independence was a conflict with the Korean goal for self-determination. But after four decades under Japanese rule, Koreans were not willing to wait any longer, let alone tolerate a period of tutelage, an extreme humiliation for

people who prided themselves in having 5,000 years of history and high civilization.

The trusteeship in Korea was to be implemented in such a way as to assure American predominance in postwar Korean affairs. "... the main point was that no other power should have such a role in Korea that 'the proportionate strength of the U.S.' would be reduced to 'a point where effectiveness would be weakened.'" Only military occupation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would guarantee such a preponderant position for the United States in Korea, but the situation in mid-August 1945 did not facilitate this. Hence, the United States had to be satisfied with the occupation only of the southern half of the peninsula and had to allow Soviet forces to occupy the area north of the 38th parallel.

General Hodge

When the 25,000-strong 24th Corps of the United States Tenth Army led by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arrived at Inchon harbor on September 8, 1945, Soviet troops had already been in the northern zone for nearly a month. Americans also

Soviet ideology. General Hodge was warned by the Japanese authorities still occupying administrative positions in Korea that the KPR leaned toward Soviet ideology. The Japanese also alleged that the KPR was inciting nationalistic and communistic agitation toward immediate independence. Hodge's main concern was that the KPR favored positions that appeared contrary to American ideals. Therefore, instead of the professed American aim of helping Koreans establish a government desired by the majority of the people, Hodge fell back upon America's own national aim of warding off a situation that might become too advantageous for the Russi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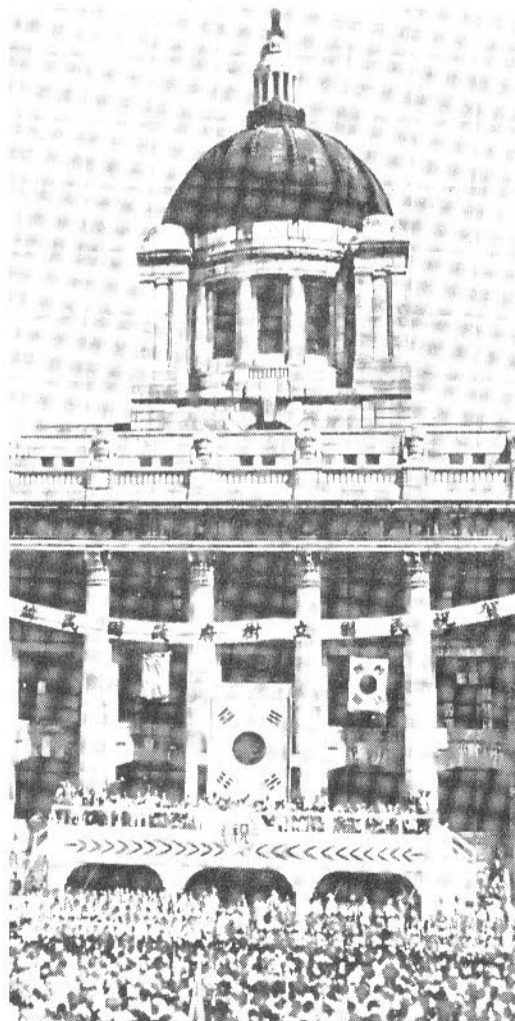
Even at the very end of thirty-five years of colonial rule, the Japanese did their best to undermine Korea. They transmitted their own fear of communism to the Americans and warned that Korean communists were taking advantage of a power vacuum, disrupting peace, and damaging properties. Americans only too readily accepted Japanese "advice," refusing to recognize the KPR and eventually outlawing it. Standard historiography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d long considered the Yo Un-

Yo Un-hyong's KPR was nationalist than communist

found in existence a de facto government, the Korean People's Republic (KPR), hurriedly established by Yo Un-hyong (a.k.a. Lyuh Woon-hyung) only two days prior to their arrival. Apparently the majority of Koreans supported the KPR at that time. But General Hodge, albeit an experienced soldier, was ignorant about Korea. He cared little that all Koreans wanted was rectification of past wrongs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or that they had little knowledg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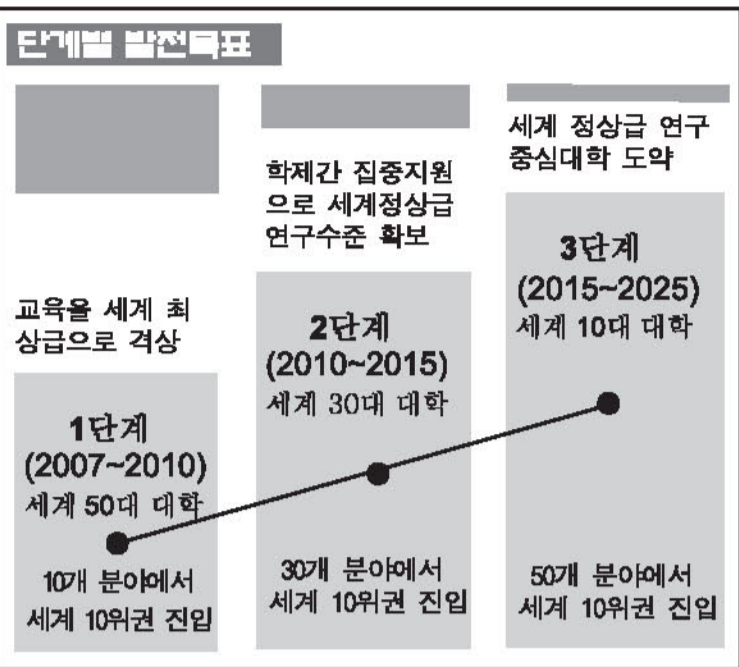
hyong-led KPR as a communist organization. But the more recent consensus agrees with the revisionist view that the KPR was more nationalist than communist, had considerable popular support, and advocated a social and economic revolution desired by the majority of Koreans.

General Hodge's action of not acknowledging the KPR was thought to be strictly in keeping with Washington's directives. This was perhaps one of the few times that Hodge agreed with and carried out the home government's orders because Korea had been designated as a "liberated" but "enemy" area. And an occupation commander could not and would not recognize a government in a potentially "hostile" place.



<Please turn to page 12>

모교 장기 발전 계획



“2015년 세계 10대 대학”

‘3단계 장기 발전계획’으로 목표 달성 ‘글로벌 유니버시티’ 중심축이 될 것

서울대가 글로벌 시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정상급 대학이 되기 위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단계별 발전 목표를 세워둔 이 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터 세계 30대 대학, 2015년부터는 세계 10대 대학으로 선다는 것. 이를 위해 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수행과제로 세계화된 21세기형 인재를 육성하고 학문적·지리적 경계를 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며 교육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세부 과정을 조목별로 특징으로 신는다.

1.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운영체계 개선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을 위해 자율적으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및 연구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를 위해 ▶세계 정상급 대학 도약을 위한 자율과 재정지원이 보장되는 법인화 모색 ▶장기 발전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대학발전 전략 추진기구 설치 ▶대학 자율 보장 입시제도 추구하고 복수 부총장 제도 도입 ▶학부(과) 기능강화를 통한 대학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2. 미래 사회의 인재 육성

미래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와 세계 학문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학자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기초학문 육성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기초 교육 강화 ▶학부(과) 평가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전공교육과 대학원 과정을 개발하며 ▶수월성과 다양성 제고의 학생선발 체계를 개발하고 자유 전공제 도입으로 복수·연합 전공 확대, 학·석·박사 연계제도 실시 ▶거주대학(Residential College) 개념을 도입해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3. 세계 최고수준의 교수진 확보

노벨상 수상자급 교수들 해외 석좌 겸임교수로 유치하고 신진 기예의 외국인 교수를 임용하는 한편 국내 교수진 세계적 학자 육성에 최선을 다한다.

세부 방안은 ▶세계 정상급의 교수 확보를 위한 상설 특별 채용제도 도입 ▶석좌교수 제도 활성화로 해외 공동연구 지원과 박사후 연구원 배정 등에 특별지원 ▶교수 정년보장 심사 및 박사학위 논문심사에 국제 심사위원제 도입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제도의 개선 ▶외국인 교수 및 석좌교수 증원 ▶업적 평가에 따른 보수 체계의 차등화 등이다.

4. 국제화 체계 강화

단순한 국제교류를 넘어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국제 캠퍼스를 조성하고 해외에 분교 및 분소 등을 설치해 명실상부하게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을 지향한다.

▶학생 국제 교류와 외국인 교원은 2010년 10%, 2015년 20%, 2025년 30~40% 이상 ▶외국인 교원은 2010년 100명, 2015년 300명, 2025년 900명 증원 ▶세계 주요 대학과 도시에 서울대인을 위한 기숙사 및 공동 교육 연구 지원 시설(2010년까지 3~4곳, 2025년까지 20여곳) 설치

5. 중점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수립성 확보

세계 10위권 진입 학문분야가 2010년까지 10개, 2015년 30개, 2025년까지 50개가 되도록 중점분야를 선정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집중 지원분야 선정과 교수 도전과제 지원 ▶국제수준의 연구환경 조성 ▶연구업적 평가제도 개선 ▶대학간 공동 복수 학위제도를 활성화한다.

6. 첨단 융합분야 육성

학문의 융합이 향후 한국의 산업 발전은 물론 인류의 지속가능성까지 담보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 아래 첨단 융합 분야의 연구와 학사·대학원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세부 방안은 ▶세계수준의 융합분야 연구소 설립 ▶학제간 대학원 협동과정의 신속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융합분야 참여 교수·연구원의 강의 연구 부담 및 성과를 인사 및 평가 시스템에 반영 ▶국책 연구소 및 세계적 연구소와 연계 강화 등.

7. 한국화 진흥 및 세계화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등 우

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한국학 영역을 바탕으로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 시킴과 동시에 세계문화 발전에 공헌한다. 세부 계획은 ▶규장각·한국학 연구원을 국제적 한국학 연구 중심기관으로 육성 ▶해외 한국학자 연구생 초빙 프로그램 활성화 ▶국내 한국학 연구 인력의 국제교류 확대 ▶전통 문화 계승인력 양성이다.

8. 글로벌 캠퍼스 조성

국제화 촉진을 위한 영어 캠퍼스, 전인 교육을 위한 거주 대학(Residential College), 신생 또는 융합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 공간, 국제 교육원 등 새로운 교육과 연구 수요를 충족시킬 글로벌 캠퍼스를 조성한다.

세부 계획은 ▶영어 캠퍼스(1~2학년생의 일정기간 영어로 교육) ▶거주대학(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교수와 함께 생활하면서 동·서양의 고전·사상·기초학문을 집중적으로 교육) ▶국제 교육원(외국인 학생·교원을 위한 기본교육·생활지원·행정서비스) ▶첨단 및 융합 분야 연구를 위한 대규모 연구공원 조성 등이다.

9. 장학·복지 제도

장학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확충하고 각종 복지 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세부 시행은 ▶맞춤형 장학 복지제도(성적 우수 장학금과 수요근거 장학금으로 양분) ▶학생 기숙사 확충 ▶외국인 주거지원(국제관 건립, 외국인 교수에 아파트 등 제공) ▶학생과 교직원 위한 보육시설 확대 ▶성과에 따른 보상 등 교직원 급여제 정비 등이다.

10. 대학 재정의 획기적 확충

연구비·기부금/모금 등을 확충하고 사업 수익을 증대 시킴으로써 그에 상응한 정부 지원금과 수익자 부담금의 확대를 도모하는 등 대학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연구비 수주, 모금 사업 수익 확대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 및 증대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학자구 노력에 비례한 정부 지원금 확대에 주력한다.

11. 교육·연구 및 윤리 강화

국제 기준에 적합한 윤리 규정을 확립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교육, 준수하도록 해서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교수 윤리 지침을 준수하고 ▶연구 윤리 교육을 체계화하며 ▶연구 윤리 심의를 강화한다.

12. 사회 속의 대학 구현

대학인들에게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연구 결과를 사회에 환원 시킴은 물론 사회에 대두되는 새로운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이로써 사회와 함께 하는 새로운 대학상을 정립한다.

이를 위해 ▶교육발전, 사회문제에 대한 학문적 해결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미래연구소 설립 ▶지식 기반사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평생 교육체제를 구축(졸업생 평생지원 시스템과 일반인을 위한 Extension Program 운영) ▶열린 캠퍼스 활동 ▶리더십 센터 설립 및 봉사 학습을 강화한다.

화제의 동문

항공계 노벨 상 받은 아시아나 항공 운영두 사장

아시아나 항공 운영두(기상학과 71~78)사장은 지난 상반기에 시상식 참석이 주요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상을 받았다.

2월 국내 항공사 최초로 미국 항공 전문지 ATW로부터 '올해의 항공사'에 선정된 데 이어 국내에서 '고객만족경영 대상', '노사협력부문 대상', '서비스혁신 대상' 등 기업부문 각종 상을 휩쓸었다.

이 가운데 '올해의 항공사(Airline of the Year)' 상은 '항공업계의 노벨상'이라 불릴 만큼 값진 상이다. 1974년 제정된 이래 아시아 권에서 이 상을 받은 업체는 싱가포르 항공·ANA·JAL·캐세이 패시픽 항공 등 4개사에 불과하다. 운사장은 "아시아나 항공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항공사 반열에 올랐음을 인정받게 돼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업체는 전 세계에 5개사에 불과하다. 2006년 5월부터 7천만 달러를 들여 기내 환경을 업그레이드했다. 비디오·오디오 시스템은 물론 장시간 비행에도 쾌적함을 유지하는 좌석을 만들고 보습 마스크 서비스 등을 시행했다.

재무 분야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비상경영실행위원회를 설치, 상시 위기경영 체제에 돌입해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도 불구하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시아나 항공은 국내 2위 항공사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후발주자로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노선의 규제가 많았고 마일리지 제도가 약점이었다.

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만든 '마일리지 클럽 본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마일리지로 렌터카·리조트·택배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의 아시아나항공은 각 사업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모든 아시아나인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운 사장은 말한다.

"우리 회사의 모토는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속 뜻은 저마다 주어진 자기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모두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긍정적인 사고로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의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운 사장의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긍정적 마인드가 큰 힘



"ATW가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안전 운항 경력으로, 아시아나 항공은 동양권 항공사 중 정시운항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시운항률은 안전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요. 지난해부터는 안전운항을 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선진국 항공사 못지 않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명실 상부한 세계 최고 항공사 인정 받아”

기상학과 출신 CEO

최근 오픈스 카이가 속속 도입되면서 아시아나 항공에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운 사장은 "아시아나 항공은 한·중·일 골든 트라이 앵글 노선에 강점이 있는데, 이 노선을 더욱 강화해 3국을 당일 비즈니스 스케줄로 엮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일본 노선을 더 확충하고 항공기 3대 도입과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공항에 새로운 격납고 건립을 계획하

이 됐다. 노조를 회사 발전의 동반자라 인정하고 경영 설명회 등을 개최해 몇몇 임원 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수여하는 노사협력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운사장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노조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신뢰관계

를 바탕으로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층 더 성숙한 노사관계 전통을 구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500년 영속 기업으로서 새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힘찬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다. 운 사장은 '고객만족 경영을 통한 세계 선도 항공사'를 경영비전으로 제시해 경영활동의 최종 목표를 '고객만족'에 두고 있다.

"고객만족은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경영 목표 그 자체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서비스는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실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운영두 사장은 기상학을 전공한 후 금호실업에 입사해 1987년부터 2005년까지는 금호타이어의 해외파트 임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후 관리본부장(부사장)으로 아시아나 항공에 들어와 지난해 12월 사장 자리에 올랐다.

북미과장, 미국법인 부장, 구주본부장·상무 등으로 해외에서 생활이 길었던 그가 아시아나 항공 발령 4년만에 사장 자리에 올랐다.

< From Page 4, Kim, Relections >

There were prolonged and loud protests against the plan to cre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s rallies were held and students boycotted the classes. Not all students took active part in these protests but a small number of mostly leftist students pushed their demands by carefully manipulating student meetings.

I attended one such meeting on the campus one day and felt outmaneuvered and intimidated by a band of young men who had been placed in strategic locations throughout the room and shouted in unison some catchy slogans. I could recognize only a few of these agitators as fellow students; they had little difficulty in steam-rolling their agenda. It is true, nevertheless, that some students in our class and those already in the three-year university track felt that the proposed national university would lower the academic standards and compromise the public image of the old University of Seoul. At least they argued in that vein. I suspected then and

I still do now that the anti-National University (국대안 반대) sentiment was in part an attempt to preserve the elite status of the old university which until then had been

Campus disrupted by protests against a separate government in South Korea and the plan to cre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신탁통치 반대. 국대안 반대 데모로 혼란

the only comprehensive university in the country. That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itiated the change provided additional ammunition to the anti-SNU agitation. When an American army captain by the name of Anderson was appointed the first presid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there was silent snickering among the opponents of the SNU who asserted that Anderson did not even have proper academic credentials such as a doctorate.

School campuses in the post-liberation

were microcosms of the larger society that was suddenly cast adrift in the heady water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The anti-Trusteeship (반탁) movement

and the opposition to "a separate government in South Korea (남한 단독정부)" were probably two of the most disruptive off-campus issues that Korean students faced in the three years following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Students were mobilized and employed as extensions of political parties, both left and right. Some students took initiatives in seeking such linkage with politicians.

On the other hand, some other students chose to stay out of political involvement,

even on campus issues, and they studied, off campus and by themselves, often for state examinations for legal career. Schools were no longer the pivotal centers of student life. Many students took various off-campus jobs partly out of economic necessity but also in order to simply occupy themselves with something worthwhile to do. Prolonged and frequent school closings due to the anti-SNU turmoil justified and enabled me to work full-time as a translator at the US army headquarters in Bando Hotel. I, nevertheless, kept my student status and registered as a freshman in the College of Arts and Science, SNU, in 1947. Many students including me juggled their daily schedules to attend classes and take examinations while holding down outside jobs. The balancing act kept me busy even as SNU struggled to survive its turbulent first year. Such epochal events as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48) and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1950) were yet to come.

건강과 복지

김승업 박사의

볼로 장수의 과학

노화와 뇌 신경 세포의 사멸... 두뇌기능감퇴



김승업 (의대 60년 졸업)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Neurology, 명예교수

대뇌피질과 기억

6월 초 새로 설립된 아시아 신경병리학회가 일본 동경에서 열려 한국 대표로 다녀 왔다. 일본 나가시마 교수가 회장, 그리고 내가 부회장에 선출됐다. 이어 한국의 인천 가천의대 재생의학연구소에 가서 2주 가량 연구 프로젝트 지도를 하고 땀 주머니로 돌아왔다. 알츠하이머병-치매 동물 모델의 줄기세포 뇌이식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했다. 임상실험에 들어가려면년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최근 잊어먹는 일이 많아 걱정이다. 젊은 나이에는 없던 젓가락이 심해 낮과 밤이 역전돼 일 주일은 갈듯 하다.

브랜디스 대학 심리학 연구실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미국 서부시간으로 기른 쥐를 동부시간으로 바꾸고, 반대로 동부시간으로 자란 쥐를 서부시간으로 바꾸었더니 서부-동부 쥐들이 동부-서부 쥐들보다 3개월 일찍 죽었다고 한다. 바이오리듬 조절 실험을 잘못 돌리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오래 전 읽은 기사라 상세한 내용은 달라도 결론은 맞는다). 나처럼 한국에서 북미로 자주 여행하면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주 여행(한국-미국여행)하는 분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다.

블로장수의 과학을 기초가 되는 뇌구조부터 시작한다. 대뇌피질(大脳皮質)은 사람 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억이나 사고, 행동을 지배하고 조절한다. 대뇌피질은 크게는 위에 위치한 전두엽(前頭葉), 귀 안쪽의 측두엽(側頭葉), 머리 꼭대기의 두정엽(頭頂葉), 그리고 머리 뒷부분의 후두엽(後頭葉)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뇌는 이러한 해부학적 구분 외에 생리학적 역할에 따라 기억 영역·시각영역 등 특수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기능국(機能局在)라 한다. 뇌의 한 부분이 외상이나 출혈 등으로 상처를 받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뇌에서 몸의 각 부분으로 연결돼 있는 신경섬유는 중간 부분에 X자형으로 교차

왜 있다. 뇌 우반구에서 나오는 신경섬유는 좌반신(왼쪽 몸)을 지배하고 뇌 우반구에서 출혈이 있으면 좌반신에 마비가 와 왼쪽 몸의 지각이나 운동기능이 없어진다. 또한 뇌 좌반구에 출혈이 있으면 우반신(오른쪽 몸)에 운동 마비가 오고 말을 못하게 된다. 그러나 뇌에는 재생기능이나 대상 기능이 있어 이러한 장애는 물리치료-재활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

고등신경 기능의 기본인 기억은 대뇌 피질의 연합 영역이라 불리는 넓은 영역에 축적된다. 물건의 모양이나 크기를 기억하는 것은 귀 안쪽에 위치한 측두엽에 축적된다. 생각하는 사고기능은 측적된 여러 기억을 서로 연관시켜 종합하는 기능이며, 뇌에서 크게 발달된 눈 위의 전두엽에서 이루어진다.

대뇌피질은 여러 기능을 연합하는 곳으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내는 기억간의 연결을 말한다.

대뇌피질의 안쪽 깊은 곳에 해마(海馬 hippocampus)라 불리는 부분이 있다. 이는 대뇌피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기억을 강화시키는 기능이 나 단기 기억을 종합 지배하는 부분이다.

노화와 뇌 세포 감소

노화의 특징은 신체를 구성하는 체세포 수가 감소하고 세포 기능 자체도 저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호르몬을 생산하는 내분비 계통이나 외계와 관계를 조절하는 면역계의 기능도 저하된다.

개체의 죽음은 심장-신장-간-혈관-뇌 등의 각종 장기의 기능 저하에 의해 일어나고 그 가운데 가장 짧은 수명을 가진 장기의 기능 저하와 사멸에 의해 그 개체의 죽음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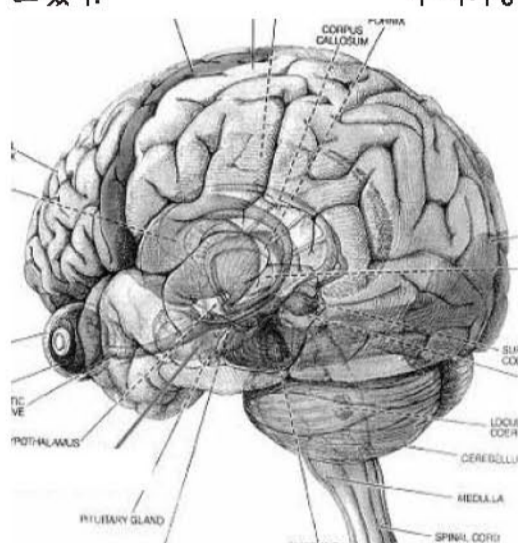
세균 같은 단세포 생물은 좋은 환경 아래서는 계속 세포 분열을 하지만 나쁜 환경에서는 죽어버린다.

이 같이 단세포 생물에서는 생(生)과 사(死) 두 가지 조건만 존재하고 다세포 생물에서 보듯 노화라는 현상이 없다.

개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하나의 통일된 증식이나 대사를 수행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세포가 제멋대로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조절 기능이 갖추어져 있다.

이 조절 기능이 깨지면 세포는 무한히 증식하고 개체의 통제가

완전히 깨진다. 이것이 암이다. 따라서 노화의 시스템은 암 발병 방지 시스템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상처 입은 세포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노화된 조직이나 장기에서는 병든 세포나 상처입은 세포를 고쳐서 보상하는 기능이 크게 저하돼 있다. 이렇게 다세포 생물에서 생존기구에 문제가 있

어 병이나 파킨슨병 등의 만성 신경변성 질환에서는 아포토시스, 급성으로 일어나는 뇌졸중이나 뇌외상에서는 네크로시스에 의한 신경세포사가 주체가 된다.

뇌의 노화에서는 아포토시스가 대단히 중요하다. 신경세포의 세포 대사가 급격히 저하되면 세포막의 기능이 상실되고 세포막이 터져 세포질이 밖으로 새나와 세포 붕괴가 일어난다. 이것이 네크로시스(세포괴사)다. 최근에 세포 거죽을 떼어 네크로시스 외에도 아포토시스(자멸사)라는

다른 양식의 세포사가 있음을 알게 됐다. 아포토시스는 세포의 내인성 메카니즘에 의해 세포가 가진 세포사 시스템이 가동돼 일어나는 세포의 죽음이다.

아포토시스는 알츠하이머·파킨슨병 등의 신경변성 질환에

연구에 따르면 30세 이후는 하루 10만개의 신경세포가 죽어 간다고 보고되고 있다.

신경세포가 이렇게 대량으로 죽고 있어 걱정하게 되는데, 신경세포 수가 감소하더라도 나머지 신경세포가 충분하게 죽은 신경세포의 역할을 담당하고 신경세포 보충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어 어느 정도 보상된다.

그러나 80~90세의 나이에는 그 보상 기능이 저하돼 문제가 생긴다.

노년에 기억기능과 인지기능의 저하가 오는 것은 신경세포수의 절대적 감소에도 원인이 있다.

노년이 되면서 신경세포 안에 찌꺼기처럼 침전물인 리포푸신(lipofuchsin)이 증가하게 된다. 리포푸신은 여러 화학물질의 복합체인데 이것이 증가하더라도 신경세포의 생존에는 영향을 없다.

리포푸신은 세포 활동의 결과 생기는 노폐물이므로 리포푸신이 많이 생긴 신경세포는 그만큼 활동이 컸다고 할 것이다.

노년 특히 치매노인의 뇌에서는 노인반(senile plaque)라는 침착물이 대량 검출되는데 이것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중심으로 모인 변성 신경세포 들기다.

노인반은 알츠하이머병 환자 뇌에 특이적인 구조나 최근에는 정상적인 노인 뇌에서도 볼 수 있다.

노인반은 정상노인 뇌 해마에 서만 볼 수 있는데 비해 알츠하이머병 환자 뇌에서는 뇌 전체에서 나타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신경 변성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이 모두 50세 이후 일어나는 신경질환임으로 뇌 노화와 관련이 확실하다.

뇌 신경세포 질환에서 볼 수 있는 신경세포내 비정상구조로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신경원 섬유변화, 파킨슨병에서의 루이 소체(Lewy body) 등이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신경세포 변화는 정상 노인에서도 가끔 볼 수 있으므로 뇌의 노화와 관계가 있다고 해석된다.

이들 신경세포의 비정상 구조물은 주로 신경세포와 그 들기의 골격 단백질의 이상에서 만들어진다.

이들 신경세포의 골격 단백질은 신경세포간 정보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상 골격 단백질이 축적되면 뇌에서 정보 전달이 순조롭지 못하고 늦어져 노년에 지적기능 혹은 운동기능에 장애가 일어난다.

#

알츠하이머·파킨슨병은 뇌 세포의 자멸사로 뇌졸중·뇌외상에서는 신경세포 괴사가 주체

을 때 노화라 한다. 뇌의 노화가 다른 장기에서의 노화와 다른 이유는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가 다른 체세포와 달라 분열해서 증식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즉 신경세포가 상처를 입거나 죽게 되면 재생하는 능력이 없다. 세포에는 세포 수명을 결정하는 테로미어라는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 그 길이가 세포 수명을 결정한다.

따라서 어린아이 체세포의 테로미어는 노인 체세포의 테로미어에 비해 길고 세포가 증식할 때마다 단축된다.

그러나 신경세포의 테로미어는 젊은이나 노인이나 알츠하이머병-치매 환자나 길이가 같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체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테로미어는 뇌 신경세포의 생사나 노화와 관계가 없다.

신경세포의 죽음에는 급성사의 경우 뇌 영양을 조절하는 혈관의 장애에 의한 것이 많고 만성사의 경우 활성산소나 신경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너지 공장) 기능저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포토시스(apoptosis 자멸사)와 네크로시스(necrosis 괴사)의 두 가지가 있어 알츠하이

머의 신경세포사나 노화에 따른 신경세포사에서 특히 중요하다. 아포토시스를 시작하는, 혹은 억제하는 여러 분자 제어 시스템이 밝혀짐에 따라 신경 변성 질환이나 노화의 진행을 억제하고 그 과정을 늦추어 지연시키는 신약 개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신경세포 수 감소와 인지·기억기능 장애

사람의 뇌 무게는 나이가 들면서 감소한다.

그러나 90세 간의 무게가 30세 간의 50%인데 비해 뇌 무게는 30세 뇌 무게의 80%이므로 연령에 따른 뇌의 감소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겠다.

이러한 노년에 일어나는 뇌 무게 감소는 신경 세포의 사멸에 의해 일어나는데 그 감소는 대뇌피질·해마·소뇌피질·중뇌의 후질이나 정반핵 등에서 특히 명백하다.

고등신경 기능을 지배하는 대뇌피질과 해마, 운동계를 조절하는 소뇌나 후질에서 신경세포사가 노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노년에 따라 지적기능과 운동기능이 먼저 장애를 받는 것을 뜻한다.



"My Family and my faith are the foundation that my life rests upon" 샘 윤의 지론이다.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샘 윤, 아들 Nathan, 아내 Tina, 딸 Naomi.

“다음 보스턴 시장은 키 크고 마른 아시안 아메리칸일 것”

했다. 윤원길 동문은 필라델피아 Lebanon에서 산부인과 클리닉을 개업해 운영해왔다.

고교시절 학생회장을 맡기도 했던 샘 윤은 명문 프린스턴대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그러나 뜻한 바 있어 교사 자격증을 따 일부러 뉴저지주 트렌튼(Trenton)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후 다시 학업을 갈망한 그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을 전공하며 주택 개발(communit housing development)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한 편으로는 커뮤니티 재개발 및 저소득층 주택 '어포터블 하우스(Affordable Housing)'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ACCC(Asian Community Development Corp.)의 디렉터로 일했다.

이 과정에서 유명 정치인들과 자주 접촉중 그의 잠재력을 알게 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그의 출마를 권유해 시 의원에 출마하게 된 것이다.

윤원길 동문은 샘윤에 대해 처음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의학도가 되기를 바랐다고 했다.

그러나 샘 윤은 자신을 위한 것



샘 윤의 부친 윤원길 동문과 모친 윤(권)만감씨가 샘윤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을 바라고 있다.<사진 자료 제공=보스턴 코리아>

저지만 나의 삶이 기독교적 신앙에 따라 항상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나는 늘 '대중을 섬기는 사람(public servants)'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샘윤은 정치인이 된 또 하나의 계기가 교육이었다고 밝혔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

피드백을 받은 한편 시정 예산 위원회에도 초대했다.

또한 노년층을 위한 재산세 면제, 그리고 혁신적인 치안 대책인 '안전을 위해 5센트 투자하기(Nickel for Public Safety)'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캠페인은 10달러어치 구매할 때마다 5센트의 세금을 매대 공중 안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총기 사고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다.

가족과 부모에 대한 그의 애정 또한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와 형제들을 위해 당선들의 희생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을 항상 기억하고 존경하며 살아간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원길 동문은 "어려서부터 상현이에게 리더십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남을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두 차례의 선거를 지켜보면 상현이가 해야 할 정치적인 일들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 사실 우리 동포 2세대들 중에도 인제가 많이 있지만 타민족에 비하면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다 인종 사회에서 소수민족이 권익을 제대로 누리려면 정계에 많이 진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우리 동포들 중에는 상현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분들이 많아 아주 반갑게 느끼고 있다."며 동포사회에 감사하고 있다.

샘 윤을 후원하기 위해 '뉴욕·뉴저지 한인 후원의 밤'이 지난 달 뉴저지 해켄색에서 성대하게 열린 바 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중에도 미주 전 동포들 차원의 후원이 기대되고 있다.

←샘 윤은 소수민족 뿐만 아니라 주류사회에서도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다. 따라서 보스턴 시내 어느 곳에서나 백인들이 그의 선거운동 지원 봉사자로 적극 나서고 있다.

동창회보가 연재중인 '동문의 자랑스런 후예들' 기획 시리즈 두번째로 '샘 윤'을 소개합니다.

샘 윤은 현재 보스턴 시 광역 의원으로 올 11월 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제인 김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과 준 최 뉴저지주 에디슨 시 시장 등과 함께 미국 내에서 차세대 아시안을 대표할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동문 제위들에게서는 이 시리즈를 위한 동문 후예들을 적극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어 결국에는 대표의장 자리까지 차지했다.

게다가 2년 후에는 최다 득표율로 다시 재선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올해 샘 윤은 또 다른 역사 창조에 도전하고 있다. 11월로 예정된 시장 선거에 입후보, 본격 선거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지 주류사회 인사들 사이에서는 "샘 윤이 대체 누구야?"에서 "샘윤은 보스턴의 오바마!"로 불리기 시작한 지 오래다.

이에 화답하듯 그도 역시 "다음

“나는 나와 형제들을 위해 희생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존경하며 살아간다”

“샘 윤(Sam Yoon)이 대체 누구야?”

지난 2005년 초 샘 윤(39·윤상현)이 보스턴 광역시 의원(Boston City Council At-Large)으로 처음 출마했을 때 주류사회 현지인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그 해 11월 9일 샘 윤은 '절대 열세'라는 예상을 뒤엎고 아시안으로서 최초로 보스턴 시 의원에 당선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360년 전통을 자랑하는 보스턴의 역사를 새로 쓰게 한 것이다.

당시 정치관계 전문가들은 그가 도저히 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경쟁 상대 중에는 국무장관 아들에, 전 시장의 자녀가 들이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상대보다 훨씬 적은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보스턴 시민들은 그의 열정에 매료됐고 결국 그의 손을

54대 보스턴 시장은 샘 윤이라 불리는 키 크고 마른 아시안 아메리칸일 것"이라고 힘주어 자신하고 있다.

또한 "우리 보스턴 시는 변화의 준비가 돼 있다. 나는 앞으로 이같은 메시지로 보스턴 시민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샘 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윤원길(의대 65년 졸) 동문의 2남 중 장남이다.

생후 10개월이던 1970년 부모를 따라 펜실베이니아주로 이주해 성장

보다는 남을 위해 일하는 데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07년 보스턴의 서울대 동창회 모임 중 '왜 정치인이 됐는가'라는 타이틀의 기조연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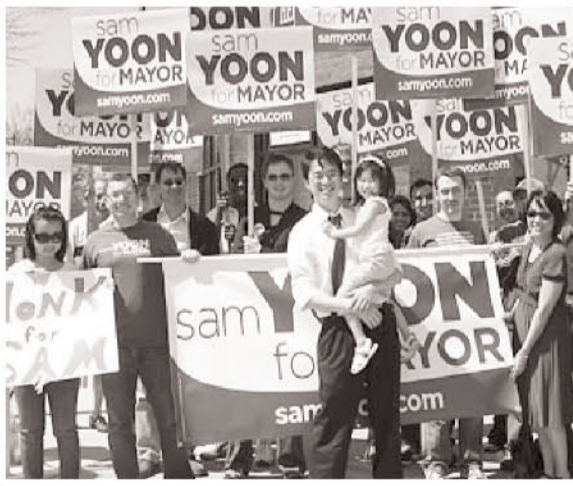
여기에서 그는 "비영리 단체 ACCC(Asian Community Development Corp.)의 디렉터로 일하던 중 정치인들이 사회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부터"라고 했다.

그는 "정치인이라면 모두 '거짓말쟁이'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던

던 그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 우범도시 트렌튼(Trenton, NJ)에서 교편생활을 했다. 그곳에서 그는 '왜 아이들이 이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고 다른 도시와 교육기회가 너무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시의원이 되자마자 시 청사를 선거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만드는 일부터 착수했다.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예산책정과 집행 내용을 설명하고



특별기고

2008년도 노벨과학상 소감



김일훈(외대 51)

전 세계에서 학자에게 주어지는 상 중 가장 권위있는 상이 바로 '노벨상'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과학 학술부문에 이 상을 받은 학자가 없어 유감이 다. 가까운 일본은 수상자가 이미 13명이다. 해마다 10월이면 발표되는 '노벨상' 수상자가 올 때는 나와주었으면, 하는 것은 국민적 염원일 것이다.

일본인 노벨상 4개는 미국에서 받아

아시아인으로 과학 학술부문 노벨상 수상자는 중국만도 이피 5명(대만 포함)이나 되고 있다. 인도 역시 3명이고 파키스탄도 수상자를 배출했다.

다만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후진국 출신의 우수한 과학자들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서 연구해 노벨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어쨌거나 노벨상 수상은 역시 큰 명예임에 틀림없다.

<참조-아시아인 학술부문 노벨상 수상자(팔호 안은 수상시 활동국, 일본인 제외)>▶1930 C.V.Raman 물리 인도(인도) ▶1957 李政道 물리 중국(미국) ▶楊振寧 물리 중국(미국) ▶1968 H.G.Khorana 의학 인도(미국) ▶1976 丁肇中 물리 중국(미국) ▶1979 Abdus Salam 물리 파키스탄(영국) ▶1983 S.Chandra 물리 인도(미국) ▶1986 李遠哲 화학 대만(미국) ▶1997 Daniel C. Tsui 물리 중국(미국) ▶1998 Steven Chu 중국계 미국인(미국) >

1998년도 물리학상 수상자인 중국계 미국인 Steve Chu는 그의 노벨상 덕분에, 인기위주의 인사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오바마에 의해 장관직(에너지)에 등용되어 있다.

과학 선진국 일본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 13명을 배출했는데 그중 4명은 교국을 떠나 미국서 연구생활한 결과 수상자가 되었고, 특히 2008년도 수상자 4명중 2명이 그러하다.

<참조-일본의 학술부문 노벨

“에이즈 부문 노벨상은 때늦은 감”

학술 부문 한국인 한 명도 없어 국민적 염원 매우 커

상 수상자들(팔호 안은 수상시 활동국) ▶1949 湯川秀樹 물리(일본) ▶1965 朝永振一郎 물리(일본) ▶1973 ▶1981 江崎玲於奈 물리(미국) ▶福井謙一 화학(일본) ▶1987 利根川進 의학(미국) ▶2000 白川英樹 화학(일본) ▶2001 野依良治 화학(일본) ▶2002 小柴昌俊 물리(일본) ▶田中耕一 화학(일본) ▶2008 小林誠 물리(일본) ▶益川敏英 물리(일본) ▶南部陽一郎 물리(미국) ▶下村脩 화학(미국) >

미국서 수상한 일본인 4명중 에사키(江崎 1973년도)와 난부(南部 2008년도)는 동경대학 출신이고 도네가와(利根川 1987년도)는 교토(京都)대학, 그리고 시모무라(下村 2008년도)는 나가사키(長崎)대학 출신이다.

이처럼 이들 일본 태생 4명은 일본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 얼마 동안 연구생활 하다가 미국에 가서 연구활동 끝에 노벨상 수상자가 된 일본 1세대이다. 여기에 대해 “일본은 수상이 가능한 우수한 과학자를 냉대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탈출한다”는 일부 일본학계의 비평론도 있다.

일찍이 독일 나치스에 쫓겨난 유대인 과학자가 미국에 모여들었듯 일본에서 쫓겨난(냉대 받은) 일본 과학자가 미국에 모여든다고 했으며, 과학입국을 부르짖는 일본의 창피라는 말이다.

그러나 일반 여론은 “일본인은 어디 가나 일본인이며, 더구나 미국은 다인종 국가인 지라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그곳 기회의 나라를 심분 이용했을 따름이다”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사실이지 어느 나라에서나 외국인 1세들의 정신은 자기조국과 밀착되어 있음을 알린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심포니 지휘자인 일본인 1세 오자와(小沢)는 그의 글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동양 얼굴이고, 죽을 때까지 맘을 좋아할 것이다”고 적었다.

이 글을 쓰는 나도 40년간 미국에서 영어로 밥벌이 해왔고 손자들 7명 모두가 반-노랑머리지만, 나 자신 '한국인'이 아니라 느끼본 적이 없음을 고백하는 바이다.

임상을 보다 더 중요시 하는 의학상

2008년도 노벨 의학-생리학상(약칭 '의학상')은 1983년 Pasteur연구소에서 에이즈 병원체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를 발견한 프랑수아(2명)와, 1970년대에 독일

암 연구소에서 HPV(Human Papilloma Virus)가 당시 여성의 두 번째 암인 자궁 경부암의 원인임을 규명한 독일인에게 수여되었다.

2005년도 의학상은 위암을 유발하는 세균 HP(Helicobacter pylori)발견자, 그리고 2003년은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발견자가 수상했으나, 노벨 의학상을 선별하는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음처럼 '임상현장'을 중요시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린다.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에이즈에 의한 세계 사망자는 약 2천500만명이다. 그로 인해 부모 형제들을 잃은 아동은 아프리카에서만 200만명을 넘는다.

세계 인류에 끼친 에이즈 영향을 생각하면, 2008년도 노벨상은 때늦은 감이 있다.

이번 노벨상 수상이 에이즈 박멸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HPV(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 경부암의 주된 원인인 감염증의 원인 바이러스로서 지난 30년간 임상의들에게 잘 알려져 왔다.

최근 HPV 백신이 개발되어 자궁 경부암과 암의 예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근래 10대 소녀들의 문란한 성생활이 만연되는 가운데, 백신 보급으로 건진 한 자궁을 보호하게 되리라 믿는다.

HP(헬리코박터) 연구도 수상

위궤양과 위암의 발병에 세균 감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특히 우리 동양인 암 발생률 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위암의 예방치료가 크게 기여하게 됐음은 경하할 일이며 앞으로 H.P.백신 개발이 주목된다.

MRI(자기공명영상)도 지속적 가능성

MRI는 인체에 칼을 대지 않고, 인체 내의 구성요소를 찾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모든 부분을 촬영해냄으로써 질병의 조기발견과 진단에 획기적인 전기를 이루게 했다.

X-선이나 CT 스캐너와는 달리, MRI는 방사능 등으로 오는 인체 피해가 전혀 없다.

특히 뇌·척추·근육·관절·심장 등의 영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며, MRI는 현재 암 진단과 치료 및 추적에 불가결한 설비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 가능성이 크다할 것이다.



물리부문 왼쪽부터 임지순·김필엽·김수봉 교수



생리의학부문 왼쪽부터 조장희·신희섭·김규원 교수



화학부문 왼쪽부터 유동·박수문·김기문 교수

한국인 노벨상 후보자군

지난 2008년 일본이 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한국의 국민적 열망이 더 커졌다. 다음은 지난 해 동아일보가 과학 분야 최고 학술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도움으로 노벨상에 근접한 한국 과학자들을 꼽아 보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 과학자 중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첫손가락에 꼽히는 분이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임지순 교수다.

임 교수는 1998년 탄소 나노튜브 여러 다발을 묶으면 Dop-ing의 어려운 과정없이 반도체 성질을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 주목 받았다.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로 이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김진희의 노태원 교수 등도 후보로 꼽힌다. 김 교수는 '액시온'이라는 가상의 가벼운 입자를 창안해 물질을 얻었고 노 교수도 산화물 반도체의 한 분야를 개척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김수봉·김선기 교수, 미국 컬럼비아대 물리학과 김필엽 교수, KAIST 물리학과 김은성 교수 등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김수봉 교수와 김선기 교수는 미지 입자인 중성미자와 암흑물질, 김필엽 교수는 미세 나노그래핀의 반도체 가능성을 처음 밝혔다. 김은성 교수는 고체 헬륨을 연구해 지난 해 미국 물리학회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다.

화학 분야에서는 KAIST 유동 교수, 포스텍 박수문·김기문 교

수 등이다. 유 교수는 나노 거꾸집을 이용한 미세물질 개발, 박 교수는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 김 교수도 나노물질 연구로 유명하다. 모두 논문 인용횟수가 수천 회를 넘어서는 등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

젊은 과학자 중에서는 미국 하버드대 화학과 박홍근 교수가 손꼽힌다. 32세에 정교수로 임용된 그는 단원자 트랜지스터 연구로 명성을 얻고 있다.

생리의학 분야에선 조장희 가천의과대학 뇌과학연구소장이 첫째로 꼽힌다.

조 소장은 암,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다양한 난치병 진단 영상장치인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장치의 원형을 개발했다. 또 컴퓨터단층촬영(CT)장치, 자기공명영상(MRI)촬영 장치에 모두 노벨상이 돌아갔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신희섭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신경과학센터장, 김규원 서울대 약학과 교수, 방영주 서울대 의대 교수 등도 있다. 신 센터장은 유전자변형 쥐를 이용한 뇌와 신경 연구, 김 교수는 뇌에 독성물질 유입을 막는 혈관장벽 연구, 방 교수는 암세포의 증식 억제 연구 등에서 뚜렷한 업적을 쌓았다.

김성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도 유력하다.

KAIST 생명과학과 김재섭·정종경 교수,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김빛내리 교수 등도 선배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젊은 연구자군'으로 꼽히고 있다.

새로운 과학 기술



이재형 (공대, 91입학)
보스턴 다우케미컬 연구원

친환경 녹색 기술의 총아 LED 조명 에너지 소모 절반으로 감축 가능

으나 단 6년 만인 2011년 1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6년간 성장률이 무려 388%에 달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서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40억개의 LED가 TFT LCD의 백라이트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08년 대비 300% 늘어난 수치이며 전체 LED 시장의 20%에 해당한다.

수명이 긴 점 또한 매우 중요한 장점이다. 백열등에 비하면 수명이 50배에 달한다.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수명이 길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유리한 투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 현지 벤처 투자회사들의 실리콘 벨리 내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1위가 태양광 관련 기업이고 2위가 LED 관련 기업이다.

◇오바마 정부 LED 주목

지난달 30일 스티븐 추 에너지 장관이 발표한 미국의 회복 및 재투자 행동강령에 따르면 경제 활성 패키지로 3억4,6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주로 LED에 해당될 솔리드 스테이

트 라이팅 연구 개발에 5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7%가 가정과 직장의 조명에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에 의해 2012년(새 기준이 적용될 첫해)부터 2042년까지 매년 4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규모는 매년 1억6,600만대의 차에서 내뿜는 온실 가스 만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2007년 12월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822페이지 짜리 에너지 조치에서 2012년까지 100W 백열등 사용을 금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LED 제조업체인 크리의 척 스와브는 지난 2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고효율 에너지 기술에 대해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같은 날 회견에서 LE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LED는 친환경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일반 형광등은 수은을 함유하고 있어 폐기 시 유해물질로 간주되는 반면에 LED는 환경에 친화적이고 폐기 시 유해물 폐기요금을 따로 부과받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살펴 보면 LED는 그리 복잡한 소자는 아니다. P/N 접합을 이루고 있는 반도체에 전자와 정공을 주입하면 밴드 갭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백색 조명을 위해서는 청자색 LED에 형광체를 덧입혀 만든 소자를 사용한다. 언뜻 이렇게 단순한 LED에 더 이상 개발할 기술들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증이 생긴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LED를

시도, 자외선 LED에 여러 색을 내는 형광체를 다중층으로 증착해 광 스펙트럼을 넓게 만들려는 시도, 형광체의 크기를 나노미터 수준으로 줄여 표면적 증가로 효율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발광체에서 발생한 빛이 좀 더 많이 외부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 외부 물질과의 굴절률 차이로 생기는 반사 손실을 줄이려는 시도로 표면 거칠기를 증가시켜 전반사를 줄인다든지, 광 결정을 도입해 좀 더 잘 조절된 특성을 내게끔 하는 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소자의 효율 개선에서 기존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다소 복잡한 물리적 현상을 고려하는 일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 외에도 더 싼 가격에 같은 효율의 LED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정 기술, 패키지 개선으로 더 많은 빛을 뽑아내거나 방열 특성을 개선해 소자가 열화되는 것을 막는 노력 등을 들 수 있겠다.

미국에서는 LED 칩 제조사나 패키지 업체들은 물론이고 재료 공급 업체들도 특성 및 경제성을 개선하고자 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에 언급된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좀 더 나은 특성을 가진 재료를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공정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고객사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LED가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관심이 쏠리는 시점이다.

<연락처 yijh00@empal.com>

세계 최대의 조명 시장 미국을 밝히다.

한층 진화시키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끝없는 진화의 LED 기술

우선 발광체 자체의 발광 효율 개선노력이 있다. 양자 우물이라는 양자점을 이용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라든지 질화갈륨 결정의 비극성면을 이용해 분극 효과로 생기는 효율감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 플라즈모닉스 현상을 이용해 내부 양자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형광체의 빛 변환 효율 향상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대로 백색 조명은 청자색 LED에 황색 형광체를 결합해 만들게 되는데 적색 형광체로 휘도 향상과 연색성을 늘리려는

◇세계 최대 조명 시장

미국은 향후 10년간 새로 짓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현재의 50% 정도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건물들은 그 효율을 25% 정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LED 자체가 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열을 내는 양이 훨씬 적기 때문에 건물의 공기 냉각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최대의 조명 시장이며 LED 산업은 지난 2005년 2억500만 달러 규모에 불과했

모교 홈커밍 광고 정정

미주 동창회보 7월호 4면에 게재된 <서울대 동창회 홈 커밍 데이> 광고는 2008년 행사 광고가 편집 착오로 삽입된 것이므로 정정합니다. 본의 아니게 오보를 하게 된 것을 사과드리며 동문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교의 개교 기념 행사 및 본 동창회 모교 방문 행사에 관해 본 동창회로부터 전달받은 소식은 8월 20일 현재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미주 동창회 회보 편집실 아빔

미주 동창회보 기획에 동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회는 매월 주제/이슈를 다루는 기획 기사를 심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호에는 "경제 위기 끝이 보이는가?"라는 장정적 주제로 특집을 만들기 위해 일부 동문 경제학자들이 집필하기로 응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난 5월 평의회에서 다시 부각된 '관악 세대의 동문회 리더십 참여 확대 방안'과 미주 '동창회 회장단을 중소 도시에서도 맡는 방안' 등에 관해 동문들의 현명한 지혜를 모으는 특집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과제에 관해 여러 동문들의 의견 입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주 동창회보가 다루면 좋겠다는 주제/이슈, 그리고 회보와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문들의 문학 작품(시·수필·기행문·서평·단편 소설 등)을 게재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면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제안과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실과의 교신은 가급적 e메일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회보 기고 요령을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편집실
Email: snuaahq@gmail.com Tel/Fax: (847) 441-0011

<Continued from page 5>

Separate Governments In Korea, 1945~48

On September 18, President Harry S. Truman issued a statement that counseled caution, patience, and avoided recognition of any coalition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coalition effort of 1946) among the pre-existing organizations. Any attempt at a coalition was to be effected under U.S. auspices by the joint efforts of local Korean leaders and returning exiles who would accept democratic ideals.

Hodge's non-acceptance of the KPR was also in line with his anti-communist thinking, which was encouraged by the Japanese officials still in power in Korea.

In the place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set up a formal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or AMG) and dismantled most of the local KPR committees, replacing them with much of the discredited colonial administrative structure throughout the country. AMG leaders then recruited for the military government bureaucracy the conservative, propertied elements and encouraged them to

establish political parties. Many of them, including men like Kim Song-su, had amassed fortun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were known to have collaborated with the Japanese rule. They were well educated and many spoke English. Also, they were suave, polished, and provided Americans with lavish gifts and entertainment.

From the beginning, the

prolonging the Japanese colonial legacy.

Throughout the fall of 1945, Hodge made numerous errors. These mistakes were made partly due to Hodge's personality and background, as well as a host of other misjudgments on the part of the U.S. government. These included lack of preparation, ignorance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misinformation regarding

imparted falsely an impression to Koreans in the southern region that Americans were opposed to the trusteeship and that it was the Russians who had planned it and wanted to institute it in Korea. When the Moscow accord was announced during the last days of 1945, Koreans were sharply divided between the pro- and anti-trusteeship groups.

The year 1946 dawned not too happily for Koreans. Koreans had little to celebrate as the first New Year since liberation commenced. Song Chin-u, a prominent conservative political figure, had just been assassinated, and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was firmly in place and offering no immediate prospects for independence or unification. Kim Ku, another re-nowned conservative political personality, was rumored to have been implicated in the murder of Song and to have attempted a coup against the AMG.

Life for average Koreans had not improved in the four and a half months since liberation. In many ways, it had deteriorated. In four months the euphoria of liberation had turned to bitter despair. The wretched economic conditions at the end of the war had been exacerbated by the return of numerous overseas Koreans and by the steady stream of refugees from the northern zone. Everyday necessities, in-

cluding housing, food, and other daily use items, were in short supply. All this added fuel to the heightened emotional atmosphere of daily anti-trusteeship campaigns. Patience was running out for everyone.

Editor's Note:

Part II. "The Cold War Comes to Korea" and "Yo-Kim Coalition" to be continued on the September issue.

A slightly different version of this article appears as "Introduction" in a volume, *Korea Under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1945-1948* (Praeger, 2002) edited by the author with the author's copyright.

Bonnie Bongwan Cho Oh, Ph.D. was admitted to the Law College of SNU in 1953. She came to the United States in 1956. She received B.A. in history in 1959 from Columbia University, M.A. in history from Georgetown University and Ph.D. in East Asian history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She retired from Georgetown University as Distinguished Professor of Korean Studies. She has been married 50 years to Dr. John Kie-chiang Oh, Professor and Banigan Scholar Emeritus of Politics at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n, Washington, D.C. They make home in Evanston, IL.

Song Chin-u was assassinated Americans offered no prospects for independence or unification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South Korea sided with conservative elements in postwar Korea. There were many contradictions in the AMG and its policies. The victorious, democratic United States established a military government in a "freed" land in a "hostile" area. The AMG, therefore, had no scruples about collaborating with its former militaristic, totalitarian enemy. It did so from fear of turning southern Korea into an area favorably inclined toward the communist north, which might eventually absorb the former. Whether this fear was justified or not, the AMG can be subject to criticism-for not seeing and heeding the wishes of the majority of Koreans and for

Korean national aspirations, uncritical reliance on information from the Japanese in Korea, and the preoccupation with the rise of Soviet influence in East Asia. The result was catastrophic. American policies were often contradictory, piecemeal, and condescending toward Koreans.

Several events stand out: temporary utilization of Japanese administrative personnel, disbanding of the Korean People's Republic, and American officials contradicting one another about the trusteeship plan. By the time the Moscow Foreign Minister's Conference met in December 1945, Hodge had been clearly identified with the ultraconservative Korean politicians and had

동문 업소록을 정리합니다.

회보의 동문 업소록에 등재되신 동문 중에서 은퇴 또는 타계하셨거나 사업을 그만두신 분들, 그리고 업소록 등재를 원치 않는 분들의 광고를 업소록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동문 업소록에 등재된 1천여 개의 리스트 중에서 광고료를 납부하신 동문은 2009~2010 회계 년도를 합쳐 약 5%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업소록에 등재된 동문 중 절반 이상이 동창 회비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업소가 실제 존재하는 사업체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업소록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업소록 계속 등재를 원하시는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동문들의 업소는 정리할 계획입니다. 동문 업소록을 정확히 정리하여 실제 사업을 하시는 동문들의 업소를 미주 7천여 동문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서로 돕는 <업소록>이 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업소록 광고비를 2009 회계 년도에 납부하시어 현재 유효한 동문들은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에 동문 업소록에 계속 등재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업소록 등재에 관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한 후에는 업소록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업소록의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10월 31일 이후 일괄 정리할 계획이므로 업소록 내용 변경을 신청하시는 동문들께서는 10월 31일 이후 업소록 변경 일괄 작업을 할때까지 변경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록 광고료 연락은 전화로 취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메일(SNUAAHQ@Gmail.com)이나 우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 회보 편집실 아람

동문 동정

수상

▲박영혜(불문61~65 숙명여대 명예교수)=지난 6월 9일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교육공로훈장 수훈.
▲이성미(회화58~62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6월 24일 서울 반포동 예술원에서 한국 미술저작상 수상.
▲유안진(교육학61~65 모교소비자아동학부 명예교수·시인)=6월 13일 시집 '거짓말로 참말하기'로 제4회 이형기문학상 수상.
▲김기병(행대원67졸 롯데관광 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행대원 동창회장)=6월 4일 2009년 서울관광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서울관광 인바운드 여행사'상 수상.
▲민동필(물리64~71 모교 물리천문학과 교수·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6월 3일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교육공로훈장 수훈.
▲권영수(경영75~79 LG디스플레이 사장)=7월 8일 제27회 정진기 언론문화상 대상(과학기술연구부문) 수상.
▲방인(철학75~80 경북대 교수)=6월 12일 曙宇 최재회 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21회 서우철학상(번역부문) 수상.
▲윤영석(조소77~84 경원대 교수)=6월 24일 김세중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23회 김세중조각상 수상.
▲이근(경제79~83 모교 경제학부 교수)=7월 8일 제27회 정진기 언론문화상 대상(경제경영도서부문) 수상.
▲장명우(치의학83~89 하버드대 교수)=6월 5일 하버드대 졸업식장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수상 수상.
▲송치영(무역81~85 국민대 교수)=6월 23일 NEAR재단이 수여하는 제2회 니어학술상(금융통화부문) 수상.
▲김태유(의학82~86 모교 내과학 교실 교수)=6월 5일 보령제약과 한국 암연구재단이 공

동 제정한 제8회 보령암학술상 수상.
▲김승유(AMP 19기 하나금융 그룹 회장)=6월 19일 워싱턴에서 아시아 소사이터 어워드(국제 비즈니스 리더십 부문) 수상.
▲도동환(AMP 26기 민족문화영상협회장)=6월 13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남 합천군 수로부터 감사패 수상.
▲유인목(AIP 32기 테크노빌리지 대표)=6월 17일 사단법인 피터 드러커 소사이터가 수여하는 제3회 피터 드러커 혁신상(중소기업부문) 수상.
▲강보영(HPM 1기 안동병원 이사장)=6월 22일 국가 유공자 생활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보훈처장 표창 수상.
▲강덕수(GLP 8기 STX그룹 회장)=7월 7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제18회 다산경영상 수상.
▲박일환(법학69-73 대법원 대법관)=지난 6월 23일 법원의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
▲양기해(GLP14기 세기종합환경 대표)=5월 19일 발명진흥으로 국가 산업 발전 기여 공로로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박찬모(화학공학54~58 대통령 과학기술 특별보좌관)=6월 26일 출범한 한국연구재단 초대 이사장에 선임.
▲현소환(정치57~61 연합뉴스 전 사장)=6월 9일 국제 언론인 협회(IPI) 이사에 선임.
▲문명호(영문59~64 동아일보 전 논설위원·대한언론인회 부회장)=최근 시민단체 '공정언론 시민연대' 공동대표에 선임.
▲태용열(무역71~75 인천공항 전 세관장·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6월 3일 주택금융 공사

인사

부사장에 임명.
▲남종현(광산학67졸 고려대 전 정책대학원장·고려대 명예교수)=6월 1일 세계경제연구원장에 취임.
▲제갈정용(상학65~72 대림학원 이사장·한국M&A협회 회장)=6월 19일 임기 4년의 대림대학 제6대 총장에 취임.
▲양건(행정66~70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6월 9~12일 스페인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9회 세계음부즈넨협회(IOI) 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출.
▲이순자(미학67~71 경주대 교수·경총학원 이사장)=6월 15일 경주대 총장에 취임.
▲변상경(해양68~72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6월 23일 유엔 산하 정부간해양위원회(IOC) 부의장에 선출.
▲유지창(사회69~73 산업은행 전 총재·전 국은행연합회 회장)=6월 1일 유진투자증권 회장에 선임.
▲박명윤(보대원74~76 청소년보호위원장·관악회 이사)=6월 22일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임명.
▲박일환(법학69~73)=6월 23일 법원 행정을 총괄 법원 행정처장에 임명.
▲박균성(법학75~79 경희대 교수)=6월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공법학회 제29대 회장에 취임.
▲조윤제(무역72~76 전주영대 사·서강대 교수)=6월 10일 세계경제연구원에 임명.
▲김현(법학76~80 서울 지방변호사회 회장)=최근 임기 4년의 미국 코넬대 평의회 위원에 임명.
▲한훈(산업공학76~80 KT 전 전략기획실장)=6월 1일 KT 네트워크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유준열(신문77~83 한국언론학회 전 부회장·국민대 교수)=최근 한국소통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
▲권행민(경영78~82 KT비전 전 경영실장·KTF 전 대표이

사)=6월 1일 KT파워텔 사장에 취임.
▲이장민(영어교육78~82 머니투데이 편집기 기획상무)=6월 3일 법조언론인클럽 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
▲박세열(경영80~84 한국존슨앤드존슨 메디칼 사장)=6월 1일 존슨앤드존슨 메디칼 북아시아 총괄 사장 선임.
▲강태혁(행대원84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 추진단장)=6월 15일 한국은행 감사에 임명.
▲김갑유(사법81~85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한국인 최초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위원에 선출.
▲김철환(ACAD 46기 전 국회의원)=6월 23일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에 취임.
▲권혁승(상학53~57 한국경제전략연구원 이사장)=7월 2~8일 서울 백악미술관에서 禧壽書展 개최.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체 작품 80여 점 전시.
▲이인자(가정교육55~59 건국대 명예교수)=6월 15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장남 이상훈(공법81~85)동문과 공동제작 영화 '김광을 듣다' 개봉.
▲정홍숙(가정교육59~63 중앙대 명예교수)=서울 세실아트홀에 클래식 감상교실 '유리디체 아카데미' 개설.
▲이형균(정치59~64 한국신문 방송인클럽 회장·경향신문 사우회장·본회 부회장)=6월 25일 서울 아사히오리엔서 경향신문 사우회 정기총회 개최.
▲이용경(전자공학60~64 국회의원)=6월 8~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계저작권 회의(WCS)서 기조연설.
▲안택수(정치62~66 신용보증

기금 이사장)=6월 23일 서울 코엑스 제54차 중소기업국제협의회 총회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역할과 성과'를 주제로 연설.
▲권성(법학60~66 언론중재위원장)=6월 24일 전주 코아리베라 호텔에서 '개정된 언론중재법을 통해 인터넷 공간의 언론피해구제 내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이태진(사학61~65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6월 12일 관악캠퍼스 퍼스호텔에서 정년기념논문 '문화로 보는 한국사' 출판기념회.
▲이주성(대학원62~65 성신여대 전 교수)=6월 10일 공군사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제7기 명예졸업증서 받음.
▲서동희(응용미술66~70 건국대 예술학부 교수)=최근 '도에 디자인 상품 개발 및 판매'를 주제로 실험실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중소기업청서 지원 받음.
▲김임식(경대원70졸 학교법인 동의학원 이사장)=6월 25일 일본 도쿄 고쿠시칸대에서 한·일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박사학위 받음.
▲이진수(의학68~74 국립암센터 원장)=6월 1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국립암센터에 지원해준 분들을 초청해 사은의 밤 행사 개최. 또 19일 암센터 국제학술회의장에서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국가로의 도약'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광택(행정68-75 국민대 교수·한국사회법학회 회장)=6월 12일 국민대에서 '실업급여의 개선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사회법적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도홍복(조소75~79 조각가)=6월 24~7월 2일까지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실크갤러리에서 부인 나오미 군지(동양화86~91)동문과 '20년의 기억'이란 주제로 부부전 개최.
▲이명숙(지구과학교육75~7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6월 25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 전략'을 주제로 국제회의 개최.
▲박준성(대학원79졸 성신여대 교수·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6월 23일 성신여대에서 경제위기와 노사관계 학술대회 개최.

행사

▲김철환(ACAD 46기 전 국회의원)=6월 23일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에 취임.

▲이성미(회화58~62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6월 24일 서울 반포동 예술원에서 한국 미술저작상 수상.
▲유안진(교육학61~65 모교소비자아동학부 명예교수·시인)=6월 13일 시집 '거짓말로 참말하기'로 제4회 이형기문학상 수상.
▲김기병(행대원67졸 롯데관광 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행대원 동창회장)=6월 4일 2009년 서울관광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서울관광 인바운드 여행사'상 수상.
▲민동필(물리64~71 모교 물리천문학과 교수·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6월 3일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교육공로훈장 수훈.
▲권영수(경영75~79 LG디스플레이 사장)=7월 8일 제27회 정진기 언론문화상 대상(과학기술연구부문) 수상.
▲방인(철학75~80 경북대 교수)=6월 12일 曙宇 최재회 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21회 서우철학상(번역부문) 수상.
▲윤영석(조소77~84 경원대 교수)=6월 24일 김세중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23회 김세중조각상 수상.
▲이근(경제79~83 모교 경제학부 교수)=7월 8일 제27회 정진기 언론문화상 대상(경제경영도서부문) 수상.
▲장명우(치의학83~89 하버드대 교수)=6월 5일 하버드대 졸업식장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수상 수상.
▲송치영(무역81~85 국민대 교수)=6월 23일 NEAR재단이 수여하는 제2회 니어학술상(금융통화부문) 수상.
▲김태유(의학82~86 모교 내과학 교실 교수)=6월 5일 보령제약과 한국 암연구재단이 공

미국 캠퍼스의 동문들

미네소타 대학교 편

본 동창회보는 미국의 주요 대학 및 리서치 캠퍼스 주변의 유학생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동문 커뮤니티를 소개하는 시리즈를 기획합니다. 각 캠퍼스에 있는 동문들의 인적 자원과 동문간의 유대를 소개하는 이야기로 꾸미길 이 시리즈의 첫번째로 1950년대 한국 전쟁 후 복구시기에 서울대를 기술 지원한 미네소타대학교와 그곳의 동문들 이야기를 게재합니다.

서울대와 인연은 미네소타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미네소타의 관계는 1950년대에 서울대를 지원한 미네소타 프로젝트에서 발단하여 현재 5백여명의 한국계 학생들과 20여명의 서울대 출신 교수진들의 연구와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

이 대학의 한국인 재학생수는 565명으로 외국 유학생중 중국과 인도 다음 세번째로 많다. 한국인 대학원생과 교수진은 323명으로 역시 타국 출신중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세번째로 많다. 학부 재학생은 184명으로 중국 외에 두번째로 많으며 학위과정 외의 비정규 유학생은 48명으로 제일 많다. 최근 2년간 한국 학생 평균 입학수는 학부 72명, 대학원 67명, 과정 외 2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동문 학생회

미네소타 대학의 학생 그룹들



미네소타 대 동문 교수진

Chang W. Song (문리대, 53) Prof. Emeritus, Therapeutic Radiology; Steven K Juhn(의대, 60) Prof., Otolaryngology; Han S. Joo (수의대, 62) Prof. Veterinary Population Medicine Paul H. Kwon(치대, 59) Adj. Prof. Developmental/Surgical Science; 김영기(의대, 58), Pediatric Nephrology; 이윤희(농가정, 85) Asst. Prof. School of Social Work; 김형일(전기공학, 94) Asst. Pr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박창원 (물리학, 89) Research Associate, Medicine/Gastroenterology; 박장연 (핵공학, 88) Research Associate, Radiology 송육진 (치, 87) Asst. Prof. Dept. of Restorative Sciences, School of Dentistry.

인근 캠퍼스의 동문 교수진

송재현 (공대, 60) Prof. St. Cloud State Univ.; 신철수 (공

중에 서울대 동문회 임원은 회장 최원석, 부회장 강형길, 이재림, 회계전재은, 감사 정해린 등이 봉사하고 있다.

서울대 동문들과 미네소타한인회

서울대 동문회는 미네소타한인회(Korean Association of MN:KAM)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한인회 회장으로 봉사한 서울대 출신은 전성균(1969)·송창원(1973)·김태환(1975)·변우진(2000-2001) 동문들이다.

그 외에도 S. Nam·Hark Imm·H.C.Shin·김영화·Charlie Jung·주한수·주영돈·김필주·김권식 동문 등이 한인회 이사로 봉사했다.

전쟁후 서울대 복구와 한국 과학 발전에 기여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1954년 9월 28일 서울대학교와 미네소타 주립 대학교 사이에서 맺어진 상호기술협조협정(相互技術協助協定)이다. 미국 해외 원조처(U.S.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FOA)의 한국 원조 계획의 일환인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양국의 교수 교환과 서울대의 시설확충이었으며 서울대학교 의대·공대·농대·행정대학원이 대상이었다. 교수 교환은 1955년부터 61년까지 시행되었다.

서울대 공대와 관계

1950년대에 서울대 공대 출신 동문 중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연수, 유학하고 귀국하여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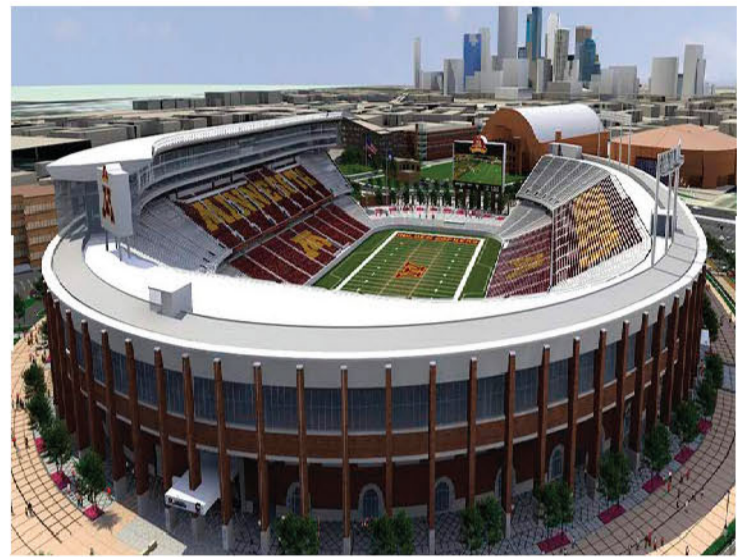
서울대 동문은 아니지만 이 대학 금속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형섭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 때 귀국하여 한국 원자력 연구소장을 거쳐 과학기술 연구소(KIST)를 창설하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거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창설, 그 원장으로도 근무했다. 그는 대덕단지 기획하는 등 한국 과학 현대화 기틀을 닦는데 미네소타 대학이 배출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미네소타 출신의 여러 서울 공대 동문들이 모국에 기여하거나 미국에 남아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대 동문회 미네소타 지부의 남세현 회장(67입학), 김영석 차기 회장(73 입학), EVS 엔지니어링 사장인 K. Dennis Kim 동문들이 있다.

서울대 의대와 관계

1954-61년 기간 중 서울의대에서는 77명(간호학 9명, 병원행정요원 1명, 영양사 1명 포함)이 미네소타 의대에 파견되었고 11명의 미네소타의대 교수가 내한하여 자문교수로 역할을 했다.

특히 내과 교수이던 골트박사는 1959-61년 2년간 수석 자문 교수(Overall Adviser)로 체한하면서 의학교육 방법의 개선, 의대와 병원건물의 수리 및 개축, 실습실과 강의실 시설보완, 도서 구입등을 도왔다.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골트박사는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며 서울의대는 물론, 한국 의료 발전에 기여했다.



서울대 농대와 관계

1950년대에 농대에서는 지역 부학장, 유달영 교수(후에 국민재건본부 운동 본부장을 역임)를 비롯한 비인문 학과 교수진 거의 전원이 미네소타 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귀국했다. 이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동문중에는 표현구 교수가 후에 농대 학장으로 시무했다.

미네소타에서 유학하고 현지에 남은 농대 동문 중에는 주영돈(작교)·김필주 박사 부부가 있다.

한국수의학계와 관계

1960대 초기에 한국 수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한 John Arnold, Al Weber, Ben Pomeroy 박사들이 아직 미네소타 대학 원로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특히 아놀드 박사는 한국 수의 임상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다.

그 후 20여년 동안 서울 수의대와 관계는 소원하다가 1980년 주한수 교수가 미네소타 수의대 교수로 부임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수의과 유학생들이 오기 시작, 지난 26년 간에 한국 유학생 13명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한국 양돈업자들, 사료업자들의 방문이 잦아 한국 수의 학 및 축산업계와 미네소타 대학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 치의학계와 관계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반에 걸쳐 서울대 치과대학

교수진의 대부분이 미네소타 치대에서 단기 연수를 마쳤다. 1986년에는 미네소타 치대 구강외과에 있는 동문이 한국 구강외과 학회에서 치과 임플란트를 소개하여 현재 한국에서 널리 사용하게 됐다.

그 후로도 2004년에는 16명의 한국 치과외과사들이 미네소타 치대 구강외과 임플란트 연수회에 참석하는 등 한국 치과 임플란트를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시술하게 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미네소타 법대의 기여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법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곳 법대는 그동안 우수한 한국 학생들을 교육시켜왔다. 지난 30년 간 미네소타 법대를 거친 한인 법조인은 약 200명에 이른다. 최근에 한국 입양아들의 법대 진학이 두드러진다.

이곳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는 변우진 동문은 미네소타 법대 졸업(1993) 이듬해 개업하여 한인회장, 미네소타 아시아 문화센터의 회장 등을 역임했고 특히 아태문화센터를 위해서 약 100만달러를 모금했다.

이 기사는 미네소타 지부 남세현 회장단의 성육진 총무를 비롯하여 권학주 변우진 전성균 데니스 김외 여러 동문들이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발췌, 작성한 것임.



지역 동창회 소식

남가주·밴쿠버



남가주 동창회

‘총 동창회 합창단’ 감동의 하모니 노장청 선후배 어울린 여름밤 낭만

매년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합창단의 정기 공연은 파격적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음악회로 정평이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공연이 Walt Disney Concert Hall에서 열려 올해도 유감없이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주었다.

특히 노년·장년·청년의 선후배 3세대가 어우러지는 이 행사는 서울대인들의 큰 자랑거리다.

아마추어지만 20년 이상 경력의 합창대원들과 음대 졸업생들의 화합 속에서 2시간의 연주를 위해 1년간 연습한 인내와 노고는 마치 서정주 시인이 쓴 ‘국화꽃 옆에서’의 한구절을 연상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도 울었다 보다...’

이를 진두 지휘한 조성환 박사와 조성환 박사는 클래식과 현대음악, 한국 고유의 민요와 동요까지 웅장한 관현악 속에 조화시켜 다양한 장르의 곡을 단순한 음악감상을 넘어 모든 연주자나 청중들이 같이 즐기는 음악과 문화의 향연을 베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화 행사의 저력은 미국에 거주하는 동창들의 한결같은 협조의 저력일 것이다.

이 날 또 한편으로 공명감을 준 것은 음악을 통해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곡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첫 곡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 온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의 하나인 ‘모든 산에 오르다(Climb every mountain)’였다.

이어 베르디의 오페라 IL TROVATORE 중에서 나오는 ‘대장간의 합창’으로 삶의 기쁨을 노래했다.

한국 동요로 ‘두점아 두점아 헌집 줄게 새 집다오’는 한국인의 욕구 표현이었다.

또 한국 전통 악기를 총동원한 국악인 동문들 협연으로 부른 ‘심청가’ 중 ‘뱃노래’에서는 모든 청중이 일어나 두둥실 한국 춤을 출 것 같은 분위기가 었다.

헤성같이 출현한 신인들인 LA VOCE 4중창단(테너 김성봉, 김일두, 바리톤 구충길, 임정택). 이 분들의 환상적 가창은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특별 출연한 예반 엔젤 어린이 합창단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잠시나마 어릴적 동심의 세계로 인도했고 이들은 미래의 꿈을 심어준 것 같다. 계속된 아름다운 합창이 끝나고 다시 음과 기쁨의 앵콜로 답한것은 모든 이가 마음 속으로 같이 부를 수 있는 ‘베사메 무초’로 끝났다. 값지고 의미있는 문화 행사를 성공시킨 모든 이들에게 축하한다.

참고로 스페인어 ‘Besame Mucho’의 뜻은 ‘어여쁜 아가씨가’ 아니라 ‘키스해주세요. 아주 많이’다.

이 날 청중은 물론 음악 평론가들도 “이 합창공연이 새로운 변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수준높은 음악감상을 넘어 재미와 감동을 주어 2시간 이상의 연주가 큰 기쁨이 됐던지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다”는 평이었다.

<지종근>

정들었던 이상의 장주옥 교수, 최희영실장 귀국 서치원 동문, 50년 만에 표창장

회자정리(會者定離)라 했던가.

지난 7월 아쉬운 작별의 자리가 두 건 있었다. 1년여 동문 커뮤니티에서 정을 쌓은 세 분이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동안 서울대 미주센터 개설과 첫 소장의 임기를 마친 이상의 교수(국문과), USC 교환교수를 끝낸 장주옥 동문(서강대 교수), 서울대 병원 미주 사무소 개설주역 최희영 실장이 주인공들이다.

이 날 만장의 박수를 받으며 가문의 영광을 빛낸 동문도 있었다. 서치원 동문이다.

서 동문은 이날 서울대 교양강좌에 가장 많이 출석하고 열정을 보인 점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서 동문은 “상은 국민학교 때 개근상 이후 50년만에 처음”이라면서 “상을 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감격해 했다.

<Acropolis Times Editor@AcropolisTimes.com >



조성환 조성원 박사와 제성혜(기운데) 남가주 동창회장이 성공적인 음악회 행사와 함께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밴쿠버 동창회

이근백 동문 연방하원의원 도전

이근백 동문(사진)이 최근 뉴웨스트민스터-코퀴틀람 선거구에서 실시된 연방하원의원 선거 후보경선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이 동문은 11월경 자유당(Liberal)후보로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자유당 선거구위원회는 이근백 동문(Ken-Beck Lee)과 게리 리노스키(Lenoski) 2인을 놓고 출마자 결정을 위해 당원투표했다.

이 후보는 한인 당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5배수의 압도적 표차로 리노스키를 꺾고 후보가 된 것이다.

이 후보는 앞으로 집권 보수(Conservative) 다이애나 딜워스(Dilworth) 후보, 신민당(NDP) 핀 도넬리(Donnelly) 후보와 뉴웨스트민스터-코퀴틀람 보컬 선거에서 경쟁한다. 보컬선거일은 집권당이 10월 13일 이천 박희개 패했다.

이 후보는 자유당과 인연에 대해 “1975년 서울대 박사과정 2년 차에 이민 왔을 당시 캐나다 서울대 졸업장을 겨우 고교 졸업장과 동등하게 취급해 나에게 엔지니어 시험 응시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 그때 찾아가 도움받은 분이 자유당 하원의원으로 2년 만에 엔지니어 시험을 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개인적 출마배경에 대해 “한국 우수기업의 캐나다 발주를 도우면서 실패 원인을 보면 정책결정권자가 한국을 정말 모르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목격했다. 정계에 나가 한국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싶다”고 말했다.

했다.

뉴웨스트민스터-코퀴틀람 선거구는 지난 총선에서 신민당-보수당 2파전이 이뤄졌던 곳이나 이 동문은 “앞서 자유당은 지도력이 약한 상태였지만 현재는 정비를 완료했다. 보컬선거라는 특성상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보컬선거는 투표율이 낮아 지역에 따라 투표율은 8~30% 정도나 표를 결집하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추세는 이 동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동문들의 도움이 보다 더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 적극 협조를 바라고 있다.

이근백 동문은 UN 기후변화기구 전문 자문가 중 한 명으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감축 프로젝트에 수차례 참여했다.

그는 캐나다와 미국의 환경 프로젝트를 다수 맡고 있다. 환경공학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4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근백 동문(가운데)이 자유당의 연방 하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최종 승리한 뒤 지지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기술서와 안내서를 다수 작성했다.

한편 봉사활동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3년간 씨리 커뮤니티재단 이사, 7년간 한인장학재단 이사, 3년간 한인문화협회 회장으로 활동해왔다.

또 씨리와 델타 지역의 다양한 지방자치체 위원회에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한편 사업가로도 그의 활동이 큰 것으로 정평이 있다. 현재 뉴이스트 그룹(New East Group)을 경영하고 있다.

<주부호>

대학 연합 골프대회 정성자 동문 합창공연

2009년도 대학 연합 골프대회가 9월 7일 포트코퀴틀람 카누스티 골프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전년도 우승대학인 성균관대에서 주관하게 됐다. 대회는 1시에 샷건방식으로 티업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서울대가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라는 소문이

들고 있다.

정성자(75 음대 피아노과) 동문이 지휘하는 밴쿠버 시온 선교합창단이 9월26일 오후 7시 공연을 갖는다.

장소는 Surrey에 있는 Pacific Academy 강당이다.

대원 95명으로 구성된 대합창단 공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무궁화 재단에서 추진하는 한인양로원 건립 기금으로 전액 기부될 계획이다.

지역 동창회 소식

시카고·워싱턴 주



강수상 동문의 아들 스티브를 기리기 위한 장학회 '스티브 강 장학재단' 관계자와 장학금 수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카고 동창회

강수상 동문 장학기금 5만달러 모금 아들 기리는 '스티브강 장학재단'에서

강수상 동문(의대 47입학)은 스티브 강 장학재단 창립 10주년 모금 및 문화행사를 지난 8월 시카고 남서부 교외 옥부룩에 있는 드류리 레인 팹렛 홀에서 개최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요절한 강수상-강정희 박사 부부의 아들 스티브를 기

기 위해 예술 전공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시작한 이 재단 행사에는 시카고 지역 동문들과 후원자들 120여 명이 모여 5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날 행사에서 2008~2009 장학생 25명이 소개되고 김병관 전 한미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북한의 큰 변화 후 한반도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리고 장학생 중 제리 김을 비롯한 컬럼비아 대학 재학생들이 제작한 영상물과 조원직-조영은 부부의 재즈-피아노 음악을 감상했다.

대학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 장학재단은 10년간 총 90명에게 1천~5천 달러씩 장학금을 지급해왔는데 2009~2010 학년도 장학금 신청은 오는 10월 31일로 마감한다. <문의: 630-572-9202>

'한미 역사학회' 회장 함성택 동문 '명치유신' 세미나 개최

'시카고 한미 역사학회' 회장인 함성택 동문(문리대, 55입학, 사진)은 금년 추계 세미나를 지난 8월 18일 저녁 노스브룩 소재 중앙 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온 이찬영 교수는 일본의 서구 문명 수입과 현대화를 촉진한 '일본의 명치유신'의 배경과 일본 민족의 반응을 소개했다. "민족의 기록된 역사가 짧고 혈통의 유래가 불분명한 일본인들이 동양에서 서구 문명을

가 잘 받아들여 현대화에 성공한 것은 지도자를 잘 추종하는 그들의 특성 때문"이라고 이 교수는 풀이했다.



시카고에서 계절별 역사 연구 모임을 수년간 열어온 함성택 동문은 그동안 '재미 한인의 이민 역사와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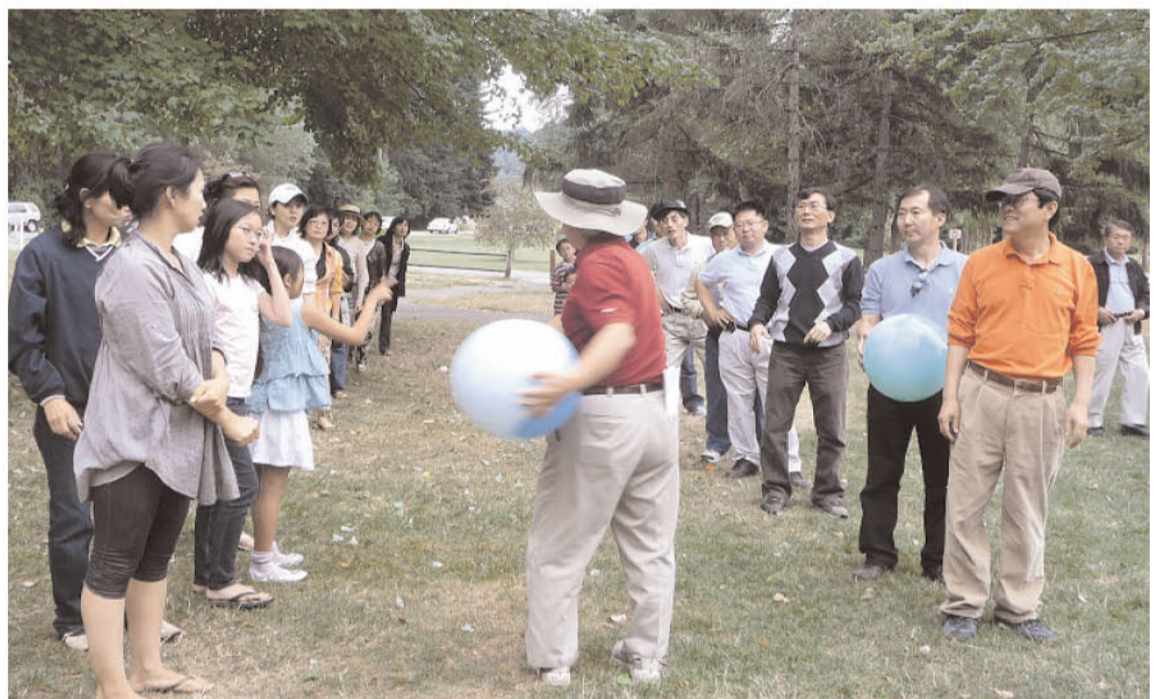
사 알렌의 역할', '한국 전쟁 기원의 역사적 배경'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연락처: 847-508-1190>



"다같이 축하합시다"

시카고 동창회 임원회가 최근 송순영 총동창회장(가운데)과 함께 시카고에서의 첫 동창회보 발간을 자축하는 자리를 가졌다



워싱턴주 동문 가족들이 공 패스하기 게임을 즐기고 있다

워싱턴주 동창회

서머 피크닉 겸 임시 총회 성황

시애틀 워싱턴주 동창회가 지난 8월 연중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Summer Picnic 겸 임시총회를 Sammamish State Park에서 가졌다.

지난 해보다 참석 인원이 조금 적었으나 새로 가입한 젊은 회원들이 더 많아 동창회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작년 윤태근(상대 69) 동문에 이어 올해는 이원섭(농대 77) 동문이 알래스카에서 직접 잡아온 알래스카 연어구이를 비롯, 각 가정 특별음식으로 꾸민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최고의 음식을 선정하는 대장금 상은 투표 결과 김동호(농대 58)동문 가족에게 수여되었다. 올해도 즉석 해물파전은

로 인기만점이었던 임현민(공대 84)동문가족은 연속으로 상을 타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대장금상 후보에 들지 못했다.

식사 후에는 신입회원 자기소개에 이어 김재훈 동창회장의 사회로 임시총회를 열고, 전반기 동창회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 현재 워싱턴 대학 교환교수인 정경영 동문이 한 민족 고유의 심신수련법인 국선도의 단전호흡법 소개와 시범을 겸한 강의를 해주었다.

이를 위해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에 국선도 단전호흡법 교재 50권을 무료로 제공해주신 한국의 덕담 국선도 사단법

인 김규범 국장께 감사를 드린다.

강의를 마친 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게임을 준비해 주신 김재호(공대 71)·임현민(공대 84) 동문의 리드로 BINGO Game을 시작, 물풍선 던지기, 10-15인 일조로 공 패스하기, 그리고 서울대 Banner를 네트로 이용한 즉석 족구시합 등 많은 게임으로 꾸민 선물을 나누어 가졌다.

늦게까지 남은 회원들과 가족은 Leftover음식으로 2차로 저녁식사를 간단히 해결했으며, 3차는 임원과 열성회원(?)들이 김재훈 회장대에 모여 Wine을 곁들인 동창회의를 밤늦게 까지 했다.

'동창회가 잘 되려면 준비한 Wine병수에 비례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날 우리 동창회가 바로 그러했다고 본다.

<김재훈-워싱턴 주 동창회장>

삼가 명복을 빕니다

▶오기평 동문 작고
세종재단 이사장, 아·태평화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오기평 동문(서강대 명예교수, 사진)이 지난 8월18일 별세



했다. 향년 75세.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1957년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1년 미네소타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1년부터 서강대 정외과 교수, 부총장, 2002~2006년 세

종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에 취임해 대북·외교문제 관련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서로 '현대 각국정치론', '북한의외교론-북한의 UN외교' 등이 있다. 유족으로 부인 박영자 씨, 아들 재민(미국 거주), 딸 윤이 씨(도예가)와 사위 정대언 씨가 있다.

시카고의 오기창 동문(법학 박사)과 형제사이로 잘 알려져 있다.

▶최대형 동문 작고
TS Teck회장인 최대형 동문(전기공학 52)이 7월19일 작고했다.

▶박세직 동문 작고
계향군인회장인 박세직 동문(영문 57)이 7월27일 작고했다.

▶김주성 동문 부친상
김주성 동문(생물자원공학 83, 소니 수석연구원)이 지난 7월30일 부친상을 당했다.

지상 미술 전시

유형길 동문 미술작품 상설 전시



유형길 (미대, 58입)



유엔 사무 총장에게 보낸 '평화의 상징' (50cm x 40 cm)



Beach Talking II (Water Color, 22"x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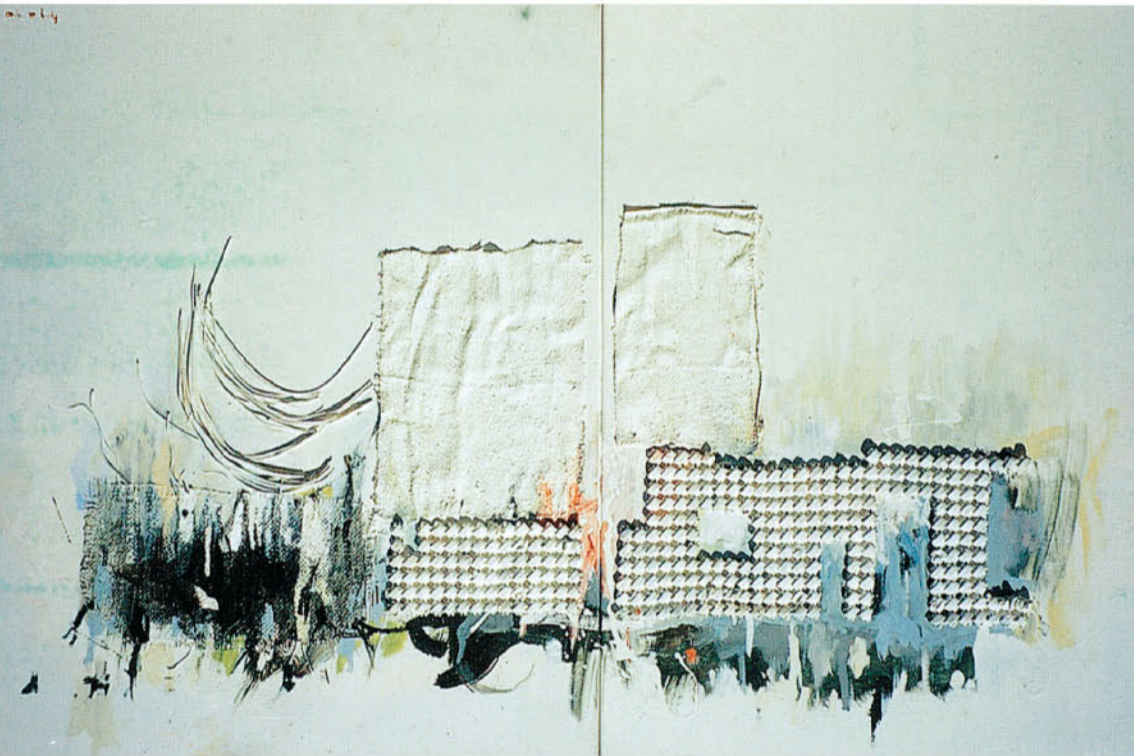
밴쿠버의 유형길 동문(미대, 58입학)이 7월1일부터 8일까지 서울 관훈동 모로 갤러리에서 열린 '58전시'(미대 58년 입학 동기 전시회)에 참여하고 돌아왔다.
유 화백은 최근 만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 군에게 폭격을 당한 가자 지구 아랍계 기독교 학교를 방문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작품 '평화의 상징'을 보내 격려하여 반 총장으로부터 유 동문의 작품 활동을 축하하는 감사서신을 받기도 했다.
유 동문은 자신의 작품 30여점을 골라 자택에 상설 시장을 만들어 매주 토요일 희망하는 방문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한편 유 동문은 제자들과 공동 작

품 전시회를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밴쿠버 중앙 도서관에서 열기 위해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
유형길 동문의 자택 전시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 (604) 433-0107로 연락하면 된다.

유형길 동문의 약력

유형길 동문은 195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입학(실기 수석)하여 1964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1968년 캐나다에 이주(밴쿠버)한 후 금년까지 35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100여 회 단체 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의 작품은 캐나다의 CTV에서 '유형길과 작품'으로 소개됐고 (2000) 밴쿠버 공중파 TV에서 그의 삶을 조명했으며(2008), 라디오 서울의 '각계각층의 명사' 프로그램(2004), TV Korea 11에서 그의 삶과 개인전 작품을 소개(2005), 신문 지상에도 100여 회 작품을 소개하는 등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00년 한국 대표화가들의 순회 전시에 참여하고 Richmond Art Gallery에 한국 미술을 전시했다.
유형길 화백을 소개하는 서적으로 '밴쿠버에서 하늘만 보고도 산다' (원운순 지음, 2003)와 'O, Canada' (송요상 지음, 2004)가 출판되었다.
유 화백은 British Columbia 한인 미술인협회 초대 회장(1997)으로 2001까지 역임했다.



무제 (Mixed Media, 152"x30")



The Field of North, (Water Color, 21"x18")



Fresh Air (Water Color, 18"x16")



A Small Harbor of Nova Scotia (Water Color, 22"x14")

동문 업소록

휴스턴

무역/오일 분야

C & G Industries, Inc.
진기주(상대 60) Tel: (713)466-1644
10350 Clay Road #150 Houston TX 77041

변호사

Onetech Law Firm
장재석(법대 67) Tel: (915)227-8317
5525 N. Station Elpaso TX 77034

보험/중개업

Farmers Insurance
곽용진(문리 59) Tel: (915)227-8317
1240 Blalock #120 Houston TX 77055

사무직/엔지니어

SBM Atlanta
김기준(공대 61) Tel: (281)848-6373
1255 Enclave Parkway Houston TX 77077

서비스/상식사

한국장외사
조시호(문리 59) Tel: (281)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수의학/동물병원

싱크동물병원
이윤성(수의 81) Tel: (281)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300 Katy TX 77494

Westhollow Animal Hospital
유소양(수의 61) Tel: (281) 531-9095
13664-A Westheimer Houston TX 77077

엔지니어링/컨설팅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성(공대 69) Tel: (281)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엔지니어링/공해시험

Anacon, Inc.
이규진(약대 60) Tel: (281)922-7000
730 FM 1959 Houston TX 77034

엔지니어링/원유 개발 컨설팅

Larmie Petroleum, Inc.
명인성(공대 50) Tel: (832)722-0075
3131 Rosemary park lane Houston TX 77082

엔지니어링/원유 개발 컨설팅

Larmie Petroleum, Inc.
명인성(공대 50) Tel: (832)722-0075
3131 Rosemary park lane Houston TX 77082

유통/광고상비

Cysco Tech International
채영진(공대 50) Tel: (713)892-0600
8931 Four Leaf Drive Suga Land TX 77479

의료/산부인과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Tel: (281)343-5455
7333 N. Freeway Suite 260 Houston TX 77076

학교/대학

라매대학
김태훈(공대 57) Tel: (409)850-7861
4400 MLK Parkway Beaumont TX 77705

오레곤

공인회계사

김상순 공인회계사
김상순(상대 67) Tel: (503)646-2868
10700 SW Beaverton-Hillside Hwy, #21 Beaverton OR 97005

종교/목사

엘림한인교회
최근영(법대 63) Tel: (503)231-1625
61 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미네소타

건축/토목설계

EVS, Inc
김권석(공대 61) Tel: (952)646-0238
10250 Valle View Rd., Suite 123 EdenPrairie MN 55344

변호사

변우진 법률사무소
변우진(인문 81) Tel: (952)926-0040
4005 W. 65th St. #202 Edina MN 55435

컴퓨터

Seagate Technology
심원진(공대 84) Tel: (952)402-2644
1280 Disc. Dr. Shakopee MN 55379

뉴잉글랜드

교회/목사

보스톤시온교회
정경진(공대 62) Tel: (781)275-8327
400 Great Road Bedford MA 01730

부동산/중개업

JK Realty Trust
김제희(상대 56) Tel: (617)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비영리법인

한글문화원
김영숙(사대 75) Tel: (617)850-2108
229 Hurley St. #1 Cambridge MA 02141

소프트웨어

SoftInx, Inc
이희규(공대 69) Tel: (987)439-0100
85 Rangeway Rd., Bldg. One North Billerica MA 01862

수의학/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유성태(수의 62) Tel: (978)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희(수의 61) Tel: (978)851-3638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엔지니어링/재료시험

Bureau Veritas CPS, Inc.
박병준(공대 52) Tel: (508)844-2712
350 Myles Standish Blvd. Taunton MA 02780

의료/정신과

Psychological Services
김영진(사대 59) Tel: (413)736-5393
155 Maple St. Springfield MA 01105

의료/의원

Renal Medical Care, P.C.
장태진(의대 53) Tel: (617)298-1169
Seton Med. Building #208 Boston MA 02124

의료/산부인과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Tel: (978)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제조업/계약

Ipsen Pharmaceutical Co.
김신혁(약대 59) Tel: (508)478-0144
27 Maple St. Milford MA 01757

오하이오

상담/생활설계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용(의대 56) Tel: (419)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수의학/동물병원

Charles Sung 수의병원
장홍환(수의 75) Tel: (330)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산부인과

Yong D. Song M.D. Inc.
송용덕(의대 57) Tel: (740)353-3196
16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의료/소아과

서좌일 소아과
서좌일(의대 59) Tel: (440)282-7034
4560 Oerlin Ave. #1 Lorain OH 44053

의료/내과

장극기 심장내과
장극기(의대 64) Tel:
6789 ridge Rd. #203 Parma OH 44129

의료/의원

YONG JAE SONG, MD
송용재(의대 63) Tel: (440)843-7772
6731 Ridge Rd. #302 Parma OH 44129

Brook Park Medical Clinic
홍준표(의대 58) Tel: (216)676-6411
15400 Snow Rd. Brook Park OH 44142

Lancater Radiation
조길영(의대 68) Tel: (614)568-9506
401 North Ewing St. Lancaster OH 43130

하트랜드

부동산/중개업

M.C. Properties
최만식(농대 64) Tel: (816)668-1196
8500 E. 350 Hwy Kansas City MO 64133

상업/재정

Fund Development
전선옥(법대 50) Tel: (913)648-2353
5500 W 98TH Place Overland Park KS 66207

의료/병원

Deaconess Hospital
민정환(의대 56) Tel: (405)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의료/의원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Tel: (918)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401

워싱턴주

리테일러/식당장비

A-1 Reestraunt Supply, Inc.
박홍(상대 68) Tel: (425)673-8949
20307 Hwy99 Suite C Lynnwood WA 98036

부동산/중개업

EJ Estate
이은수(경대원 73) Tel: (253)851-1658
1505 Crescent Lake Dr. N.W. Gig Harbor WA 98332

사무직/컴퓨터소프트웨어

Guppy Media Inc.
최두환(공대 83) Tel: (425)450-9494
12443 Be-Red Rd., Suite 383 Bellevue WA 98005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상열(공대 72) Tel: (425)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수의학/동물병원

Federal Way Ani. Hosp.
이승택(수의 75) Tel: (253)529-0306
1700 S. 305th Place, SITE A Federal Way WA 98003

엔지니어링/항공

The Boeing Company
김제환(공대 72) Tel: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의료/의원

Painless Clinic
신장범(법대 73) Tel: (425)228-7446
947 Powel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의료/치과

김성열 치과
김성열(치대 61) Tel: (360)254-5900
217 SE 136th Ave., Suit #101 Vancouver WA 98684

유타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 & Tour
박종수(공대 60) Tel: (801)263-8866
292 East 3900 South #4 Salt Lake City UT 84107

조지아

리테일러/편광식품

Good Nutrition
김만복(유리 72) Tel: (770)992-2363
463 Beaver Run Rd. Norcross GA 30071

리테일러/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선(공대 76) Tel: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변호사

안법률사무소
장아래(문리 64) Tel: (770)455-3244
5465 Buford Hwy, Sute #202 Atlanta GA 30340

수의학/동물병원

Abbott Gwinnett Animal Hospital
오경희(수의 60) Tel: (770)921-2121
5534 Hwn 29 Lilburn GA 30034

Town N Country Animal clinic
김연국(수의 74) Tel: (813)885-2791
5237 Ehrlich Rd Tampa FL 33624

Long Lake Animal Hospital
홍순희(수의 74) Tel: (813)264-5600
15415 N. Florida Ave Tampa FL 33613

스토아/골프

피치트리 웨일리 골프센터
황성주(사대 70) Tel: (770)497-9265
2833 Peachtree Ind. Blvd. Duluth GA 30097

은행/이사장

Metro City Bank
백낙영(상대 61) Tel: (770)455-4971
5441 Buford Highway Suite #109 Atlanta GA 30340

은행/이사장

Metro City Bank
백낙영(상대 61) Tel: (770)455-4971
5441 Buford Highway Suite #109 Atlanta GA 30340

의료/의원

Heart Care Centre
김계식(의대 66) Tel: (407)291-2440
5840 W. Colonial Dr. #1 Orlando FL 32808

제조업/의류

CK International Inc.
전일우(상대 50) Tel: (305)759-2800
398 N. E. 79th St. Miami FL 33138

제조업/화학제품

FOB 합성회사
최우백(공대 76) Tel: (404)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동문 업소록

학원/온라인

IvyTown.com (온라인교육)
조여성(공대 71) Tel: (678)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필라델피아

건축/설계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진우(공대 61) Tel: (609)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8

건축/설계/시공

Timothy Haas & Assoc.
손재욱(생환과대 77) Tel: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최 환(공대 68) Tel: (302)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금융/은행

More Bank
이영재(상대 58) Tel: (215)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Tel: (267)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리테일러/잡화

Jay & Co.
제갈우(문대 59) Tel: (215)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보험/중개업

New York Life.
윤경숙(문대 59) Tel: (215)441-3240
101 Gibraltar Rd., Suite 150 Horsham PA 19044

비영리법인/한인단체

서재필기념센터
안지영(문대 67) Tel: (215)635-0661
900 Valley Road, #D-202 Melrose Park PA 19027

서비스/연회장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상대 59) Tel: (610)277-4008
300 E. Main Street Norristown PA 19401

수의사/동물병원

Germantown Ani. Hosp.
전우식(수의 61) Tel: (215)843-828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Community Animal Hospital
지종민(수의 61) Tel: (215)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인(수의 69) Tel: (215)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Tel: (610)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sdowne PA 19050

Market Upper Darby A Hospital
오연각(수의 53) Tel: (610)352-9100
6421 Market St. Upper Upper Darby PA 19082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복(수의 68) Tel: (215)745-3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 효(수의 66) Tel: (610)833-1252
1408 Chester Pike Crum Lynne PA 19022

CHEL-WAYNE ANIMAL HOSPITAL
민홍식(수의 60) Tel: (215)843-595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예술/갤러리

요식업/음식당

이즈미 일식당
최종민(공대 61) Tel: (215)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의료/약국

쌍둥이 약국
허창기(약대 67) Tel: (215)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의원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Tel: (215)342-2015
6816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Advanced Plastic Surgery Center
김교안(의대) Tel: (302)623-4004
774 Chirstiana Rd. Newark DE 19713

의료/정신과

Hack R. Chung, MD, MPH
정학광(약대 56) Tel: (215)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의료/정형외과

문대옥 정형외과
문대옥(의대 67) Tel: (302)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치과

김국간 치과
김국간(치대 64) Tel: (215)224-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PA 19120

김종규 치과
김종규(치대 63) Tel: (215)745-6123
6725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오진석 치과
오진석(치대 56) Tel: (215)887-6718
1883 London Rd. Abington PA 19001

제조업/전기모터

Industrial Electric Motors Co.
한세원(공대 60) Tel: (215)747-7290
6403 Vine St. Philadelphia PA 19139

종교/교회

동산장로교회
한세원(공대 60) Tel: (215)747-7290
5044 Winfield Ct. Bensalem PA 19020

워싱턴DC

공인회계사

Stephen Kim & Co, CPAs
김태연(상대 56) Tel: (301)585-6260
8907 Georgia Ave. Siver Spring MD 20910

Lee Kyu Sup CPA
이규삼(상대 68) Tel: (703)642-2900
4330 Evergreen Lane Sit H Annadale VA 22003

관리자/자산관리

IPM
이태영(법대 60) Tel: (410)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금융/융자

Optima Funding Group Inc.
남옥연(경영대 84) Tel: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리테일러/골프백화점

Joseph's Golf
정요셉(사대 70) Tel: (301)725-0888
8445 Old Columbia Rd. Laurel MD 20723

리테일러/꽃집

하지은꽃집
하지은(음대 92) Tel: (301)270-1848
6921 Laural Ave. Takoma Park MD 20912

변호사

정태경 변호사
정태경(사대 62) Tel: (301)424-1940
501 Hungerford dr. apt # 321 Rockville MD 20850

조형진 이민변호사
조형진(상대 84) Tel: (703)354-4202
7002 Little River Tnpk Annandale VA 22003

합동법률사무소
박성우(법대 75) Tel: (703)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담섭(약대 57) Tel: (703)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보험/중개업

MetLife
김 국(상대 75) Tel: (703)304-2129
7600 Leesburg Pike #201W Falls Church VA 22043

부동산/중개업

Sunny Ahn 부동산
강승원(생환과대 64) Tel: (703)623-5171
13135 Lee Jackson Fairfac VA 22033

Sweet Home Realty
강연석(사대 58) Tel: (703)407-4070
13230 Memory Ln Fairfax MD 22031

BPS Appraisal Company
마정일(상대 69) Tel: (703)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법인/연구소

통일시대연구소
이종돌(문리 60) Tel: (703)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서비스/여행업

해보라여행사
김 국(상대 75) Tel: (703)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Hans World Travel
한인성(문대 55) Tel: (301)770-1717
152 Rollins Ave., Suite 208 Rockville MD 20852

수의사/동물병원

Ross Veterinary Hospital
유정식(수의 60) Tel: (202)363-1316
5138 Mac Arthur Blvd. N.W. Washington DC 20016

Elpaw Veterinary Clinic
한희생(수의 60) Tel: (703)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Hillendale Animal Hospital
박찬도(수의 68) Tel: (703)680-2717
13183 Center Pointe Way Woodbridge VA 22193

엔지니어링/광산업

Kyanute Corporation
임단주(공대 55) Tel: (434)983-2085
30 Willis Mountain Plant Ln. Dillwyn VA 23936

엔지니어링/태양광발전

Drivetsch, Inc.
임달용(공대 69) Tel: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요식업

우래옥
백희남(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세과

Daniel I. Kim, M.D.
간익재(의대 76) Tel: (301)230-9893
110 Congressiona Lane Rockville MD 20878

도상철내과
도상철(의대 63) Tel: (410)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박수용내과
박수용(의대 63) Tel: (703)273-6802
10680 Main St. #130 Fairfax VA 22030

의료/소아과

Belair Pedatric Center
안필순(의대 56) Tel: (410)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의료/신경정신과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Tel: (410)225-8779
827 Linden Ave. #442 Baltimore MD 21201

의료/의원

Washington Cancer Institute
유 달(의대 61) Tel: (202)877-4599
1160 Varnum St., N.E. #217 Washington DC 20017

Georgetwon Vascular Associates, R S O
이병광(의대 57) Tel: (703)880-9500
1830 Twon Center Dr. #401Reston VA 20190

의료/세월과

조병선 물리재활과
조병선(의대 65) Tel: (703)941-2666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의료/치과

김훈진 치과
김훈진(치대 54) Tel: (301)949-1345
12100 Heritage Park Dr. Silver Spring, MD 20906

이영재 치과
이영재(치대 66) Tel: (301)649-4197
10313 Georgia Ave #205, Silver Spring, MD 20902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Tel: (301)220-2828
6201 Greenbelt Rd., Suite U-10 Berwyn Heights, MD 20740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Tel: (301)926-9692
8931 Shady Grove Rd., Gaithersburg, MD 20877

이한봉 치과
이한봉(치대 59) Tel: (301)649-2201
1119 Arcola Ave. Silver Spring MD 20902

의료/병원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Tel: (301)949-1345
2300 Opitz Blvd. Woodbridge VA 2219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의대 52) Tel: (703)256-8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종교/교회

Newlife Presbyterian
김창호(법대 56) Tel: (410)744-5711
1501 N. Rollying Rd. Baltimore MD 21228

학원

스마트학원
고우환(법대 57) Tel: (703)591-7431
9510-A, Lee Highway Fairfax VA 22031

시카고

건축/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Ltd.
정승규(공대 60) Tel: (773)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동문 업소록

건축/건설링

Key Global Asso.
하계현(공대 64) Tel: (248)613-0993
1435 Tacoma Dr. Rochester Hills MI 48306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Tel: (618)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N 62221

금융/증권투자, 보험

Green Realty, Inc.
김성원(수의 71) Tel: (847)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리서치/기술개발

Heat Transfer R&D, LTD
이용락(공대 48) Tel: (847)577-5967
1010 W. Lonquist Mt. Prospect IL 60056

리테일러/백화점

Modern Gifts & Dundee Shiseldo
지명식(사대 65) Tel: (847)559-1005
3121 Dundee Rd. Northbrook IL 60062

변호사

이흥미 변호사
이흥미(의대 63) Tel: (773)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광원(법대 55) Tel: (773)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관리

남부동산관리주식회사
남상훈(공대 52) Tel: (734)662-0351
2689 Balmoral Ct. Ann Arbor MI 48103

부동산/중개업

로알 부동산
임두생(문리 61) Tel: (847)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IT Realty, Inc.
송성준(법대 76) Tel: (847)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Tel: (630)207-2515
24 Conn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상담/재정, 투자

셀리 전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Tel: (847)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의사/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중(수의 83) Tel: (219)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ep.
곽영문(수의 72) Tel: (630)478-925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Justice Animal Clinic
강영국(수의 67) Tel: (708)599-4800
8507 S. Roberts Rd. Justice IL 60458

숙박업/호텔

Radleson Hotel(Lincolnwood)
배건재(공대 54) Tel: (847)877-1234
4500 W. Touhy Ave., Loncolnwood IL 60646

의료/세과

심기창 내과
심기창(문리 68) Tel: (773)478-9250
3447 W. Lawrence Ave., Chicago IL 60625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Tel: (248)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희운 심장내과 C. A. V. A
윤희운(의대 63) Tel: (248)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의료/산부인과

이민자 산부인과
이민자(의대 63) Tel: (847)991-1400
800 e. Northwest HWY Palatin IL 60067

의료/소아과

Rosa H. Chol, MD, SC
최혜숙(의대 53) Tel: (708)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의료/방사선과(암치료)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Tel: (810)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의료/외과

Elgin Cardiac Surgery, S.C.
임현재(의대 59) Tel: (847)695-1620
915 Center St. Elgin IL 60120

홍광렬관 외과
배영선(의대 54) Tel: (630)543-4040
501 S. Grace St. Addison IL 60101

St. Joseph Mercy Hosp.
이영보(의대 53) Tel: (248)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의료/의원

Gundersen Clinic
윤 준(의대 61) Tel: (608)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Chul Chang, MD
장 칠(의대 65) Tel: (269)427-5304
P.O.Box 250 Bangor MI 49013

Elgin Cardic Surgery S.C.
조중행(의대 63) Tel: (847)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Suh Sang Hun, MDPC
시상현(의대 65) Tel: (773)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의료/외과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Tel: (847)390-7474
9101 N. Greenwood Ave. #301, Niles, IL 60714

조희경 치과
조희경(치대 80) Tel: (847)562-1252
332 Skokie Valley Rd. #222 Highland Park IL 60035

윤석환 치과
윤석환(치대 58) Tel: (847)965-6878
5830 Dempster St. Morton Grove IL 60053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6) Tel: (618)239-6151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N 62221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Tel: (847)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Tel: (847)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제조업/특수섬유

HDM Inc.
김영희(공대 65) Tel: (651)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학교/한국문화학교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Tel: (248)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학원/문화학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정택(문리 55) Tel: (847)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065

뉴욕

건강

Jang Soo Furnishing, Inc.
박대규(사대 55) Tel: (201)945-7879
321 Broad Ave., #B-3 Ridgefield NJ 07657

건축/설계

UJ 건축사 사무소
김주현(공대 93) Tel: (347)213-3516
31 West 74th St., #2A New York NY 10023

Park Engineering, PC
박영건(공대 57) Tel: (201)447-7054
370 Annette Ct. Wyckoff NJ 07481

Joohee Bong Architects & Planners
봉주희(공대 90) Tel: (212)697-3131
140 East 46th St. Suite 3G New York NY 10017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Tel: (732)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공인세무사

Young Tal Chol E.A.
최영태(문리 67) Tel: (212)695-0206
106 Brinkerhoff Terrace Palisade Park NJ 07650

공인회계사

Kenneth K. Lee, CPA
이영국(농대 80) Tel: (201)956-8348
106 Brinkerhoff Terrace Palisade Park NJ 07650

MinSun Ho, CPA
호민선(상대 59) Tel: (212)738-8590
1350 Broadway #606 New York NY 10018

Kim Lee & Co.
김용배(인문대 77) Tel: (212)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Changeoo Kim, CPA P.C.
김장수(야대 64) Tel: (212)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Wesley Y. Chung, CPA
강일화(상대 55) Tel: (212)738-8590
1350 Broadway #606 New York NY 10018

Wha Sam Kong, CPA
공화산(농대 64) Tel: (201)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New York NJ 07093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Tel: (201)569-1177
440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Tel: (212)688-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Edward CM Kang CPA
강충무(사대 80) Tel: (212)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820 New York NY 10018

Sung N. Park, CPA
박성남(사대 76) Tel: (212)760-2338
481 8th Ave. Suite 1549 New York NY 10001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Tel: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Deloitte & Touch
김영희(법대 80) Tel: (212)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Jin Won Kim, CPA
김진원(사대 72) Tel: (212)244-2080

39 W. 32nd St. #1704 New York NY 10001
세원 회계법인
김성중(상대 65) Tel: (212)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사무소
문주현(경대원 88) Tel: (212)947-4444
16 West. 32nd St., Apt #704 New York NY 10001

광고/기획 디자인

Dual Advertising(www.dualadv.com)
김복영(미대 86) Tel: (212)753-2001(Ext.21)
400 E. 59St. #12H New York NY 10022

Box Graphics Inc.
최석봉(미대 71) Tel: (212)691-7231
119 W. 23St. Suite #303 New York NY 10011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Tel: (212)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금융/모기지

Best Mortgage
곽 환(사대 73) Tel: (201)313-3333
25 Broad Ave. Palisade NJ 07650

금융/세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진(문리 71) Tel: (201)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WBS Enterprises Inc.
박 상(상대 55) Tel: (718)426-9379
47-30 59th St. #6C Woodside NY 11377

금융/투자

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
김명숙(상대 55) Tel: (212)869-2312
1212 Americas Ave. #2304 New York NY 10036

리테일러/잡화

Kim's Store
김용민(사대 66) Tel: (516)850-0552
1526 College Point Blvd. College Point NY 11356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Tel: (718)720-4498
195 P.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리테일러/가구

Sun Furniture
정윤영(문대 59) Tel: (718)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리테일러/리뷰

D & M Liquor Business
김덕수(문리 70) Tel: (908)273-4493
221 Broad St. Summit NJ 07901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Tel: (212)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Madison Ave. Liquor, Inc.
라철용(문리 80) Tel: (212)338-0004
244 Madison Ave. New York NY 10016

Hudson Wine Market, Inc.
이홍민(의대 57) Tel: (201)346-0101
1638 Schlosser St. Fort Lee NJ 07024

리테일러/의류

Winswear
이관태(농대 62) Tel: (914)664-4643
32 South 4th Ave. MT. Vernon NY 10550

Caps Unlimited
친명수(상대 70) Tel: (718)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리테일러/신발

Athleisure Foot, Inc
박영태(상대 83) Tel: (973)622-1624
744 Broad St. Newark NJ 07102

리테일러/뷰티/스파/라이

Beauty Supply
이석주(상대 88) Tel: (718)366-6141
54-24 Myrtle Ave. Ridgewood NY 11385

리테일러/보석

Broadway Jewelry
캐신셀(상대 81) Tel: (973)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리테일러/악기

Amadeus Piano
이근부(문대 60) Tel: (201)707-0561
568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리테일/폴세일

New York Golf Center
이철구(농대 60) Tel: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무역/역류

Evershine Mt. Corp.
김우영(상대 60) Tel: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무역/원자재

대림 엔터프라이스
이성근(법대 60) Tel: (201)461-3621
2605 John St. Fort Lee NJ 07024

코람무역회사
캐상권(약대 55) Tel: (973)790-3302
P.O. Box 352Totowa NJ 07512

무역/종합상사

SK Group, Inc.
우상영(상대 55) Tel: (973)815-1234
55 Central Ave. Panaic NJ 07055

무역/가발

Nina America, Inc.
강석권(법대 61) Tel: (201)941-9100
132 Bergen Blvd. Fairview NJ 07022

무역/전기용품

EAC Trading, Inc.
윤경옥(약대 50) Tel: (516)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변호사

Feldman Weinstein, LLP
김용혁(법대 70) Tel: (212)869-7000
420 Lexington Ave., Suite 2620 New York NY 10170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Tel: (718)48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김학용 변호사 · 회계사
김학용(공대 76) Tel: (718)445-0123
159-15 Northern Blvd., Suite#111 Flushing NY 11358

Joon Hae Park, Attorney
박준하(인문대 86) Tel: (212)869-3200
104 West 40th St. New York NY 10018

조대영 변호사
조대영(공대 81) Tel: (212)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Sang Chn Yom, Attorney at law
염상진(상대 77) Tel: (201)461-1616
1580 Lemoine Ave., #9 Fort Lee NJ 07024

최형우 법률사무소
최형우(법대 69) Tel: (718)48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서장석 변호사
시장석(사회과학대 91) Tel: (201)363-0010
460 Bergen Blvd., #206Palisades Park NJ 07650

연봉원 변호사
연봉원(문대 61) Tel: (212)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Sun. W. Young Attorney at Law
양순우(법대 63) Tel: (212)947-0600
38W. 32nd St., Suite#900A New York NY

부동산/중개업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영숙(간호 56) Tel: (516)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Century 21 Infinity Realty
이제원(법대 60) Tel: (201)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법대 60) Tel: (201)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프리트버그 부동산
유영수(문대 64) Tel: (201)568-1818
610 E. Palisade Ave. Englewood Cliffs NJ 07652

Realty 7, LLC
한혜경(음대 69) Tel: (201)982-6239
2182 Lenoine Ave. Fort Lee NJ 07024

허영자 부동산
허영자(약대 63) Tel: (201)768-5624
Church Rd. Old Tappan NJ 07675

Re/max Diamond
류재우(기대 71) Tel: (732)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More Realty
최 호(문대 61) Tel: (201)346-4300
242 Main St. Fort Lee NJ 07042

뉴스타 부동산
송용길(신대원 69) Tel: (718)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부동산/관리

Ji Jay Corp.
최한용(농대 58) Tel: (718)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비영리법인/문화센터

동부문화센터
이재현(사대 60) Tel: (718)358-8380
35-22 Linden Pl. Flushing NY 11354

유라니아
박우미(음대 77) Tel: (516)528-6846
5 Norden Dr. Brookville NY 11545

사무직

송학린
송학린(법대 59) Tel: (212)675-1813
Astoria New York NY 11105

상담/비즈니스

FCC USA, Inc.
황분하(수의 76) Tel: (631)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상담

송기뢰 기술상담
송기뢰(행정대원 62) Tel: (718)357-8812
45-22 194 St. Flushing 11358

IBECONS Int'l
간계철(공대 58) Tel: (718)650-0488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장의사

중앙장의사
하혜민(자연과학대 99) Tel: (201)541-6555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서비스/여행사

아리랑여행사
정영희(사대 62) Tel: (212)563-3351
Empire State Bldg. 350 5th Ave. Suit 2206, New York NY 10118

동아여행사
정영희(사대 62) Tel: (212)563-3351
Empire State Bldg. 350 5th Ave. Suit 2206, New York NY 10118

말희여행
박단희(인문대 89) Tel: (201)673-0454
412 Broad St. Bloomfield NJ 07003

서비스/드라이크리너

C & K Dry Cleaner
김진채(간호 60) Tel: (914)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화(상대 63) Tel: (856)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ilton NJ 08003

Best Cleaner
김홍일(공대 60) Tel:
750 Route 70, Eveshamplaza Mailton NJ 08003

서비스/샌익,공중

뉴욕영문서비스센터
이종덕(사대 56) Tel: (718)899-6657
42-38 77th St. Elmhurst NY 11373

서비스/프린팅

B & P Group, Inc.
이석구(문대 69) Tel: (201)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서비스/잠금장지

Alco Lock & Safe, Inc.
정인석(상대 58) Tel: (212)867-3380
405 Lexington Ave. Crysler Building Arcade NY 10174

서비스/인력개발

Cesna Group
안영채(공대 74) Tel: (212)244-0055
40 W. 37th St., suite 1104 New York NY 10018

수익사/동물병원

Church Road Ani. Hoop.
김영두(수의 61) Tel: (856)667-0101
2310 Church Rd. Cherry Hill NJ 08002

Animal Clinic of Parsippany
이형진(수의 60) Tel: (973)386-1711
Parsippany Rd. Parsippany NJ 07054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ountain Gear
서진욱(수의 75) Tel: (973)560-1909
18 Leamoor Dr. Whippany NJ 07981

스포츠 시설

보고타 골프센터
김남기(사대 63) Tel: (201)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언론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Tel: (718)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무(사회과학대 83) Tel: (212)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연구소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물과학대 73) Tel: (609)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예술/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병현(미대 57) Tel: (201)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고 화랑
고영수(미대 57) Tel: (212)619-2180
66 West Broadway New York NY 10007

요식업/식당

Cheong Hae Restaurant
오치주(농대 67) Tel: (718)460-0500
160-2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운송/통관

America Int'l Line, Inc.
윤양희(농대 80) Tel: (718)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Wider Express U.S.A., Inc
이종근(문대 64) Tel: (718)656-7744
177-25 Rockaway Blvd., Suite#204 Jamaica NY 11434

JP Express
이병희(문대 66) Tel: (718)995-0344
179-14 149th Rd., 2nd Fl. Jamaica NY 11434

Honey Bee Hauling
우환호(문대 58) Tel: (718)762-6512
138-35 Elder Ave. #15J Flushing NY 11355

유통/건강기능식품

영생건강
한인수(사대 73) Tel: (718)762-0812
140-11 33rd Ave. 1A Flushing NY 11354

Penn-Craft Corp.
손완배(농대 70) Tel: (201)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유통/도매

니시모토 트레이딩
김영봉(음대 83) Tel: (201)372-3109
602 Washington Ave. Carlstadt NJ 07072

Beauty Supply of New York
경무식(사대 83) Tel: (212)427-3881
2264 3rd Ave. New York NY 10035

유통/무역

Incel Corp.
김윤기(농대 71) Tel: (908)755-4217
1115 inman ave. #355 Edison NJ 08820

Bradlee International Ltd.
이상훈(공대 70) Tel:
212 West 35th St. New York NY 10001

유통/뷰티세플라이

Kiss Products, Inc
김광호(문대 62) Tel: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유통/산업기계부품

Linkwell Corp.
유두영(공대 66) Tel: (845)624-7460
55 Old Turnpike Rd., #208 Nanuet NY 10954

유통/의류도매

Young One Fashion
원영일(공대 58) Tel: (212)685-4850
1201 Broadway New York NY 10001

유통/하드웨어

Queens Plumbing Supply
김상호(공대 71) Tel: (718)392-0111
43-01 37th St. L. I. C. NY 11101

유통/레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식(문대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의료/세과

Ob & Gynecology
손광호(외대 59) Tel: (718)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박상기 위장내과
박상기(외대 50) Tel: (718)939-8705
136-30 Maple Ave. #1D Flushing NY 11355

Chung, In Young, MD
정인용(외대 65) Tel: (908)755-7440
4 Progress St., TCM Plaza, A-7 Edison NJ 08820

동문 업소록

황용규 내과
황용규(의대 66) Tel: (718)353-6200
142-04 Bayside Ave. #3U Flushing NY 11354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Tel: (732)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l M. Lim, M.D.P.C.
임대목(의대 58) Tel: (518)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민병덕 내과
민병덕(의대 53) Tel: (718)507-1888
77-08 Broadway Elmhurst NY 11373

이종현 심장내과
이종현(의대 60) Tel: (212)567-2424
80 Seaman Ave. New York NY 10034

방병기 심장내과
방병기(의대 67) Tel: (609)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Suite 720 Plainshore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Tel: (718)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Tel: (732)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Tel: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의료/레이저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대식(의대 68) Tel: (718)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의료/마취과

Hudson Pain Management
강성홍(의대 67) Tel: (201)894-4788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마취의원
류재욱(의대 57) Tel: (201)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의료/병원

우리종합병원
김호연(의대 46) Tel: (718)886-6677
35-11 Farrington St. Flushing NY 11354

의료/비뇨기과

정진우 비뇨기과
정진우(의대 66) Tel: (718)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의료/산부인과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Tel: (718)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의료/소아과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의대 75) Tel: (718)899-48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현중(의대 56) Tel: (908)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의료/안과

Young S. Hahn, M.D.
한영수(의대 61) Tel: (718)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의료/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Tel: (516)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Tel: (212)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Ray Drug
최구진(약대 54) Tel: (212)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Hopkin's Drug
고상희(약대 56) Tel: (718)429-2140
63-19 Roosevelt Ave. Woodside NY 11377

Drozen's Pharmacy, Inc.
이종대(약대 65) Tel: (718)652-1581
774 Alerton Ave. Bronx NY 10467

Raycol Drugs, Inc.
김동경(약대 61) Tel: (212)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Smile Drug
상기호(약대 57) Tel: (718)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Tel: (718)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의료/외과

채규철 외과
채규철(의대 53) Tel: (973)674-8168
123 S. Munn Ave. East Orange NJ 07018

Stan S. Chol, M.D.
최승용(의대 61) Tel: (908)76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의원

Jal J. Rhee, M.D.
이재진(의대 58) Tel: (718)426-6464
75th St. Jackson Heights NY 11372

Sung K. Lee, M.D.
이성근(의대 60) Tel: (908)359-8251
101 Omni Drive Hills Borough NJ 08844

Lee Allergy
이혁일(의대 73) Tel: (201)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지익(의대 69) Tel: (304)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Quest Diagnostics, Inc.
조재봉(의대 54) Tel: (201)393-5672
One Malcolm Ave. Teterboro NJ 07608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홍(의대 60) Tel: (516)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West Jersey Hospital
김미례(의대 70) Tel: (856)429-7696
West Jersey Hospital Voorhees NJ 08043

Summit Park Hospital, Dept. of Mental Health
윤영섭(의대 57) Tel: (845)364-2242
Sanaterim Rd. Pomona NY 10970

의료/이비인후과

이태봉 이비인후과
이태봉(의대 56) Tel: (212)759-9614
30 Central Park South #11B New York NY 10019

의료/정신과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Tel: (718)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전종철(의대 57) Tel: (845)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조승열 정신과
조승열(의대 60) Tel: (831)667-4243
1645 Deer Park Ave. Deer Park NY 11729

의료/치과

강경훈 치과
강경훈(의대 65) Tel: (201)989-0606
1625 Anderson Ave. #2 Fl. Fort Lee NJ 07024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Tel: (914)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의대 62) Tel: (212)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Tel: (718)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권영함 치과
권영함(치대 61) Tel: (718)458-6510
40-33 69 St. Woodside NY 11377

김영용 치과
김영용(치대 56) Tel: (718)969-9197
135-33 Union Turnpike Flushing NY 11367

최기철 치과
최기철(치대 69) Tel: (718)225-3337
219-02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최말봉 치과
최말봉(치대 72) Tel: (718)898-9049
605 Broad Ave., Suite 203 Ridgefield NJ 07657

계동희 치과
계동희(치대 67) Tel: (718)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6) Tel: (718)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김 승 치과
김 승(치대 61) Tel: (718)321-9342
143-25A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54

이문세 치과
이문세(치대 72) Tel: (201)944-7238
127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김경일 치과
김경일(치대 67) Tel: (718)229-8202
214-20 45th Rd. Bayside NY 11361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Tel: (718)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Tel: (718)979-7277
2799 Hy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홍성보 치과
홍성보(치대 61) Tel: (845)385-0859
516 Rt 303 Orangeburg NY 10962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Tel: (718)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73

의료/통증치료

김승관 통증재활원
김승관(의대 70) Tel: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제조업/계약

MERCK & Co.
석진경(약대 96) Tel: (646)872-7339
Rahway NJ 07065

Vital Health Tech. Inc.
시정용(약대 70) Tel: (973)574-809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제조업/뷰티케어

Kles Products, Inc.
한규성(의대 84) Tel: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제조업/의류

Loadway Enterprises, Inc.
최수용(상대 35) Tel: (212)268-7955
19W. 34St. New York NY 10001

Jeffrey Allen Corp
이기영(상대 70) Tel: (201)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제량(상대 61) Tel: (201)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제조업/전자제품

Coby Electronics Corp.
오상환(공대 82) Tel: (516)775-8880
1991 marcus ave suite 301 Lake Success NY 11042

종교/목사

든든한교회
김상근(목사 71) Tel: (718)463-8181
33Ave. Flushing NY 11354

복음장로교회
장세태(사대 63) Tel: (973)867-7123
Bevercuyck Rd. Palisades Parkway NJ 07054

직장/종교

연합감리교세계선교부
전남진(목사 64) Tel: (212)870-3829
Riverside Dr. New York NY 10115

직장/의사

St. James Hospital
김옥환(의대 59) Tel: (973) 465-2677
Jefferson St. Newark NJ 07105

직장/무역

Jung Hwa USA, Inc.
김영목(공대 75) Tel: (201)568-2656
375 Sylvan Ave., 2nd Fl. Englewood Cliffs NJ 07632

출판/제일스맨

가나안인쇄(출판사)
이춘삼(목사 35) Tel: (718)729-3132
27-02 41Ave. LIC NY 11101

출판/출판사

Hollym nal Corp.
이시진(목사 54) Tel: (908)353-1655
Donald Pl. Elizabeth NJ 07074

컨설팅/이미지

Jin Image Consulting
배지현(생활과대 83) Tel: (212)600-4234
60 E. 42nd St., #1740 New York NY 10165

컴퓨터/컴퓨터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환수(사대 72) Tel: (201)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학교/봉사센터

KCS Community Center
양제관(강영대학원 66) Tel: (718)686-8203
42-15 166th street Flushing NY 11358

학원/기술학원

Cooper Art
손승덕(의대 77) Tel: (201)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학원/댄스교습

중앙일보문화센터
신광일(공대 50) Tel: (718)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학원/수학교실

조달훈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Tel: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등분 업소록

한방/의료원

시호한의원
박경룡(상대 63) Tel: (718)733-1399
30 EAST 200 ST Bronx NY 10468

한방/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Tel: (718)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한방/한의원

남경한의원
이인진(법대 54) Tel: (212)244-0036
124 West 30 St. New York NY 10001

한방/한의원

정영희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Tel: (201)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건축/개발

Mackone Development Inc.
양대룡(상대 56) Tel: (213)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Mackone Development Inc.
양은혜(상대 56) Tel: (213)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건축/시공

ACCU Construction, Inc.
임동해(상대 74) Tel: (951)657-8200
23135 Betty Road Perris CA 92570

건축/구조설계

J.S. Chung Structural Engineering
장준성(공대 65) Tel: (562)943-0847
15820 Whittier Bl. # H Whittier CA 90603

공무원/컴퓨터프로그래머

Los Angeles County Internet Service Dept
신광재(공대 73) Tel: (562)940-2273
9150 E. Imperial Hwy, Mail Stop 17 Downy CA 90242

공인회계사

김재형 공인회계사
김재형(농대 62) Tel: (213)385-1985
2960 Wilshire Blvd., Suite#300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법대 62) Tel: (213)381-0781
366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림(공대 85) Tel: (213)73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Jung Mo Park & Co.
박정보(문리대 66) Tel: (213)383-4005
3255 WILSHIRE BLVD# 170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장병진(상대 76) Tel: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홍준(상대 65) Tel: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Tel: (714)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김동순 회계사
김동순(법대 59) Tel: (310)538-9315
1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강경수 회계사무소
강경수(법대 58) Tel: (213)383-4005
3255 Wilshire Blvd. #1700 Los Angeles CA 90010

Shin-Yong Kang CPA
강경수(상대 73) Tel: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 201 Los Angeles CA 90010

C.P.A.
김병현(상대 69) Tel: (213)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Ace Business Services, Inc.
조파연(상대 58) Tel: (818)994-7365
14617 Victory Blvd., #2 Van Nuys CA 91411

John J. Kim CPA
김종관(문리대 57) Tel: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공인회계사
신대식(상대 60) Tel: (310)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Daniel D. Moon CPA
문덕수(공대 73) Tel: (213) 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Jung Mo Park, CPA
박인희(간호대 66) Tel: (213) 383-4005
3255 Wilshire Blvd. #1700 Los Angeles CA 90010

장준공인회계사
장준(인문대 85) Tel: (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윤재호공인회계사
윤재호(상대 76) Tel: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이용철공인회계사
이용철(경영대 92) Tel: (949)756-3500
2 Corporate Park, Suite#202 Irvine CA 92606

Koogwon Kwun CPA & Assoc.
권국원(공대 69) Tel: (213)480-0520
3699 Wilshire Blvd., Suite #820 Los Angeles CA 90010

윤경민공인회계사
윤경민(법대 55) Tel: (213)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이강우공인회계사
이강우(인문대 76) Tel: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90005

KIM & KANG CPA
김경두(공대 69) Tel: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 CPAs
김규경(사대 77) Tel: (213)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조승범공인회계사
조승범(경영대학대 74) Tel: (213)380-3333
3700 Wilshire Bl. #950, North Tower Los Angeles CA 90010

Kim & Hwang CPAs
김인철(농대) Tel: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임춘택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Tel: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Kwang Hee Nam CPA
남병희(인문대 76) Tel: (213)487-1688
3700 Wilshire Bl # 939 Los Angeles CA 90010

Heung W. Youn CPA, MBT
유홍원(환경대학원 85) Tel: (213)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교회/지휘자

로스페리스감리교회
임대수(공대 60) Tel: (323)382-0691
1800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7

금융/부행장

First Standard Bank
최영구(상대 61) Tel: (213)434-2424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금융/은행

Shinhan Bank America
안종주(상대 85) Tel: (213) 251-3013
30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한인헤드럴 크레딧유니온
이영일(공대 53) Tel: (213)388-9000
3700 Wilshire Blvd., #2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제정설계

United Escrow Co.
박인수(농대 64) Tel: (213)388-3333
3440 Wilshire Bl, #60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은행장

Mirae Bank
박광순(상대 63) Tel: (213) 427-7951
3255 Wilshire Blvd., #1100 L.A. CA 90010

금융/Consultant, Loan

Countrywide Bank, FSB
이동희(경영대학원 82)
1 Park Plaza, Suite #250 Irvine CA 92614

금융/모험투자

Venture Unlmted, LLC
남중우(공대 62) Tel: (714)738-1499
1912 Somerest Ln. Fullerton CA 92833

금융/세정설계

AXA Advisors
원영배(미대 74) Tel: (213)251-179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The Westar Group
윤장희(상대 83) Tel: (626)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금융/은행

방코포플라시민은행
김영덕(법대 58) Tel: (323)731-1475
3360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19

리테일러/정소도구 및 소모품

Weesco Inc.
김철환(공대 57) Tel: (213)384-2245
33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리테일러/상패

한국트로피/한국타올사
박양중(문리대 61) Tel: (213)380-2775
3475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리테일러/라켓

한남체인
하지원(공대 66) Tel: (213)381-38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리테일러/리퀴스토아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Tel: (310)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e CA 90250

리테일러/패션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Tel: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 #A-08 Anaheim CA 92805

Sharon's Fashion
신정식(상대 64) Tel: (626)449-1712
453 E. Orange Grove Blvd., Pasadena CA 91104

리테일러/보석상

세계보석
김광찬(문대 59) Tel: (213)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리테일러/시품점

Sammy Mart
다칠삼(문리대 64) Tel: (213)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os Angeles CA 90015

리테일러/스테이셔너리

Morning Glory Stationery & Gifts USA
문병진(문리대 61) Tel: (714)739-2468
14747 Artesia Blvd. #5A La Mirada CA 90638

리테일러/Window Products

S R Window LLC
류 우(대학원 74) Tel: (909)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리테일러/Beauty Supply

OK Beauty Supply
김상옥(간호대 81) Tel: (562)531-7699
5808 Downey Ave. Long Beach CA 90813

리테일러/생수

Living Water
박국종(법대 57) Tel: (909)874-4966
2828 W. Rialto Ave. Rialto CA 92326

등분 '인명록'

주분은

뒷 표지 광고의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건축/컨설팅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상대 59) Tel: (818)990-5080
3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669

건축/설계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Tel: (310)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건축/토목설계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Tel: (310)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건축/설계

KMD Architects
안철우(행정대학원 71) Tel: (310)394-7725
1733 Ocean Blvd., Suite#310 Santa Monica CA 90401

동문 업소록

리테일러/그로서리

La Palama
송장길(문리대 60) Tel:(323)734-3459
1505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 90018

리테일러/편광식품

Accent on Health
김일혜(약대 58) Tel:(818)360-1516
18559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4

리테일러/정원가구점

Ace Outdoor Power Equip
이근원(상대 67) Tel:(951)735-9980
385 E. Grand blvd. Corona CA 92879

무역/선적

SY shipping Corporation
김송진(법대 38) Tel:(562)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무역

L.A. Supply Co
전승택(사대 60) Tel:(562) 404-1502
13700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 CA 90670

Tribeet Corp.
최세경(문리대 70) Tel:(714)879-7150
1143 N. Patt St., Anaheim CA 92801

무역/농산물

Green Zone Int'l
김환평(차대 65) Tel:(714)724-2580
2800 Keller Dr. Suite 11Tustin CA 92782

무역/건축자재

AMSCO Corp.
신영수(상대 70) Tel:(562)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상대 73) Tel:(714)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무역/회공약품

America Modern, Inc
조충성(상대 71) Tel:(562)529-2018
16316 Downey Ave. Paramount CA 90723

무역/섬유수출입

Wonu USA, INC.
지성호(경영대학원 73) Tel:(310)527-0005
13951 S. Main St. Los Angeles CA 90061

무역/수출입

CKL
김순길(문리대 61) Tel:(213)488-1750
110E. 9th St., #A404 Los Angeles CA 90079

무역/전자제품

Panarex Inc.
김원택(문대 65) Tel:(818)768-5161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무역/관공용 기기 및 약품

YoungIn(USA) Inc.
이영수(상대 60) Tel:(626)448-3039
11100 Valley Blvd. #125, El Monte CA 91731

무역

Martial Supply Kons Trading Co., Inc.
이근원(상대 65) Tel:(323)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변호사/법률사무소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문리대 75) Tel:(213)839-2900
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박준창 변호사
박준창(문리대 79) Tel:(213)389-5900
3345 Wilshire Bl. #810 Los Angeles CA 90010

옥유진 변호사
옥유진(농대 64) Tel:(213)365-2229
610 S. Van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BPNJ Professional Law Co.
장시일(법대 85) Tel:(213)380-8777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Tel:(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 2230 Los Angeles CA 90010

김지영 변호사
김지영(사대 69) Tel:(213) 532-3600
3700 Wilshire Blvd., #61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s of Steven S. Kim
김석희(상대) Tel:(818)717-0429
P.O.Box 280756, Northridge CA 91328

변호사/이민법

이경희 이민법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Tel:(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중개업

S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상대 68) Tel:(213)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코이 종합보험(주)
이경희(상대 67) Tel:(213)387-5252
3200 Wilshire Blvd. #1700 Los Angeles CA 90010

Balboa Insurance
오계석(경영대 90) Tel:(949)222-7344
3349 Michelson Dr. Irvine CA 92612

부동산/모기지

ACE Mortgage & Funding
김철현(상대 61) Tel:(818)241-4086
234 N. Grand Blvd., Glendale CA 91203

부동산/부동산관리

럭키부동산관리회사
김희재(사대 66) Tel:(213)736-5872
3200 wilshire blvd., #1507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중개업

CY & Associates
조순명(문리대 65) Tel:(714)562-0234
6910 Oslo Cir., #205 Buena Park CA 90621

Coldwell Banker-Commercial
강호권(상대 60) Tel:(626)445-6600
660 W. Huntington Dr. Arcadia CA 91007

Marvista 21 Realty
정문영(문대 60) Tel:(951)295-9005
8320 E. Florence Ave. Downey CA 90240

Team Spirit Realty
박정원(사대 72) Tel:(714)562-040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2606

켈터윌리엄 부동산
최태호(보건대학원 63) Tel:(626)204-3300
445 S. Fair Oaks Ave. Pasadena CA 91105

Keller Williams Realty
유강성(농대 56) Tel:(661)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Young Properties
김재형(문대 64) Tel:(310)454-0356
1255 El Hito Circle Pacific Palisades CA 90272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Tel:(951)389-2900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James Lee 부동산
이종표(간호대 69) Tel:(714)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이영희 부동산
이영희(생활과학대 69) Tel:(592)904-4646
8202 Florence Ave.#201 Downey CA 90240

Keller Williams
윤종숙(문대 71) Tel:(310)308-7817
439 N. Caman Dr. Beverly Hills CA 90210

Chongnoh Realty
노종근(문리대 53) Tel:(310)212-7744
2825 Plaza Delomo #134 Torrance CA 90503

부동산/관리

Old Property Management Co.
허기환(상대 66) Tel:(213)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투자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리대 58) Tel:(310)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상민정(문대 65) Tel:(562)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비영리법인/협회

한미당노협회
김용인(보건대학원 65) Tel:(213)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김구선생 기념사업회
최주봉(경영대학원 69) Tel:(213)268-9415
511 S. Kenmore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비영리법인/연구원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Tel:(213)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비영리법인/복지센터

코리안복지센터
홍석관(사대 47) Tel:(323)668-9007
4416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비영리법인/국군포로송환위원회

I.K.W.M.F.
민종진(사대 59) Tel:(213)389-1536
680 Wilshire Place #412 Los Angeles CA 90005

비영리법인/정학회

창운장학회
오재인(지대 33) Tel:(626)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상담/제정설계

AXA Advisors LLC
정인현(간호대 72) Tel:(213)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상담/교육

이춘배 교육상담센터
이춘배(사대 60) Tel:(323)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세탁소

Cleaner
김문국(상대) Tel:(818)508-0909
4821 Lankershim Blvd., #1 North Hollywood CA 91601

서비스/전자제품 특별보험

Hillen's Coast TV, Inc.
김일태(상대 62) Tel:(949)859-8774
23182 Alcalde Dr., #1 Laguna Hills CA 92653

서비스/염색가공

BMS Textile, Inc.
추춘득(문대 69) Tel:(310)886-1100
1800 S. Anderson Ave. Compton CA 90220

Care Tex Industry, Inc.
강봉철(약대 30) Tel:(323)667-5200
4583 Firestone Blvd. South Gate CA 90280

Jade Textile, Inc.
임예건(농대 69) Tel:(213)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서비스/세탁소

가주레미콘회사
김인희(간호대 59) Tel:(562)483-5200
13651 E. Rosepan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서비스/결혼예복

Wilshire Bridal \$ tuxedo
김영욱(농대 71) Tel:(213)365-9333
3818 3822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스킨케어

벨라스킨케어
김영희(문대 62) Tel:(562)338-8064
677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서비스/통역

Better Comm
정연산(인문대 81) Tel:(213)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통역,번역

Ace Translation Services
진범수(농대 71) Tel:(714)863-9555
13205 Fonseca Ave. La Mirada CA 90-638

서비스/세탁소

New-Life Cleaners
오인근(약대 59) Tel:(310)477-0684
11686 GATEWAY BLVD LA CA 90064

Town Gate Cleaner, Inc.
현태복(인문대 82) Tel:(951)656-9780
12625 Frederik St., 1-6 Moreno Vasilley CA 92553

서비스/포토

유니컬러
배인철(사대 60) Tel:(323)667-2087
4632 Santa Monica Blvd., #31-B Los Angeles CA 90029

서비스

Head Consulting JC Consulting
유석환(농대 83) Tel:(213)382-9033
3470 Wilshire Blvd., #616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인쇄업

프린타인쇄소
민종식(문대 59) Tel:(323)734-9966
3604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프린타인쇄소
지숙영(문대 59) Tel:(323)734-9966
3604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Pest Control

K-One Termite, Inc
심명섭(문리대 65) Tel:(213)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유틸리티

Unserve Corp
황상민(문리대 60) Tel:(213)533-1000
550 S Hope St # T 200 Los Angeles CA 90071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Tel:(323)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서비스/서류리터

Eastman Security
이의택(신문대학원 70) Tel:(626)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옥관(문대 76) Tel:(949)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Tel:(213)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사/동물병원

Family Veterinary Hospital

진호선(수의대 74) Tel:(559)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Rose Slauson Animal Hospital

장진봉(수의대 65) Tel:(562)801-1273
9024 E Slauson Ave. # J Pico Rivera CA 90660

Angele Care Animal Hospital

허병래(수의대 67) Tel:(909)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Glendora, Animal Hospital

강상광(수의대 66) Tel:(626)914-5717
169 West Arrow Hwy Glendora CA 91740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Tel:(714)840-48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Tel:(909)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AniMaidPet Hospital

승원표(수의대 73) Tel:(714)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Tel:(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Miraloma Animal Hospital

민병익(수의대 69) Tel:(714)871-3847
5850 Etiwanda, #101 Mira Loma CA 91752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Tel:(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Fairview Pet Hospital

박익순(수의대 74) Tel:(949)387-8790
1175 Baker St., #D-11 Costa Mesa CA 92626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Tel:(626)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Inland Animal Hospital

김영운(수의대 69) Tel:(909)947-4040
2417 Grove Ave Ontario CA 91761

Petra Pet Clinic

김용수(수의대) Tel:(714) 523-1190
14768 Beach Blvd La Mirada CA 90638

Sunny Mead Vet. Clinic

박홍남(수의대) Tel:(951)780-7098
24588 Sunnymead Blvd Moreno Valley CA 92553

Ani. Hosp. of Riverside

박효환(수의대) Tel:(951) 780-6983
11748 Magnolia Ave, #A Riverside CA 92503

Plaza Pet Hospital

이사균(수의대 79) Tel:(949)581-7979
36 Remington Ln Aliso Viejo CA 92656

Animal medical center of So. Cal.

김영규(수의대 88) Tel:(310)320-3164
723 Las Palmas Irvine CA 926021

Gentle Care Pet Clinic

방유식(수의대 82) Tel:(562)594-9955
8175 E. Wardlow Rd Long Beach CA 90808

Alton Main Animal Hospital

문홍식(수의대 65) Tel:(714)540-3105
3105 S. Main St. Santa Ana CA 92707

Glencaks Animal Hospital

최용준(수의대 81) Tel:(818)840-9700
2037 W Glencaks Bl. Glendale CA 91201

Fullerton Hills Pet Clinic

조운하(수의대 71) Tel:(714)879-4380
1805 North Euclid Fullerton CA 92835

Valley Lyons Pet Hosp.

권태식(수의대 73) Tel:(661)254-6680
24882 Apple St Santa Clara CA 91321

Humane Animal Hospital

이명국(수의대 64) Tel:(909)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Roswin Pet Hospital

김 영(수의대 63) Tel:(818)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Paramount Ani. Hosp.

이용권(수의대 71) Tel:(562)630-3172
9021 E. Somerest Bl. Bell Flower CA 907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정수(수의대 73) Tel:(909)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숙박업/호텔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lte

장동식(문리대 66) Tel:(360)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스토어/허드웨어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Tel:(809)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시설물/골프장

Palm Desert Country Club

조성상(상대 73) Tel:(760)345-2655
77-200 California Dr. Palm Desert CA 92211

엔지니어링/컨설팅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Tel:(626)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중희(공대 50) Tel:(310)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엔지니어링

Loedco Engineers, Inc

이종노(공대 66) Tel:(626)448-7870
3870 Baldwin Avenue El Monte, CA 91731

예술/Art Museum

Grat Art at Great Museum

이홍표(의대 58) Tel:(310)541-4208
9 Ambers Sky Dr Rancho Palos Verdes CA 90275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Tel:(213)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예술/세울기

Yoonsok Bai Ryang

배유숙(미대 65) Tel:(947)502-8722
26 Tall Hedge Irvine CA 92603

예술/갤러리

산호세아트아카데미

신현자(미대 59) Tel:(408)244-8311
980 Pomeroy St. Santa Clara CA 95051

요식업/한식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밥대 50) Tel:(213)382-6660
3580 Wilshire Blvd., #1230 Los Angeles CA 90010

운송/통관

Exxel Express

정복규(사대 69) Tel:(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217 Carson CA 90756

유통/Sign원자재

Global Kauson, Inc.

김훈동(상대 62) Tel:(213)675-5301
2300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유통/드매

태평양상사

하상원(대학원 90) Tel:(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유통/임료, 화공약품

Lee Marks Inc.

이호준(공대 55) Tel:(562) 630-9511
7621 Somerset Blvd. Paramount CA 90723

유통/자동차부품

A.P.W.

시동영(사대 60) Tel:(323)770-0751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유통/관리인

Yee Enterprize, Inc.

박우생(상대 77) Tel:(323)547-3789
326 N. Western Ave., #313 Los Angeles CA 90004

유통/식품,부장

자연나라 Marketing Supervisor

최경희(사회과학대 83) Tel:(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유통/광판도매

SeAH Steel America, Inc.

이명권(상대 55) Tel:(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유통/식품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Tel:(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은행/은행

Commonwealth Business Bank

최은화(상대 78) Tel:(323)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은행/이자

Hanmi Bank

박창규(약대 59) Tel:(323)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K's Pharmacy

김진희(약대 64) Tel:(909)591-74209
12582 Central Ave.Chino CA 91710

Normandle Pharmacy

전민석(약대 59) Tel:(213)386-3001
3003 W. Olympic Bl. #101 Los Angeles CA 90006

Olive Pharmacy

홍종희(약대 74) Tel:(323)277-8080
7719 Pacific Blvd. Huntington Park CA 90255

RX Plus Pharmacy

안동호(약대 55) Tel:(714)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Mat's Pharmacy

정만영(약대 66) Tel:(626)791-7595
2750 E. Washington Blvd., Suite 150 Pasadena CA 91107

Beverly Plaza Pharmacy

장순영(약대 65) Tel:(323)724-8940
101 E. Beverly Bl. Montebello CA 90640

나성약국

안낙규(약대 64) Tel:(213)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howard drugs

심화섭(약대 61) Tel:(562)866-5795
5818 N. Bell Flower Lakewood CA 90713

Village Pharmacy

박재인(약대 60) Tel:(213)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밸리웨스트약국

신명환(약대 66) Tel:(626)289-4343
1935 W. Valley Blvd. Alhambra CA 91803

Sav-on Drugs #3607

마취서(약대 60) Tel:(310)323-0975
650 E. El Segundo Blvd Los Angeles CA 90059

Gilbert Pharmacy

최무식(약대 66) Tel:(714)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Kim's Pharmacy

김정연(약대 59) Tel:(818)637-2177
85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인(약대 72) Tel:(818)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4

Hill's Pharmacy

이규상(약대 72) Tel:(949)640-6564
1441 Avocado Ave. Newport Beach CA 92660

KOAM Pharmacy(한미약국)

전광지(약대 62) Tel:(562)402-3636
18102 Pioneer Blvd #101 Artesia CA 90701

의료/약국 Group1

PCH Medical Pharmacy

유창호(약대 74) Tel:(562)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Tel:(323)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유창호(약대 74) Tel:(213)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의료/심장내과

김일영 심장내과

김일영(의대 65) Tel:(323)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정수만(의대 66) Tel:(714)538-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외과

김광근 치과

김광근(치대 61) Tel:(323)930-2828
927 S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김지수 치과

김지수(치대 63) Tel:(818)361-1231
14709 Rinaldi St. San Fernando CA 91340

가나다치과

김대우(치대 62) Tel:(310)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김재권 치과

김재권(치대 80) Tel:(714)778-8160
1007 W. La Palma Ave. #3 Anaheim CA 92801

김동규 치과

김동규(치대 63) Tel:(310)767-1233
1757 W. Carson St. # E Torrance CA 90501

이학근 치과(M)

이학근(치대 63) Tel:(213)388-8764
947 S. Westmoreland #205 Los Angeles CA 90006

동문 업소록

김학천 치과
김학천(치대 73) Tel: (909)923-6622
2550 Archibald Ave. # MONTARIO CA 91761

구청모 치과
구청모(치대 65) Tel: (213)385-8888
2405 W. 8th St # 202 Los Angeles CA 90057

김재종 치과
김재종(치대 62) Tel: (623)681-0800
17476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최미혜 치과
최미혜(치대 64) Tel: (213)386-4919
3000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06

허대욱 치과
허대욱(치대 68) Tel: (714)870-6611
40 E. Orange Thrope Anaheim CA 92801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Tel: (310)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정대연 치과
정대연(치대 74) Tel: (714)995-5000
8884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정해창 치과
정해창(치대 69) Tel: (909)948-2000
10570 Foothill Bl.#240 Rancho Cucamonga CA 91730

한영욱 치과
한영욱(치대 52) Tel: (818)240-5194
435 Arden Ave #570 Glendale CA 91203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Tel: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Tel: (213)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조희원 치과
조희원(치대 53) Tel: (714)539-8947
9872 Champman #102 Garden Grove CA 92641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Tel: (818)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91344

조정현 치과
조정현(치대 59) Tel: (818)345-3353
18905 Sherman Way Reseda CA 91335

조광현 클리마 교정치과
조광현(치대 73) Tel: (626)912-1200
18750 E. Colima #C Rowland heights CA 91748

Il Jin Bak, DDS
박인진(치대 54) Tel: (818)349-3138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영주 치과
이영주(치대 58) Tel: (909)829-3535
16989 Valley Bl. # B. Fontana CA 92335

장기열 치과
장기열(치대 55) Tel: (232)930-1744
402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임진한 치과
임진한(치대 68) Tel: (818)997-0315
7301 Sepulveda Bl., Suite 4 Van Nuys CA 91405

조광제 치과
조광제(치대 82) Tel: (562)696-3334
8330 Painter Ave #B Whittier CA 90602

하웅철 치과
하웅철(치대 65) Tel: (323)466-2875
1096 N. Western Ave. #201 Los Angeles CA 90029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세리로스 한 치과
한종철(치대 62) Tel: (562)860-8544
11846 E. Carson St. Hawaiian Gardens CA 90716

한민철 치과
한민철(치대 64) Tel: (626)854-2100
18391 Colima #209 Rowland heights CA 91748

세리토스 한치과
한 권(치대 62) Tel: (562)860-8544
11846 E. Carson St. Hawaiian Garden CA 90716

Your Choi's Dental
최중환(치대 70) Tel: (323)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최준호 치과
최준호(치대 56) Tel: (714)522-0663
5456 Beach Bl. Buena Park CA 90621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Tel: (562)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태섭, 이말순 치과
정태섭(치대 70) Tel: (714)539-0223
8321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정종훈 치과
정종훈(치대 75) Tel: (323)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90033

장석형 치과
장석형(치대 71) Tel: (818)891-0745
15424 Nordhoff St. Sepulveda CA 91343

최범수 치과
최범수(치대 55) Tel: (213)381-1112
3421 W. 8th St., #1 Lps Angeles CA 90005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Tel: (323)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Tel: (661)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유근주 치과
유근주(치대 72) Tel: (213)386-3366
73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5

서인애 치과
서인애(치대 74) Tel: (714)828-6600
515 S Beach Blvd. # D Anaheim CA 92804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Tel: (818)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송대형 치과
송대형(치대 58) Tel: (323)257-7744
3129 San Fernando Rd. Los Angeles CA 90065

신우식 치과
신우식(치대 62) Tel: (714)540-5151
2112 S Bristol St. Santa Ana CA 92704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Tel: (310)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신무수 치과
신무수(치대 65) Tel: (818) 787-9996
7112 Van Nuys Bl. #205 Van Nuys CA 91405

김정주 치과
김정주(치대 65) Tel: (323)587-6600
7601 Cicil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Tel: (213)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민병택 치과
민병택(치대 61) Tel: (714)972-1756
1311 N. Bristol St. Santa Ana CA 92706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Tel: (562)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박복남 치과
박복남(치대 53) Tel: (323)737-8300
3130 W Olympic Blvd # 330 Los Angeles CA 90006

박한영 치과
박한영(치대 56) Tel: (310)443-3030
10921 Wilshire Blvd # 501 Los Angeles CA 90024

윤수중 치과
윤수중(치대 63) Tel: (714)537-9160
9520 Garden Grove Bl.#14 Garden Grove CA 92844

김인권 치과
김인권(치대 72) Tel: (213)739-8641
3663 W. 6th St.#300 Los Angeles CA 90020

윤한돈 치과
윤한돈(치대 70) Tel: (310)830-3620
851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Tel: (213)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이장길 치과
이장길(치대 63) Tel: (323)581-0100
5914 Pacific Blvd. Huntington Park CA 90255

강희남 치과
강희남(치대 71) Tel: (909)986-6866
2234-A S. Euclid Ave., Ontario CA 91762

김홍일 치과
김홍일(치대 64) Tel: (213)384-6931
610 S. Harvard Blvd., Suite 101 Los Angeles CA 90005

권순철 치과
권순철(치대 67) Tel: (805)925-3279
1414 S Miller St. #S Santa Maria CA 93454

권중규 치과그룹
권중규(치대 63) Tel: (213)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Dr. Lim's Total Dental Group
임진환(치대 70) Tel: (213)251-0066
3550 Wilshire Blvd. # 835 Los Angeles CA 90010

나도명 치과
나도명(치대 65) Tel: (818)343-3916
7604 Reseda Blvd. Reseda CA 91335

이종문 치과
이종문(치대 68) Tel: (909)861-4444
1108 S. Diamond Bar Bl Diamond Bar CA 91765

이희찬 치과
이희찬(치대 71) Tel: (626)965-8070
19745 E. Colima Rd.#E10 Rowland Hts CA 91748

늘웃는 치과
이명환(치대 74) Tel: (323)734-3710
966 S. Western Ave.#207 Los Angeles CA 90006

임영규 치과
임영규(치대 62) Tel: (714)539-1200
8754 Garden Grove Garden Grove CA 92844

O Jin Kwon, DDS
권오진(치대 61) Tel: (310)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오세열 치과
오세열(치대 62) Tel: (714)375-2600
7648 Edinger Ave. Huntington Beach CA 92647

이종일 치과
이종일(치대 67) Tel: (909)983-9325
1739 S. Euclid Ave. # A.Ontario CA 91762

이찬용 치과
이찬용(치대 72) Tel: (213)383-2466
975 S. Vermont Ave. #205 Los Angeles CA 90006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Tel: (213)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이 업 치과
이 업(치대 70) Tel: (714)554-8441
2709 Westminster #J Santa Ana CA 92706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Tel: (818)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김성욱 치과
김성욱(치대 73) Tel: (909)628-7000
2983 Chino Ave. #A-5 Chino Hills CA 91709

김태형 치과
김태형(치대 93) Tel: (213)740-1334
925 W. 34th St. #102 Los Angeles CA 90089

김명수 치과
김명수(치대 69) Tel: (714)522-3000
2800 W Warner Ave #G Santa Ana CA 92704

김명신 치과
김명신(치대 81) Tel: (714)522-3000
15500 La Mirada Bl. La Mirada CA 90638

김기호 치과
김기호(치대 63) Tel: (909)626-8214
9625 Monte Vista #105 Montclair CA 91763

김세영 치과
김세영(치대 69) Tel: (310)532-7323
15201 S. Western Ave Gardena CA 90249

곽명훈 치과
곽명훈(치대 75) Tel: (323)254-2500
5522 N.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42

고석규 치과
고석규(치대 67) Tel: (818)988-6393
7222 Van Nuys Bl. #B Van Nuys CA 91405

김윤성 치과
김윤성(치대 65) Tel: (213)483-0772
1517 W 6th St. Los Angeles CA 90017

이수용 치과
이수용(치대 62) Tel: (818)888-3187
7220 De Soto Ave. Canoga Park CA 91303

김인수 치과
김인수(치대 69) Tel: (714)522-5565
8350 Los Coyotes # A Buena Park CA 90621

정해철 치과
정해철(치대 61) Tel: (213)387-2121
1144 S. Western Ave., Suite 210 Los Angeles CA 90005

양효준 치과
양효준(치대 70) Tel: (818)244-0299
437 W. Colorado St. Glendale CA 91204

이호경 치과
이호경(치대 63) Tel: (562)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이영호 치과
이영호(치대 63) Tel: (626)965-0971
18156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이태하 치과
이태하(치대 63) Tel: (714)638-4042
13031 Kerry St. Garden Grove CA 92844

동문 업소록

이수남 치과
이수남(치대 65) Tel: (626)350-0944
3818 N Peck Rd #C El Monte CA 91732

백성욱 치과
백성욱(치대 68) Tel: (626)810-4248
3640 S. Nogales St. West Covina CA 91792

백경수 치과
백경수(치대 63) Tel: (213)381-7967
3544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노성강 치아이식 치과
노성강(치대 68) Tel: (714)537-0113
9535 Garden Grove Bl. #201 Garden Grove CA 92844

이상욱 치과
이상욱(치대 68) Tel: (562)421-3764
3840 Woodruff Ave. #107 Long Beach CA 90808

조상우 치과
조상우(치대 64) Tel: (310)637-6187
402 S. Long Beach Bl. Compton CA 90221

오홍조 치과
오홍조(치대 56) Tel: (213) 382-8205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이영송(치대 65) Tel: (323)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Tel: (626)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91748

의료/내과

김대중 내과
김대중(의대 70) Tel: (714)539-9963
Garden Grove Blkvd. Ste.102 Carden Grove CA 92844

전영균 내과
전영균(의대 59) Tel: (323)954-1111
903 S. Crenshaw Blvd., #103 Los Angeles CA 90019

안우성 내과
안우성(의대 70) Tel: (562)916-5020
20145 S. Pioneer Blvd. Lakewood CA 90715

차민영 내과
차민영(의대 76) Tel: (323)766-7770
3130 West Olympic Blvd. #220 Los Angeles CA 90006

최정호 내과
최정호(의대 61) Tel: (818)843-0653
2701 W. Alameda Ave. #301 Burbank CA 91505

유시읍 내과
유시읍 (의대 68) Tel: (818)344-3600
18437 Satcoy St. #6A Reseda CA 91335

임남진 내과
임남진 (의대) Tel: (310)391-7261
11303 W. Washington Bl.#100 Los Angeles CA 90066

오도영 내과
오도영 (의대 77) Tel: (310)543-2977
21350 Hawthorne Blvd. #260 Torrance CA 90503

의료/소아과

구철희 소아과
구철희(의대 78) Tel: (909)352-5070
3975 Jackson St. #305 Riverside CA 92503

김정웅 소아과/알러지과
김정웅(의대 62) Tel: (323)261-2111
4082 E Whittier Blvd # 102 Los Angeles CA 90023

홍선진 소아과
홍선진(의대 65) Tel: (213)380-1122
3000 W. Olympic Blvd. #304 Los Angeles CA 90006

박호성 소아과
박호성(의대 55) Tel: (213)382-5420
8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5

권영재 소아과
권영재(의대 57) Tel: (562)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백지혜 지성 알러지과
백지혜(의대 82) Tel: (213)385-9090
3000 W. Olympic Blvd. #203 Los Angeles CA 90006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Tel: (213)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Kaiser Permanente Medical Center
이석규(의대 64) Tel: (310)517-3343
1050 West Pacific Coast Hwy Barbor City CA 90710

의료/생명의학

VIP 성형외과
최광욱(의대 70) Tel: (323)737-1717
3323 W. Olympic Blvd. #215 Los Angeles CA 90019

의료/산부인과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Tel: (909)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Professional Corp.
장문삼(의대 71) Tel: (213)383-8497
3671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한 일 산부인과
한 일(의대 69) Tel: (714)444-3030
11160 Warner Ave. #303 Fountain Valley CA 92708

Sang H. Park, M.D.
박상효(의대 65) Tel: (323)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의료/신경정신과

정균희 신경정신과
정균희(의대 66) Tel: (310)222-1834
2528 West Olympic Blvd. #103 Los Angeles CA 90006

신승식 신경정신과
신승식(의대 77) Tel: (909)799-7488
Pettis VA medical Center Linda CA 92357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Tel: (562)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의료/신경외과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Tel: (818)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노규상 신경외과
노규상(의대 60) Tel: (818)240-5241
435 Arden Ave. #380 Glendale CA 91203

의료/간호사 파견관리

Care Providers, Inc.,
양현삼(공대 64) Tel: (310)386-1200
3325 Wilshire Blvd., Suite 950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안과

한석진 안과
한석진(의대 73) Tel: (323)731-2020
3030 W. Olympic Bl.#220 Los Angeles CA 90006

의료/외과

안영국 외과
안영국(의대 72) Tel: (213)388-0040
3663 West 6th St. #108 Los Angeles CA 90020

백길영 외과
백길영(의대 59) Tel: (909)920-3753
1175 E. Arrow Hwy #D Upland CA 91786

강명식 외과
강명식(의대 61) Tel: (805)527-8027
2750 N. Sycamore Dr. #209 Simi Valley CA 93065

박진국 외과
박진국(의대 65) Tel: (213)380-3306
3663 W. 6th St. #302 Los Angeles CA 90020

의료/신장과

백남하 신장과
백남하(의대 57) Tel: (714)835-4129
999 N. Tustin Ave. #15 Santa Ana CA 92705

이현병 신장과
이현병(의대 62) Tel: (213) 480-3380
4220 West 3rd St. #203 Los Angeles CA 90020

의료/중증의료

한중수 통증의료원
한중수(의대 69) Tel: (213)700-7575
11832 Rosecrans Ave. Norwalk CA 90650

의료/재활의학

신명균 재활의학 전문의
신명균(의대 77) Tel: (213)380-0390
3663 West 6th St. #305 Los Angeles CA 90020

의료/이비인후과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태진(중대 66) Tel: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의료/의원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적영수(의대 47) Tel: (213)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항기(의대 66) Tel: (213)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hm, M.D.
위용우(의대 57) Tel: (909)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의료/심리치료

Forensic Evaluation(아동 임상심리사)
오정원(중대 68) Tel: (818)790-7881
2550 Honolulu Ave., Suite 107 Montrose CA 91020

의료/물리치료

Sheriff DepMedicine of County of LA
유병인(의대 62) Tel: (213)389-1940
450 Bauchet St. Los Angeles CA 90012

의료/재단

고려보건재단
김동성(행정대학원 59) Tel: (213)389-3800
1058 So.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의료/방사선과

윤성수 방사선과
윤성수(의대 66) Tel: (323)954-0145
903 S. Crenshaw Blvd. #101 Los Angeles CA 90019

의료/Medicine

S.J. Whang, MD, 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Tel: (909)427-5408
1325 Via Del Reg. South Pasasena CA 91030

의료/척추신경과

김광은 척추신경
김광은(의대 56) Tel: (323)468-1001
4711 Oakwood Ave. #100 Los Angeles CA 90004

의료/의사

Kaiser Permanente
남기섭(의대 66) Tel: (909)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Signature Healthcare hhc
김순관(의대 60) Tel: (951)549-8032
4238 Green River Rd. Corona CA 92811

LA 내과그룹
김승현(의대 75) Tel: (213)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의료/미취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Tel: (909)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dino CA 92404

의료/위장내과

권평일 위장내과
권평일(의대 59) Tel: (213)487-4141
4220 W. Third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의료/안과

김석진 눈수술전문안과
김석진(의대 73) Tel: (213)385-8500
3663 W. 6th St. #200 Los Angeles CA 90020

의료/신경내과

김경세 신경내과
김경세(의대 60) Tel: (213)389-0100
3663 W. 6th St., #201 Los Angeles CA 90020

의료/방사선과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Tel: (818)375-288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의료/위장내과

임 번 위장내과
임 번(의대 61) Tel: (213)739-8610
900 S. Westmoreland Ave. #201 Los Angeles CA 90006

인터넷/호스팅 및 디자인

Prose.net
조부성(의대 70) Tel: (818)246-4983
256 S. Hobart Blvd., Apt 12 Los Angeles CA 90004

인터넷/포털사이트운영

AladdinUS.com
이형열(인문대 79) Tel: (213)389-8885
1543 W. Olympic Blvd. #202 Los Angeles CA 90015

Interpark, America
박정균(공대 60) Tel: (949)242-4513
8 Corporate Park, Suite300 Irvine CA 92606

인터넷/웹제작

Sam & Anne, Inc.
공성식(경영대 89) Tel: (818)653-1351
1151 Sonora Ave. #107 Glendale CA 91201

제조업/전광과 자연

Nature & Health, Inc.
송준섭(중대 65) Tel: (714)257-16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제조업/항공

Inter Science Inc.
김동욱(공대 60) Tel: (805)499-3191
3533 Old Genejo Rd. #104 Newbury Park CA 91320

HF Group, Inc.
이명선(상대 59) Tel: (310)605-0190
203 W. Artesia Blvd. Compton CA 90220

제조업/신생 제생타이어

New Pride Corp.
김은중(상대 59) Tel: (310)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제조업/Chemical & Dye stuff Supply

Westco Spectra Color, Inc.
최복영(사대 56) Tel: (310)903-5515
12238 Hawkins St. Santa Fe springs CA 90670

제조업/전기전등

Dale Tiffany, Inc.
정예현(상대 63) Tel: (714)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제조업/우주항공

테이코우주개발사
정재훈(공대 64) Tel: (714)952-2240
10874 Hope St. CypressCA 90630

제조업/생강고-상업용

Turbo Air, Inc.
서치원(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광고

제조업/섬유

CS America, Inc.
주수봉(공동 67) Tel:(323)583-6930
4309 Exchange Ave., Vernon CA 90058

제조업/전기

삼성전기
김정욱(공동 67) Tel:(949)797-8027
3345 Michelson Dr. Suite 350 Irvine CA 92612

제조업/통신장비

RF Connection, Inc.
이동휘(공동 63) Tel:(562)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J Whittier CA 90605

제조업/ATS 제작

한광유에스에이
김상호(사대 52) Tel:(714)232-9909
5215 S. Boyle Ave. Vernon CA 90058

제조업/모터개발

Silla America, Inc.
이기준(별대 54) Tel:(323)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종교/교회

글로벌 선교교회
장성현(유대 77) Tel:(909) 396-4441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
허영신(문리대 61) Tel:(714)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사랑의 빛 선교교회
남재희(유대 65) Tel:(626)744-9191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부모님선교교회
신중자(사대 61) Tel:(714)778-1721
510 S. Greenwich St. Anaheim CA 92804

소망선교교회
허재신(문리대 64) Tel:(818)920-0858
10400 Zelzah Ave. Northridge CA 91326

유니온 교회
박구상(사대 64) Tel:(626)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라칸나다 한인교회
복교원(공동 65) Tel:(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ccanada CA 91011

중앙교회
박장균(문리대 62) Tel:(323)735-6585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
박성근(문리대 72) Tel:(213)383-4982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유종호(문리대 61) Tel:(562)402-7104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복음총만교회
서재영(사대 70) Tel:(213)389-3189
433 S. Lake St., #313 Los Angeles CA 90057

성서장로교회
나민주(유대 65) Tel:(310)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남가주 꿈이있는 교회
김수영(사대 37) Tel:(949)441-1111
421 S. Sunkist St/ Anaheim CA 92806

아름다운교회
고승희(장영대 77) Tel:(626)810-3455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유니온 교회
이정근(사대 60) Tel:(626)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홀러튼 장로교회
노진걸(사대 72) Tel:(714)446-9010
511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종교/목사

올타리교회
신동희(공동 78) Tel:(949)441-1111
14946 Shoemaker Ave., #A Santa Fe Springs CA 90670

트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Tel:(310)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산상보훈교회
이중남(농대 61) Tel:(714)552-6222
1130 E. Walnut Ave. Orange CA 92867

직장/소프트웨어

Cisco System, Inc.
인광희(공동 73) Tel:(408)424-4734
121 Theory Dr. Irvine CA 92612

직장/행정

Center Bank
유재환(상대 67) Tel:(213)38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700 Los Angeles CA 90010

직장/광고

미주총신
최명용(유대 64) Tel:(213)487-1010
2975 Wilshire Bl., #300 Los Angeles CA 90010

직장/출판

C.S.U. L.B./College of Business Admn.
신재강(상대 61) Tel:(562)985-8609
1250 Bellflower Blvd., Long Beach CA 90840

한국 출판사
박양중(문리대 61) Tel:(213)380-2775
3475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컨설팅/세정설계

AXA-Advisors
정인현(산호대 72) Tel:(213)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컨설팅/세정

Commonwealth Business Bank
마준태(상대 80) Tel:(323)988-3010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컨설팅/교육정보

양민박사 대학컨설팅(US Edu Con)
양 뒤(공동 77) Tel:(213)738-0744
305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컨설팅/수리판매

Computer Pro
유재우(공동 83) Tel:(310)863-0132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컨설팅/기업전산프로그램

ERP Enterprise Resauce Program
김재환(유대 90) Tel:(213)738-1010
335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통관/운송

Bel Air Postal Center
김중혁(상대 65) Tel:(310)475-0788
2934 Beverly Glen Circle, L.A. CA 90077

학원/음악

Les Etoiles 트리오
김소현(유대 76) Tel:(310)539-3466
2330 Arlington Ave. #10 Torrance CA 90501

학원/온라인 경영학

Pacific Western University
신재강(상대 61) Tel:(562) 57-5344
www.pwu-ca.edu Long Beach CA 90840

학원/일반학원

Keystone Academy
시재익(약대 39) Tel:(818)248-3322
275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박문규(문리대 66) Tel:(213)381-3710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학원/수학교실

La Canada Kumon Learning Boss
고숙사(문리대 72) Tel:(818)348-3123
4515 Ocean View Bl. La Canada CA 91011

한방/의원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교육대학위 66) Tel:(714)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수의대 66) Tel:(213)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Life Acupuncture Clinic
김민삼(공동 52) Tel:(323)581-0909
7024 Seville Ave. #A Huntington Park CA 90255

북가주

건축/설계

안백영종합건축설계
안백영(공동 75) Tel:(650)548-2610
533 Airport Blvd., Suite#388 Burlingame CA 94010

금융/은행

Hanin Federal Credit Union
박종영(상대 52) Tel:(213)368-9000
3700 Wilshire Blvd., #104 Los Angeles CA 90010

변호사

Law Office of Anna K. Oh
신정란(유대 68) Tel:(916)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비영리법인/학교

국제하모니카음악치료연구소
윤성희(사대 58) Tel:(650)248-1009
987 Addison Ave. Palo Alto CA 94301

국제하모니카음악치료연구소
나명숙(사대 61) Tel:(650)248-1009
987 Addison Ave. Palo Alto CA 94301

비영리법인/학회

국제해양*지구공학회
정진수(공동 66) Tel:(650)254-1871
495 North Whisman Rd., Suite 300 Mountain View CA 94043

상업/Art 컨설팅

Keyoung Art Advisory LLC
장민성(비대 98) Tel:(415)750-0533
268 Bush St., #3949 San Francisco CA 94104

서비스/결혼상담

돌이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Tel:(510)451-0240
2910 Telegraph Avenue, Suite 200 Oakland CA 94609

수의사/동물병원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수의대 73) Tel:(510)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Tel:(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숙박업/호텔

Ramada Yosemite
최정신(농대 65) Tel:(559)658-5500
48000-800 Royal Oak Dr. Oakhurst CA 93644

의료/의원

산부인과
황동희(의대 65) Tel:(415)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이진영 외과
이진영(의대) Tel:(408)280-5655
100 O'Connor Dr. #12 San Jose CA 95128

의료/외과

Samuel Chol, DDS
최상규(치대 63) Tel:(916)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부영무 치과
부영무(치대 70) Tel:(408)737-8008
425 E. Remington Dr. #6 Sunnydale CA 94087

직장/Nurse Practitioner

On Lok Lifeway
남수현(간호대 93) Tel:(415)292-8303
1333 Bush St. San Francisco CA 94109

한방/의원

박희례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Tel:(631)423-8753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샌디에고

건축/사재생산

Sierra Padre Mill Co.
임찬민(문리대 61) Tel:(760)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보험/중개업

Insurance Agent with Farmers
임용갑(공동 84) Tel:(858)243-2504
3160 Camino Del Rio South #118 San Diego CA 92108

부동산/중개업

Juns Lee 부동산
이준희(의대 78) Tel:(858)525-3222
4428 Convoy St. San Diego CA 92111

수의사/동물병원

Mission George Ani. Hoep.
이재현(수의대 76) Tel:(619)280-1503
San Diego CA 92120

Nordahl Pet Clinic
권원핵(수의대 83) Tel:(760)745-5171
630 Nordahl Road, Suite L San Marcos CA 92069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Tel:(760)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엔지니어링/방위산업

Ahntsch, Inc.
안수명(공동 61) Tel:(619) 516-5900
3333 Camino Del Rio South 3120 San Diego CA 92108

의료/의원

샌디에고 소아과
박성민(의대 58) Tel:(858)966-5846
3030 Children's Way #205 San Diego CA 92123

의료/약국

De Anza View Pharmacy
인영민(약대 66) Tel:(858)274-1660
3737 Moraga Ave. #B103 San Diego CA 92117

의료/기정주치의

San Diego Microsurgical Inet.
이실홍(의대 42) Tel:(619)542-1280
4077 5th Ave. San Diego CA 92103

의료/의사

San Diego County Psychiatric Hospital
강영희(의대 56) Tel:(619)692-8662
3853 Rosecrans St. San Diego CA 92110

의료/외과

김경수 치과
김경수(치대 58) Tel:(213)482-5462
1127 Wilshire Blvd. # 1500 Los Angeles CA 90017

의료/의원

Kent Pathology Lab
김세원(의대 57) Tel:(818)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6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및 임원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명예회장: 이진구(농)

제10대 회장: 송순영(문)

차기회장: 김은중(상)

관악후원회장: 구경희(의)
관악후원회 고문: 이준행(공)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오인석(법) 이병준(상) 방은호(약) 윤정옥(약) 이경립(상) 서동영(사) 김태환(의)

회칙위원회: 오인환(문) 진금섭(약) 이용락(공) 서중민(공) 한재은(의) 신응남(농) 김지영(사)

상임이사회: 이문휘(문) 윤상래(수) 정홍택(상) 김세중(공)곽상준(약) 김종율(사) 최수용(상) 최철용(농) 진봉일(공) 성기호(약) 양순우(법) 정인식(상) 김영덕(공) 한창섭(문) 오인석(법) 권태전(사) 노용면(의) 임건식(음) 신응남(농) 강연식(사) 이내원(사)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김정주(문)
총무국장: 이승자(사)
재무국장: 박 숙(의)
특별간사: 조대현(공) 정 호(공) 장기남(문) 최순용(문)
감 사: 박영규(농) 김재영(농)

회보 임원 및 위원

발행인: 송순영(문)
주 필: 이윤모(농)
편집위원: 고병철(법) 이승자(사) 조대현(공) 윤효정(사)
편집장: 이기준

논설 위원

고병철(CH) 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정(CH)
남재홍(NY) 라철삼(LA) 백 순(DC) 오강남(BC) 오기창(CH)
육길원(CH) 이석구(NY) 이청광(LA) 임승쾌(SF) 한창섭(NY)

<이상 논설위원은 8월 20일 현재 봉사불 허락하신 동문들이며 앞으로 논설위원 수락을 하시는 동문들의 명단을 추가로 게재합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 지역 지부회 회장단

| | | | | | |
|-------|------|--|----------|------|--|
| 남가주 | 회장 | 제영혜(가정 71입) 714-809-4481 yvonnelee52@msn.com | 오하이오 | 회장 | 최민갑(공대 57입) 614-436-5780 jchol613@gmail.com |
| | 차기회장 | 김은중(상대 59입) ekim@pcr-ims.com | | 차기회장 |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
| 북가주 | 회장 | 홍성제(치대 69입) 408-504-9358 sjhong@pacbell.net | 하와이 | 회장 | 이상협(상대 82입) 808-956-8590 leesang@hawaii.edu |
| | 차기회장 | 임승쾌(문리 66입) 510-381-1054 sk0425@hotmail.com | | 차기회장 | 전수진(농대 89입) 614-581-5875 soojin@hawaii.edu |
| 샌디에이고 | 회장 | 박우선(공대 57입) 858-603-6878 hallopark@cox.net | 하를랜드 | 회장 | 김명자(문리 62입) (402) 493-2284 jtkohr@msn.com |
| | 차기회장 | 민영기(치대 61입) 818-515-3217 ykmindds@aol.com | | 차기회장 | 배규명(사대 68입) 913-402-8477 kybae8533@gmail.com |
| 뉴욕 | 회장 | 신응남(농대 70입) 718-463-3131 peters1027@aol.com | 플로리다 | 회장 | 전일수(상대 50입) 305-606-1982 eugenechun@hotmail.com |
| | 차기회장 | 한경수(문리 57입) 516-742-8483 jsh1206@aol.com | | 차기회장 |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
| 워싱턴DC | 회장 | 박우광(약대 60입) 301-330-6921 moopark@nih.gov | 유타 | 회장 |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utah.edu |
| | 차기회장 | 정상목(약대83입) 240-346-1043 | | 차기회장 | 박찬호(자연 81입) 801-440-0034 chanho.park@fairchildsemi.com |
| 시카고 | 회장 | 노영일(의대 62입) 708-226-0345 youngilro@comcast.net | 캐롤라이나 | 회장 | 김기현(문리 51입) 510-655-3239 gideon@80square.com |
| | 차기회장 | 이영우(문리 66입) 630-655-2320 ykiminc@aol.com | | 차기회장 | 정량수(의대 60입) 828-442-8711 drchung3@yahoo.com |
| 필라델피아 | 회장 | 손재옥(가정77입) 267-736-2992 jhaah@timhaahs.com | 로키마운틴스 | 회장 | 강창운(의대 72입) 720-344-2815 mydreamis@comcast.net |
| | 차기회장 | 전방남(상대 73입) 215-360-4138 jeonbana@drexel.edu | | 차기회장 | 전남인(사대 입) 719-592-0037 jhonjeun@hotmail.com |
| 휴스턴 | 회장 | 박홍우(공대 76입) 713-443-5310 henrypp@msn.com | 애리조나 | 회장 | 고광선(공대 57입) 425-488-6326 ncyangkoh@gmail.com |
| | 차기회장 | 김순금(간호 69입) 713-828-5909 sibokkim@yahoo.com | | 차기회장 | 오덕겸(의대 58입) jindork@coxr.net |
| 델러스 | 회장 | 이희덕(농대 67입) 214-727-4997 hlee4@naver.com | 오레곤 | 회장 | 김기린(사대 75입)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
| | 차기회장 | 이석호(은대 78입) 972-475-1184 | | 차기회장 | 김진영(공대 72입) 503-686-038 jin.y.kim@intel.com |
| 조지아 | 회장 | 이영진(공대 76입) 404-579-8282 | 알래스카 | 회장 | 장근유(미대 58입) 907-748-0067 |
| | 차기회장 |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 | 차기회장 | 배석연(농대 58입) 907-561-0818 |
| 뉴잉글랜드 | 회장 | 윤상래(수의 62입) 978-343-3049 yoonsville@aol.com | 캐나다 온타리오 | 회장 | 이승찬(농대 55입) 647-246-2405 schanlee@rogers.com |
| | 차기회장 | | | 차기회장 | 김학성(농대 74입) 905-873-1989 hakskim@email.com |
| 미네소타 | 회장 | 남세현(공대 67입) 651-285-9715 ssnam@mmm.com | 캐나다 밴쿠버 | 회장 | 오강남(문리 61입) 604-461-5178 soft103@hotmail.com |
| | 차기회장 | 김영석(공대 73입) 612-750-0885 ysk495@gmail.com | | 차기회장 | 이현(공대 79입) 604-454-4424 jarneshyunlee@hotmail.com |
| 워싱턴주 | 회장 | 김재훈(공대 72입) 425-681-4253 jkim1@ieee.org | 캐나다 앨버타 | 회장 | 이근홍(농대 65입) 403-554-4830 leekhken@hotmail.com |
| | 차기회장 | 신창범(법대 73입) 206-949-787 changshin@eschelon.com | | 차기회장 | 조윤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q@hotmail.com |



선배님! 함께 해주세요!

VISION2025 모금 캠페인, 세계 최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선배님, 우리 후배들에겐 꿈이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다져놓으신 전통을 기반으로 삼아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
비전2025 모금 캠페인은,
세계 정상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모교와 나라에 대한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3천억 원 모금을 목표로 시작한 비전2025 캠페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벌써 80% 가까운 모금을 달성했습니다.
멋진 마무리는 동문 선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의 뜨거운 모교 사랑이
바로 서울대의 경쟁력입니다.

• 동문 집중 참여 기간 : 2009년 8월~2010년 7월

서울대학교 모금캠페인 VISION2025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

| | |
|---|--------------------------------------|
| 세계를 향한 힘찬 도약 Global Excellence | 세계 초일류 인재 육성 대학의 국제화 글로벌 학문 육성 |
| 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 Social Impact | 사회 기여의 확대 사회 정책 기능 강화 |
| 미래를 위한 변화와 준비 Foundation for Transformation | 대학 혁신 지원 학문 인프라 강화 |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재원은 서울대학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사용됩니다.

발전기금 참여 계좌: Woori Bank Seoul National Univ. Br.
Address: San 4-2, Naksungdae-dong, Gwanak-gu,
Seoul 151-919, Korea
Account No.: 1081-000-418404
Swift Code: HVBKCRSE
문의: 82-2-880-5026, 871-8146
gift@snu.or.kr
<http://www.snu.or.kr>

